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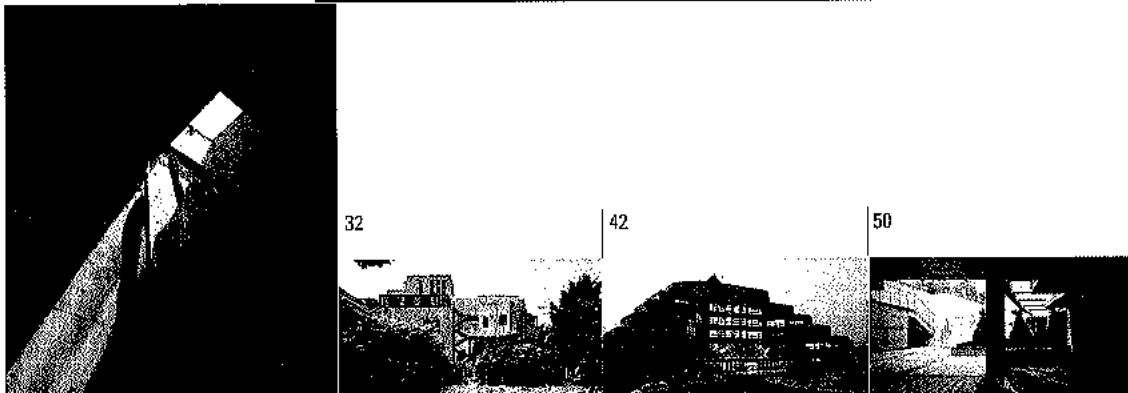
建築士



K.I.R.A | vol. 394 | 2002

UIC





호유재(김효만 作)

건축예세이	집	김기석	12
작품리뷰	호유재	김효만	16
	비평 : 그의 건축은 향기가 있고 빛이 있다	박민철	26
회원작품	풍덕다가(豐德多家)	최동호	30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공동지원시설	김진균 · 신동재	38
	농업기반공사본사	이강호	46
	명지전문대 공학관/도서관 & 본관/인문사회관	유 건	52
	서부소방서 리노베이션	한상운	60
	금정세무서	김동화 · 하동윤 · 고성룡	66
작품노트	D천주교회	이충기	74
기고	지구단위계획이 아파트설계에 미치는 영향	윤혁경	78
건축만평		유원재	86
건축마당	건축계소식		87
	현상설계경기		92
	계획작품		106
	해외잡지동향		109

발행인: 우남웅
편찬분과위원회: 위원장 / 박영식
위 원 / 김석환, 김수경, 옥대상, 최동규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스일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쇄인: 김중식 / 중앙미술인쇄공사 (02)2269-7619

92



96



104



Essay

House	Kim Ki-Seok	12
-------	-------------	----

Review

Ho-Yoo-Jae	Kim Hyo-Man	16
------------	-------------	----

Critique : Hoyoojae, House with Fragrant Lights	Park Min-Cheol	26
---	----------------	----

Works

Pungdeok Multi-Family Housing	Choi Dong-Ho	30
-------------------------------	--------------	----

Research Park Supporting Facilit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Jin-Kyo & Sheen Dong-Jae	38
--	------------------------------	----

KARICO	Lee Kang-Ho	46
--------	-------------	----

Myongji College Engineering Building/Library & Administrative/Humanities-Social Science Building	Yu Kun	52
--	--------	----

Renovation of Seobu Fire Station	Han Sang-Woon	60
----------------------------------	---------------	----

Geumjeong District Tax Office	Xia Dong-Hae, Heo Dong-Yun & Ko Seong-Ryong	66
-------------------------------	---	----

Design Note

D Catholic Church	Lee Chung-Ki	74
-------------------	--------------	----

Feature

The Influence of Urban District Planning on Apartment Building Designs	Youn Hyuk-Kyung	78
--	-----------------	----

Cartoon	Yoo Won-Jai	86
---------	-------------	----

Architects' Plaza

Archi-Net		87
-----------	--	----

Competition		92
-------------	--	----

Process works		106
---------------	--	-----

Overseas Journal		109
------------------	--	-----

Publisher: Woo Nam-Yong

Editorial Member : Park Young-Sik, Kim Seok-Hwan, Kim Soo-Kyeong, Mok Dae-Sang,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ungang-art Printing Co.)

집

House

김기석 / 건축사사무소 아람마당

by Kim Ki-Seok

처음에는 집이 있었다.

내게 있어서 집이란 신화와 같은 것이었다. 역사는 신화에서 출발한다. 나는 집에서 태어났다. 집은 나를 키웠다. 자라나면서 나는 새로운 집, 나만의 집을 꿈꾸었다. 집은 꿈꾸는 것이었고 그리는 것이었다. 집은 위대한 자아(自我)였다. 한 자아에서 태어나 일껍질을 깨고 더 큰 자아를 향하여 날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니던가.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다. 절주하던 나에게 막다른 골목이 나타난 것이다. 그 끝 벽에는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 위대한 자아란 없다!

그 벽을 뚫고 자기소멸을 향한 길이 열려 있었다. 그것은 사랑의 길이었다. 신(神)이 사랑이라면 그것은 신의 길이기도 하였다. 그 때, 집은 어디에 있는가?

집은 집을 떠나는 곳에 있었다. 거기에는 아픔이 있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아픔을 찬양하는 자는 없다. 그러나 이 짐작가는 함부로 집어 내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사랑을 말할 때 우리의 가슴은 피를 흘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아주 작은 사람이라도 그렇다. 그리고 대체로,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아주 작은 것이다. 어마어마한 것 속에는 사랑이 없게 마련이니까. 사랑은 부풀리면 증발한다. 늘이면 사리지고 즐식시키면 증오로 변한다. 사랑은 탐욕이 비어 있는 틈에 고이는 희귀한 빛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벼랑 어디에 탐욕의 바위가 버티고 서 있지 않은 곳이 있었던가?

한 방울의 빛! 나는 액체는 바위 틈새에서 새가 되고 새는 벼랑 곁을 날다 떨어져 죽는다. 우리들의 가슴에 남아 있는 굵힌 자국들은 그 비상의 계작들이다. 아직도 고운 노래가 되어 있어 깊은 밤 한 구석을 울리고 있는 그 섬세한 슬픔의 소리를 나는 듣고 있다.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나는 해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미학적 논리를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이슈를 요구하는 시대적 동기를 이해할 수는 있다. 문화현상은 집단무의식의 소산이므로, 그리고 나의 무의식은 첨예하게 집단무의식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해체주의의 등장은 건축에 대한 철학적 갈망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드러낸다.

이제 집은 해체 속에 있었다. 해체는 파괴가 아니었다. 해체는 변형이 아니었다. 해체는 승화(昇華)였다.

그리고 집은 길 위에 있었다. 너덜너덜 헤어진 집을 걸치고 걷는 걸음은 참으로 누추했다. 이 넝마조각이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집은 누추한 꽃새를 면하지 못하리라.

허물을 벗듯 나는 집을 벗고 있었다.

사람들이 내게로 왔다. 지적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내게 집을 그려달라고 했다.
그 집에서 그들은
꼭꼭 숨고 싶다고 말했다.
파도가 달려와 물었다.
“섬은 어디에 있는가?”
영원히 숯 섬을 가리켜 달라고
갈기를 하얗게 세운 말은 외쳤다.
위대한 섬이 될 수 있는 집을 찾기 위해
나는 한 생애를 바쳤다.
그리고 오늘도 한 아름의 청사진을 안고
불켜진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전송한다.
내 집은 정거장에 있다.
희망의 수레가 왔다 갈 때마다
내 집은 조그맣게 바스러진다.
청사진 위에 이렇게 적어 두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을 속이는 것이 되리라.
“당신이 찾는 섬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거장의 그림일 뿐임을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비가 내렸다.
연애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포도(鋪道)는 번쩍거렸다.
불켜진 집들이 유령처럼
광장을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돌아갈 집이 없었다.
정거장이 어디로 돌아간단 말인가.

정거장은 다만 옮겨갈 수 있을 뿐.
눈이 내렸다.
눈은 도처에서 촐뜨고 있는
감기지 않는 눈들을 감겨 주았다.
지상의 눈들
죽어도 죽을 수 없었던 눈들
감아도 감을 수 없었던 눈들을.
그것들을 두고 내 걸어가리.
하얀 길을 밟고 내 걸어가리.
눈에 덮혀 아득한 집들이 사라지는
마을 언덕을 넘어
불귀(不歸)의 지평선을 걸어가리.

사람들이 찾아왔다.
사람들이 집을 설계하러 왔다.
우리는 나란히 숲 속으로 들어갔다.
향기로운 나무를 베고 꽃을 따고
새소리 들리는 곳에 터를 잡았다.
나는 말했다. “집을 짓는 일은
지붕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벽을 만드는 일은 더욱 아닙니다.”
“그려면 무엇을 만드는 일입니까?”
“집을 짓는 일은
문을 만드는 일입니다.”
“벽도 없는 집에
어디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당신 자신으로 들어가는 문이지요.”
“그리로 들어가면 진짜 나를 만나나요?”

“아닙니다. 진짜 나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자아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있나요?”
“차츰 더 깊어지는 당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침내 당신은
자신의 시라짐을 보게 되겠지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찾아왔다. 문을 만들려고.
우리들은 숲길을 걸었다.
길은 끝임없이 이어지는 문이었다.

- 이상〈집〉전문

빈터를 보면 나의 가슴은 뛰었다. 빈터는 나의 무지개였으며 나는 집을 짓는 시인이었다. 나는 집을 지었다. 그리고 집을 생각했다. 집은 기만히 있지를 않았다. 집은 마구 뛰어 다녔다. 그것은 백만의 얼굴을 가진 강아지 같았다. 집은 나에게 끝임없이 의문을 던져왔고 말을 걸어 왔다. 나는 집과 함께 퉁굴었다. 하룻밤에도 몇 번씩 집은 부서졌다가 또 다시 세워졌다.

집은 하나의 자아이다. 정체성의 공간이다. 인간의 성숙은 자아의 구축에서 시작되고 인간의 생활은 집을 가짐으로 시작된다. 자아가 공격적인 환경에서 개체의 생존을 보존하는 방어 메커니즘이듯이 집도 위험한 세상에서 개인의 삶을 보존하는 방어 메커니즘으로 시작되었다. 자아는 확대되어 가족이 되고 집단이 되고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된다. 집은 확대되어 동네가 되고 마을이 되고 도시가 되고 세계가 된다. 병든 자아는 폐쇄적 방어 메커니즘에 집착하고 건강한 자아는 개방적 성장 메커니즘으로 발전한다. 부정적 자아는 배타적 경향을 띠고 희망적 자아는 포용적 경향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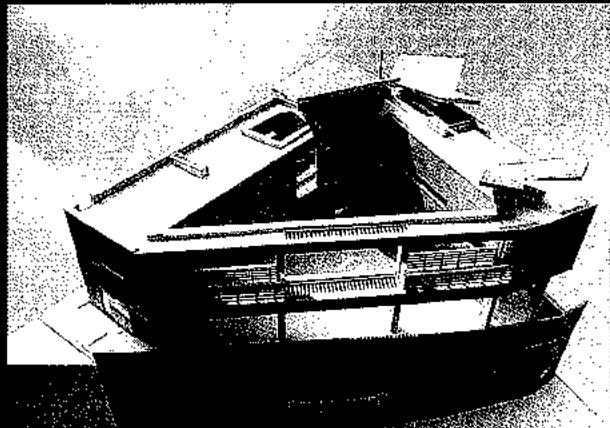
자아의 껍질은 부단히 깨어져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알이 깨어져야만 더 큰 알의 껍질이 만들 어지는 성장 메커니즘이 지속된다. 악은 이 자아가 성장을 멈추고 응축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각질화(角質化)된 자아가 악의 근원인 것이다. 인간의 무지, 탐욕, 공격성, 시기심, 분노와 폭력성은 자아, 즉 에고(ego)에 근거하고 있다.

집은 어떠한가? 그것이 완고한 에고의 형상에 불과하다면 차라리 혈오스러운 것이며 결국 사라져야 할 어떤 것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승화를 지향하는 어떤 것이라면 그것은 유기체의 아름다운 한 과정이며 한 시절, 사랑이 있었던 자리의 추억이 될 것이다. ■

김효만 /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Designed by Kim Hyo-Man

건축개요

위치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76-27
지역지구	도시지역, 전용주거지역
주요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450m ²
건축면적	197.45m ²
연면적	364.46m ²
건폐율	43.88%
용적률	59.45%
규모	지하2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내부마감	바닥 - 온돌용 목재후로링 벽 - 노출콘크리트, 벽지 천장 - 미송판/무광릭카, 한지
외부마감	지붕 - 삼록/오일스테인, 라인징크판 벽 - 노출콘크리트
설계담당	한지원
구조설계	전광민
조명	LITEWORK
조경	건축주
시공사	(주)예간종합건설
진	건축사 제공



자연속 삶과 전통적 공간구성의 실현

「속세의 武陵桃源」

나비들이 노니는 화창한 한가로움… 그리고 물흐르는 소리…

기계 문명에 짜든 현대를 사는 도시인들은 이제 자연으로 도피해 그 속에 파묻힌 삶을 꿈꾸고 있다.

대지 내부에는 꽃이 피고, 나비가 날며 남으고, 설개천으로 물이 흐르는 「나만의 자연」을 만들며, 주변의 자연과 도시의 「풍경」을 대지내로 끌어들인 「도시 속 자연의 삶」에 대한 표현이 이 주택에서 실현하고자 한 것들이며, 그 공간적 실현으로서, 높은 공간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 현재성 있는 한국의 전통적 공간들의 드라마적 구성을 재현해보려 했으며, 공간의 관통, 관입, 회화적 후레임, 긴장감 있는 공간의 단속적 순환 등 「한국성」에 근거한 여러 유형의 공간구성 방식들을 경사지인 이 대지에서, 전개해 보려 했던 프로젝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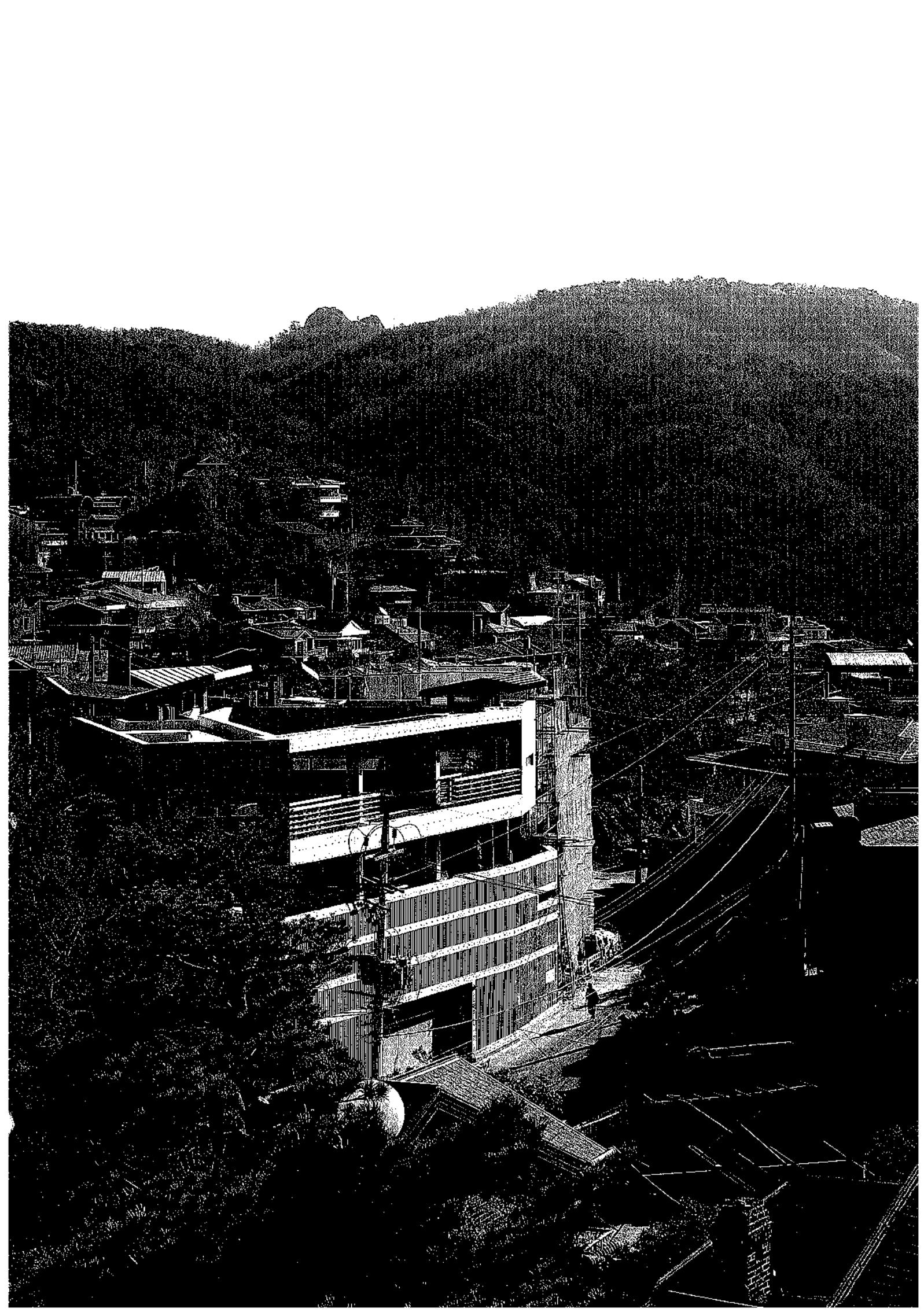
안마당과 실내부와 류마부와의 내외부 공간구성 관계, 차고에서 지하마당으로 올라, 대문앞 진입마당, 그리고 현관으로 오르는 과정 공간들은 한국의 전통 외부공간의 드라마 구성적 성격을 기억하며, 그것들의 협대적 실현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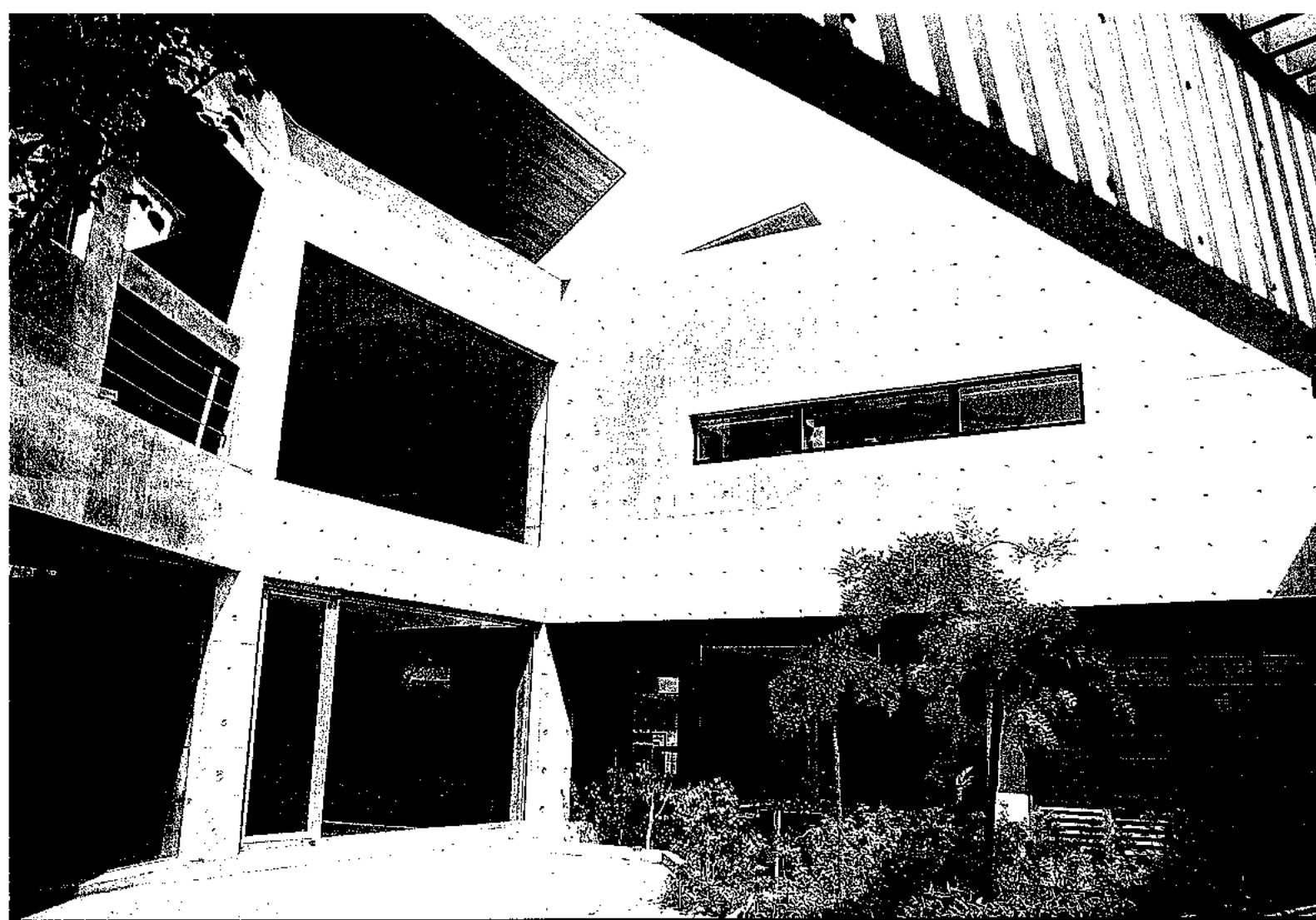
극심한 부정형의 대지와 주변조건

대지는 두면의 도로에 접해져 있으며, 두 개층 정도의 고저차가 있고, 후면과 측면에는 기끼이 산을 끼고 있어, 자연으로서, 전망으로서의 산을 소유하면서, 남측인 전면은 시야가 훤히 트여, 서울 시가지의 도시적 풍경이 펼쳐지는, 좋은 전망과 좋은 향이 일치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다만, 대지의 형태는 지극히 불규칙한 삼각형배를 취하고 있었으나, 이것은 후에 모아려 이 주택의 성격이 되었다.

건축주

파선디자이너이며 사업기인 건축주 부부는 주택의 내외부 모두를 노출콘크리트로 하기를 처음부터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평범치 않은 선택에 대한 그들의 비전문가로서의 전문적 감각은 내심 나를 놀라게 했고, 이것은 공사진과정을 통해서도 보여졌다는데, PANEL형 벽난로, 과감한 웬지컬러의 도입, 지하마당과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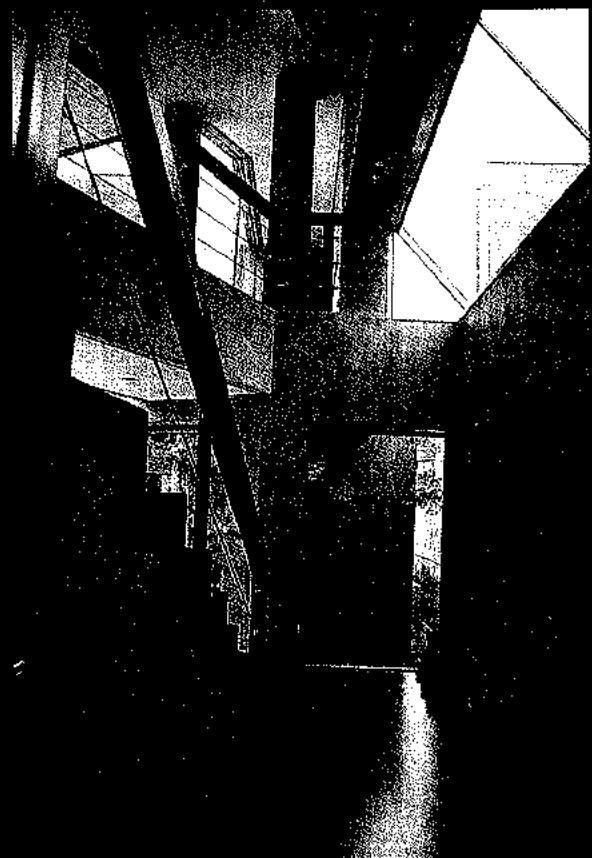
안마당을 연결하는 떠있는 외부계단, 흰비의 노출콘크리트 바닥, 일부 조명 계획 등은 모두 그들의 작품이며 항상 사치스럽지 않은 재료 및 방식을 취하면서, 자신들의 암목으로서의 감각을 추구하는 세련됨을 유지했음이 인상적이었다.

삼각형 콘크리트 RING의 띄움

늘 그렇듯이, 이러한 대지조건과 건축주의 요구조건은 계획의 많은 부분을 결정해 주었으며, 결국 디자인을 담은 「속이 빈 삼각형태의 콘크리트 RING」을 높은 콘크리트 축대위에 띄우는 것으로 결론 내어졌다. 이것은 「파노라마한 전망의 유입」, 「포근한 마당의 구성」, 「PRIVACY의 확보」라는 계획의 목표 요소들이 만들어낸 형태인 것이다.

루마루와 안마당의 공간감, 풍경의 틀, 그리고 조형적 맥락

삼각형 대지의 삼변 중 입점대지와 접한 두변은 각각 MASS로 채워져 있다. 즉, 거실을 중심으로 하여, 1층의 식당, 정자, 2층의 주인침실과 자녀 방이 각종의 양측 WING이 되어, 안점주택과의 시선 교류를 차단함으로서 PRIVACY를 확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전면 도로측의 좁은 전망이 있는 남쪽의 나머지 변은 2층에서 각 양쪽 침실의 루마루로 활동하게 함으로서, 삼각 RING이 완결되었으며, 이 마지막 부마루측 변의 한 「鑿」 그음은 이 집을 공간적, 조형적으로 그 성격을 완성시켜주는 결정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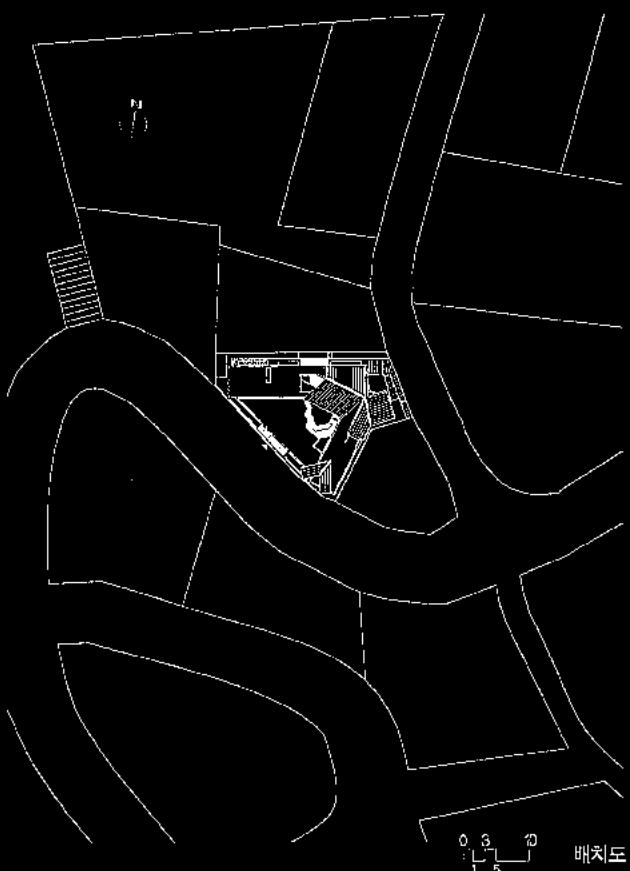
「壘」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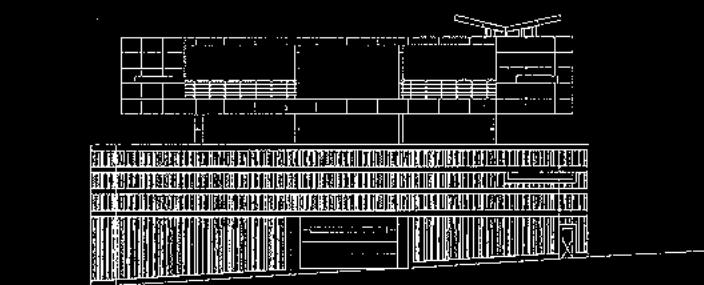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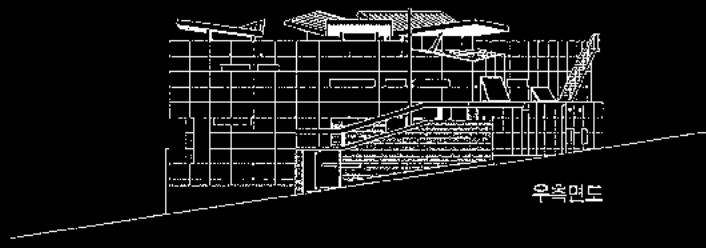
그것은 나부 안마당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어, 안마당의 공간감을 성격화시키고 있고, 동시에 농경을 드는 희희적 들로서 작용하여, 외부의 자연을 나만의 그림으로 번역하여 연출함으로서, 그 속의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와 고귀함을 맛보게 할 것이며, 외부를 내부로 끌어들이는 내부의 숨통이 될 것이다. 또한, 조형적으로는 전면 도로축의 주변과 적응하는邊이 되어, 구성된 이 삼각 RING은 스스로 강한 氣를 발하며, 주변의 산세와 고저 등에 순응하면서 주변언과 힘의 균형을 이루길 바라는 것이다.

지붕날개와 풍경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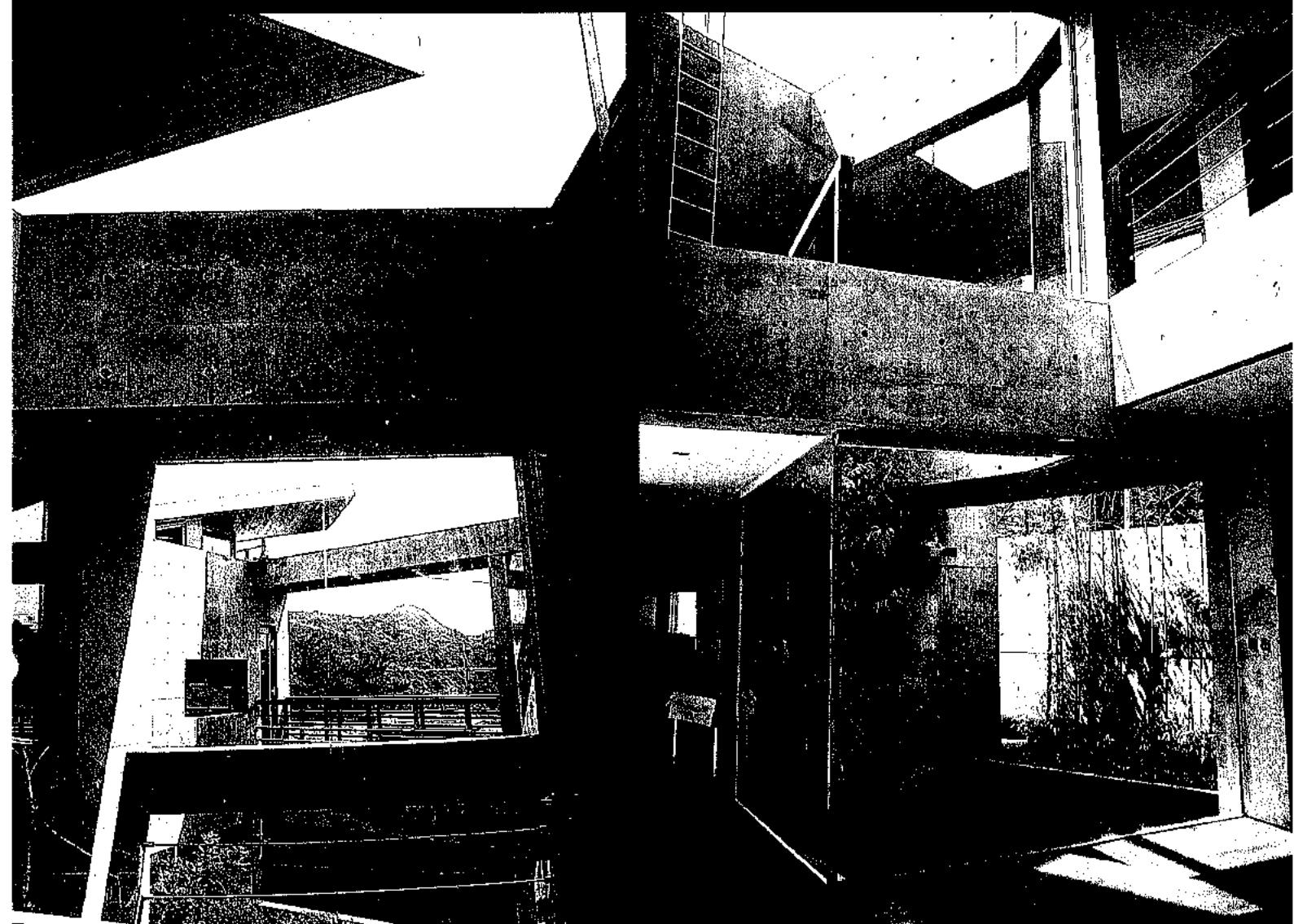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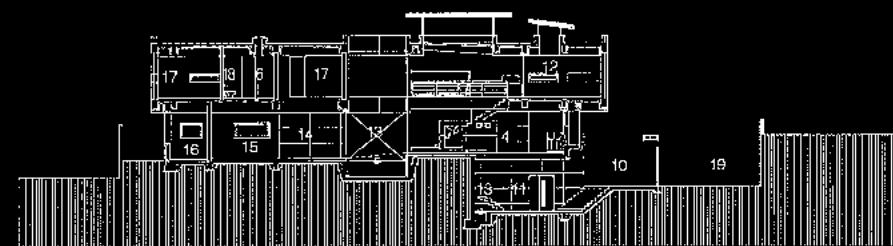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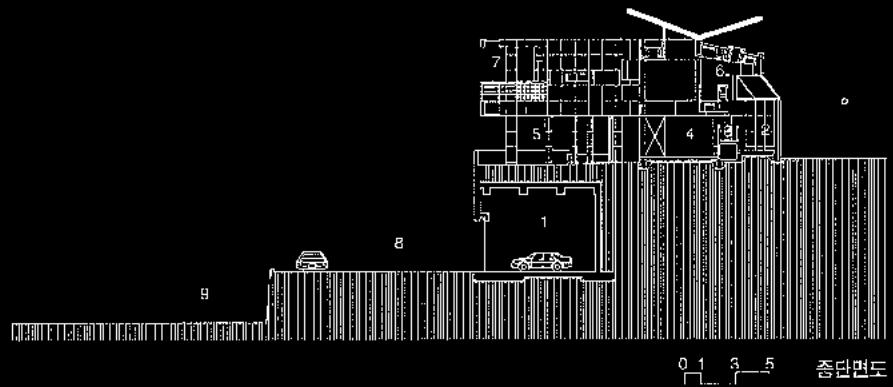
부마부의 콘크리트 후레임을 통한 원경의 유입과 함께 후면, 측면의 가까운 자연 풍경을 실내로 조망하려는 노력은, 지붕이 있는 고속창을 만들게 했다. 이 나비모양의 고속창은 실내에서 주변의 자연 경관을 회화적으로 담아내어 단속적으로 그것을 연출하는 장치가 되고 있으며, 동시에 이 주택의 외관을 구성하는 강한 조형적 요소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거실, 식당 사이에 큰 연못에는 고기가 놀고, 그 물은 심기천으로 내려 아랫마당으로, 스스로 그라하게 흐르며, 그위에 떠있는 삼각 RING의 콘크리트 바위 위에 상서로운 나비들이 앉아, 한가로이 날개짓하며 쉬고있는 화창한 모습. 그것이 현대 도시인들이 그리고 있는 그들만의 보금자리 모습일까?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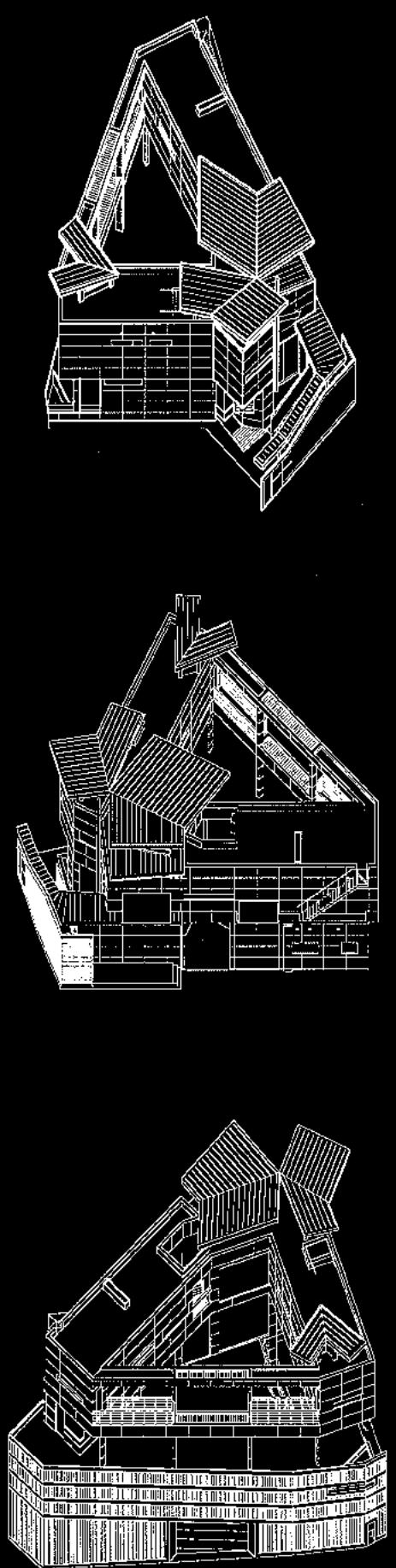




1. 차고
2. 흙
3. 계단
4. 거실
5. 빙마당
6. 복도
7. 우마부
8. 12M 주로
9. 공원
10. 진입거담
11. 지하화단
12. 가족실
13. 인동
14. 씨당
15. 주방
16. 다용도실
17. 천신
18. 욕실
19. 6M 三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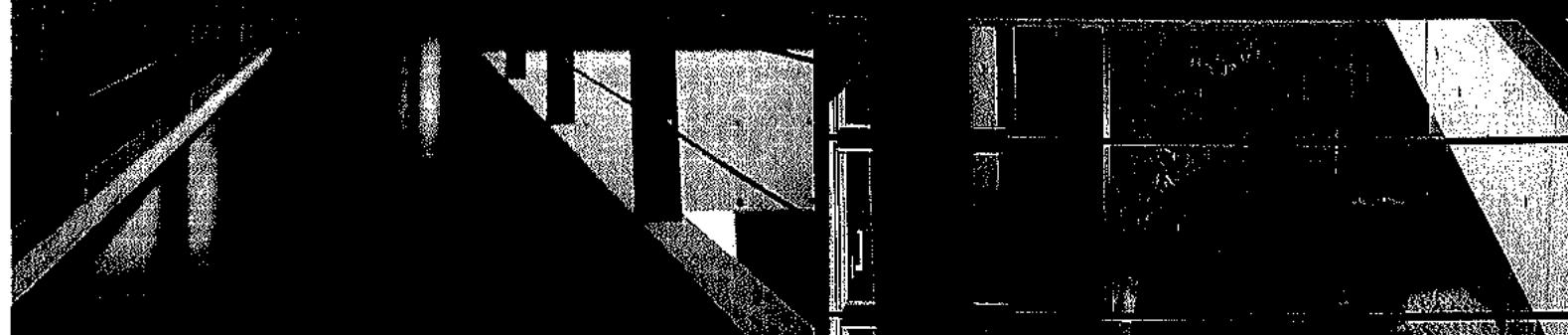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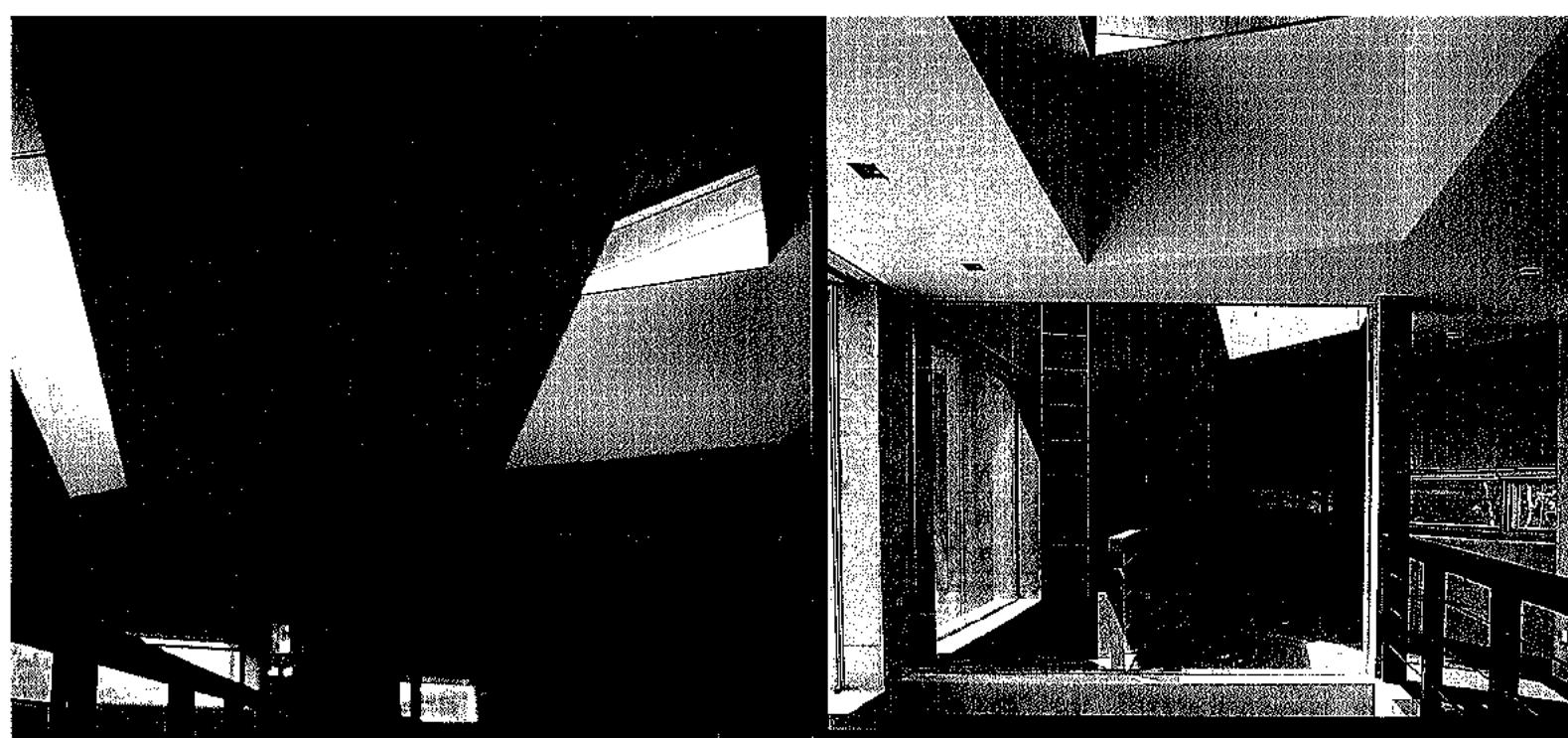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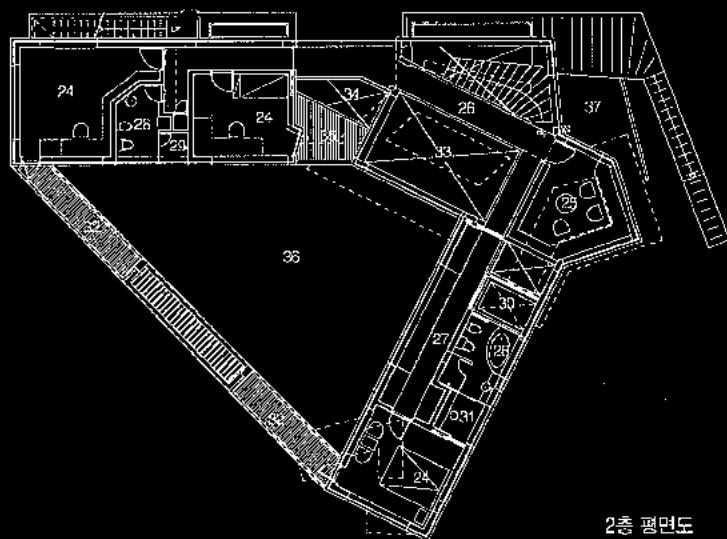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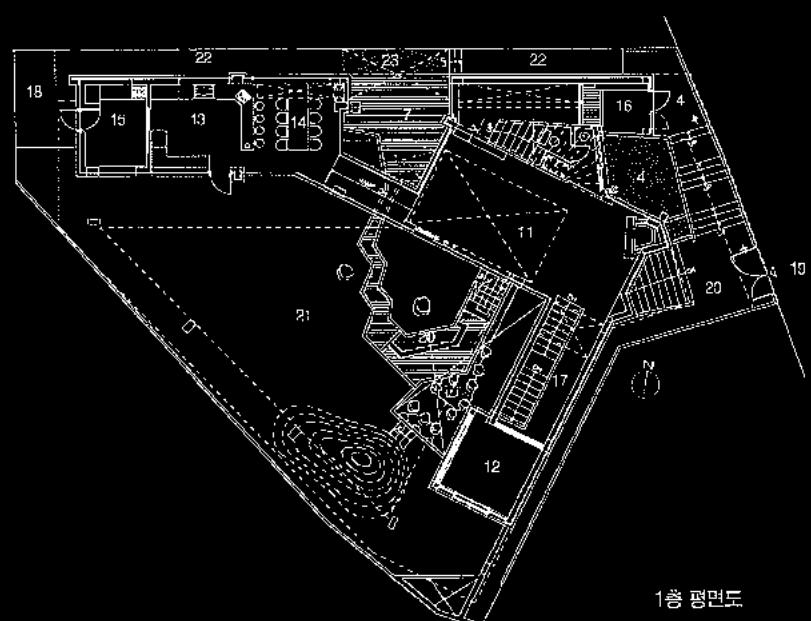
엑소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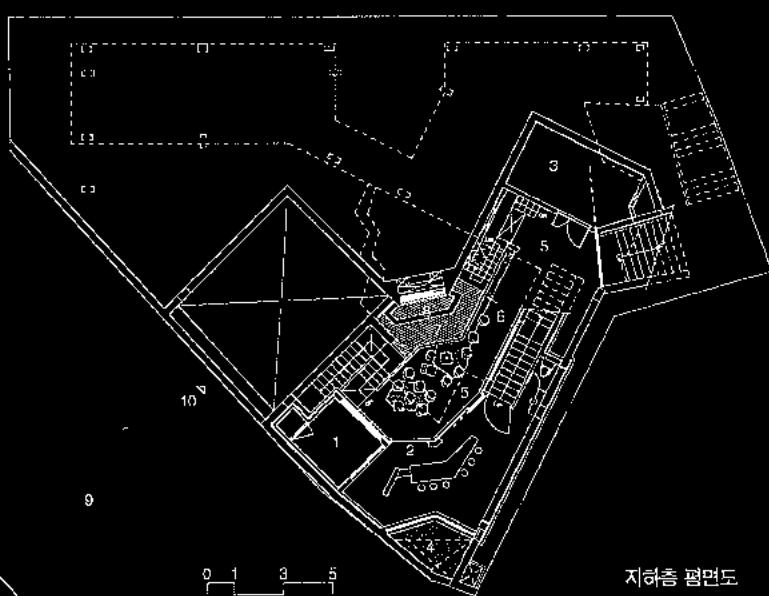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 1. 손님방
- 2. 춤바
- 3. 빙디마
- 4. 꽃마당
- 5. 지하바탕
- 6. 화단
- 7. 연못
- 8. 폭포
- 9. 12M. 조로
- 10. 치고마루
- 11. 거간
- 12. 절자
- 13. 주된
- 14. 석단
- 15. 나옹도색
- 16. 현관
- 17. 복도
- 18. 장녹대
- 19. 대복
- 20. 진원바탕
- 21. 민이방
- 22. 서비스바탕
- 23. 흡미당
- 24. 총수
- 25. 가죽술
- 26. 브리자
- 27. 드레스룸
- 28. 옥술
- 29. 사무
- 30. 음습
- 31. 광우더품
- 32. 꿈마루
- 33. 거실 침부
- 34. 양꽃상부
- 35. 마루마단
- 36. 안마단 산부
- 37. 꽃마당 산부

그의 건축은 향기가 있고 빛이 있다 *Hoyoojae, House with Fragrant Lights*

박민철 / 간향건축 소장
by Park Min-Cheol

편안히 앉은 소파위 나의 시선에는 소박한
마당이 보이고 연못의 물소리는 잔잔히 울려온다.

이것은 강한 건축의 채움과 비율을 만드는
건축가 김효만의 건축작법에서 보기 힘든 역설적인 고요함
이다.

평창동 가파른 언덕을 오르다 보면 이곳 저
곳 주택들이 열악한 경사를 이용해 다양한 조형을 가진 모
습이 오히려 재미있기까지 하다. 건축가라면 오히려 이런
조건들이 자기 건축을 드러내기 좋기에 관심이 많은 곳이
기도 하다.

호유재도 어느 지형보다 가파른 옹벽을 가
진 대지에 자리하고 있다. 마치 철옹성같은 콘크리트 직벽
이 주택의 후레임과 연결되어 하나의 주택 파사드로서는



거대해 보이기도 하고, 가뜩이나 조형적 선이 금은 건축가
로 알려진 이미지로 보아서도 너무 작설적이고 무겁게 느
껴진다. 단순히 마당을 들어올린 기단의 느낌을 주는 것이
라기 보다는 드리냄이 부담스럽다. 그러나 대문이 있는 작
은 골목에 들어서면 그 첫 이미지는 정겨운 스케일로 변하
고 만다.

벌써 초입부터 범상하지 않은 이 주택 작품
을 비평하기에 앞서 우선 주택이라는 대상에 대한 비평이
두 가지의 어려움을 가진다. 첫째는 건축가의 의도보다 주
택은 사는 이의 의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둘째는
사는 이의 의도보다 삶이라는 근본적 원류가 존재한다는 것
이다. 말하자면 건축가가 그려내는 삶의 그릇은 어찌하여
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과 새로운 것을 아무리 구체적으





로 제시해도 그것은 오랜 생활 습관에 익숙한 사는 사람의 삶이 더 우선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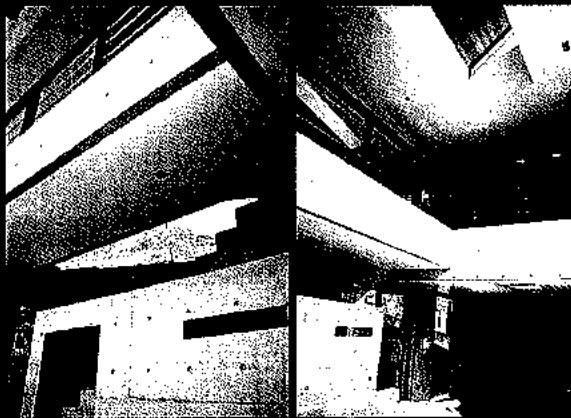
그래서 비평적 관점에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는 평가와 해석은 무의미한 것이다. 오히려 건축가의 태도와 그가 추구한 건축의 실상이 우리에게 어떤 감흥을 주는가가 사실 더욱 관심거리가 될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건축가 김효만의 지속적인 주택작품의 특이 성과 일관성을 보면서도 더욱 중요한 의미는 한국 건축 기성세대의 든든한 건축근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비평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호유재는 세가지의 향기를 느낀다. 하나는 김효만의 집묘한 마당을 주제로한 바라봄과 끊임, 그로 인해서 형성되는 공간의 구성이고, 둘째는 건축주의 남다른

애정이 만든 건축의 애틋한 짜임새이며, 셋째는 시공자의 콘크리트 건축기법의 암목과 질이 향기로 다가온다. 한마디로 건축주가 심지가 되었고, 김효만은 색깔 있는 초가 되었다면, 시공자는 유리 그릇이 된 셈이다. 이렇게 하나의 모습으로 향기를 가진 호유재는 그 깊이를 가진 주택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건축가 김효만의 주택 작품은 도시속에서 숨쉬는 인간의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마당을 그 핵심요소로 집요하게 고집한다. 공간의 구심점이 거실이나 안방이 되기보다는 외부공간의 마당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호유재 뿐만 아니라 임거당과 상선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그의 건축적 첫 퀘임은 바로 마당이 그 구심적 공간의 축이 됨이 분명하다. 그런데 호유재의





마당은 임거당의 마당과는 다르다. 위에서 바라보는 마당이 아닌 거실에서 연속된 수평적 마당이다. 그래서인지 호유재의 마당은 본연의 마당 느낌이 더욱 살아있고, 더욱 안간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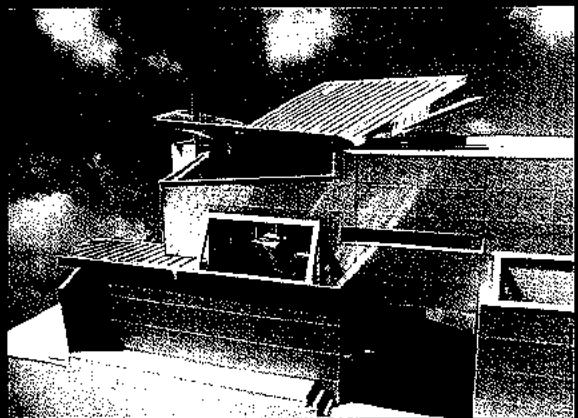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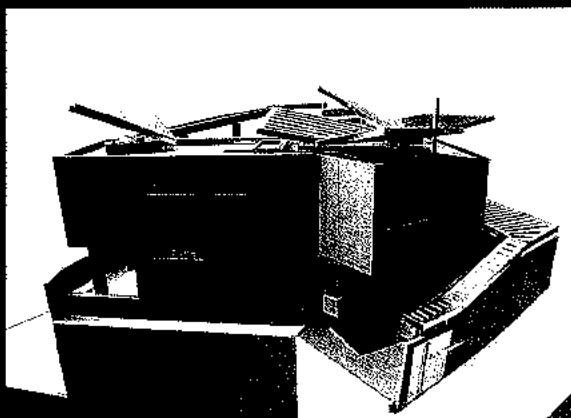
오히려 김효만은 마당이 이루어내는 하늘의 열림에 관심이 더욱 많은 듯 하다. 그것이 그가 추구하는 관통, 끊임이 주는 열림의 풍경, 즉 자유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그의 자유는 분명 우리의 도시적 생활에서 달혀진 일상에서 탈피하려는 갈구의 의미를 은유하고 있는 듯 하다. 어떤 측면에서 이러한 건축해법은 지금히 극단적이다. 왜냐하면 강한 콘크리트 후레임으로 닫아놓고, 다시 하늘을 열어줌으로써 생기는 자유라면 진정한 자유라기보다는 작위적이라는 것이다.

사실 호유재의 낮은 주차장 입구에서 들어가 계단을 오르면 펼쳐지는 작은 정원, 그리고 정자, 현관

의 공간구성이 오히려 전통적인 인간적 자유를 느끼게 하는 요소일 수 있다. 하여간 마당을 중심으로 건축물이 부유하고 위를 향하는 비상하는 건축이라는 표현은 그 육중한 콘크리트 물성과 굵은 건축선들 속에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

특히 지붕위에 얹은 나비의 날개는 날개라기 보다 덮개로 느껴진다.

또한 호유재에서 특이한 공간구성은 에워싼 쌈이다. 남쪽의 탁트인 전망과 빛을 김효만은 길게 뻗은 발코니를 마치 연결 브릿지처럼 후레임으로 짜서 그만의 특이한 한 몸뚱아리를 고집하고 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빛과 도시의 빛을 구별하고자 함이고, 다이나믹한 발코니의 풍광을 의도한 것이라면 주택에서는 과간한 시도임에 틀림없다. 이 에워싸임은 삼각형 대지에서 외부공간의 마당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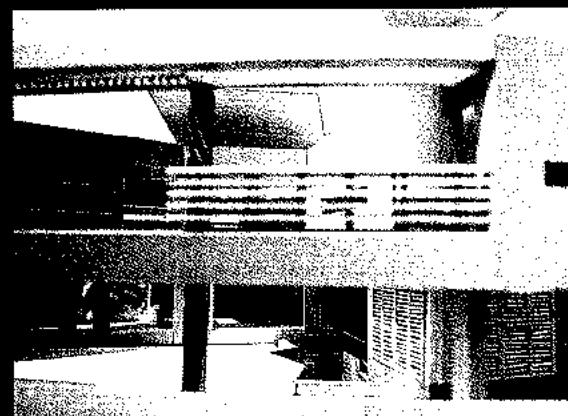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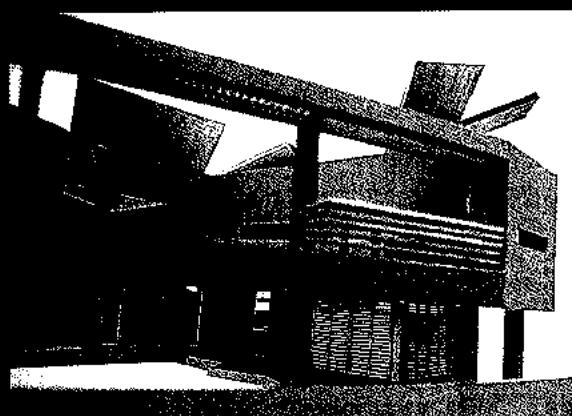
형성하고 입체적인 매스가 이루어지길 하였지만 내부공간에서는 너무 과다한 빛과 창의 노출이 불가피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특히 거실에서의 거대한 창은 묘목조목한 그동안의 전통적이라는 공간의 구성과 맛이 갑자기 사라지게되고 말았다. 과다한 열림 때문에 말하자면 밖도 열리고 안도 열려버린 셈이다.

하여간 열림과 뚫림이라는 전통과 현대적 의미는 어떤 시각으로 연출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이 주택에서 훈제되어 쓰이고 있음이 한쪽의 의미를 반감 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공간마다 천정에 뚫린 작은 창을 통해 빛이 간접적으로 인입되도록 배려한다는 것은 건축가 김효만의 빛에 대한 정직인 정서가 뚜렷이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땅을 자연으로 보고 건축을 채움과 비움으로 하여 도시속에서 회화적 풍광과 삶의 활력소로 전환하려는 건축가 김효만의 건축세계는 담당히 입체적이면서 한국건축속의 숨겨진 한국성을 찾는 실마리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건축에는 향기가 있고 빛이 있다. 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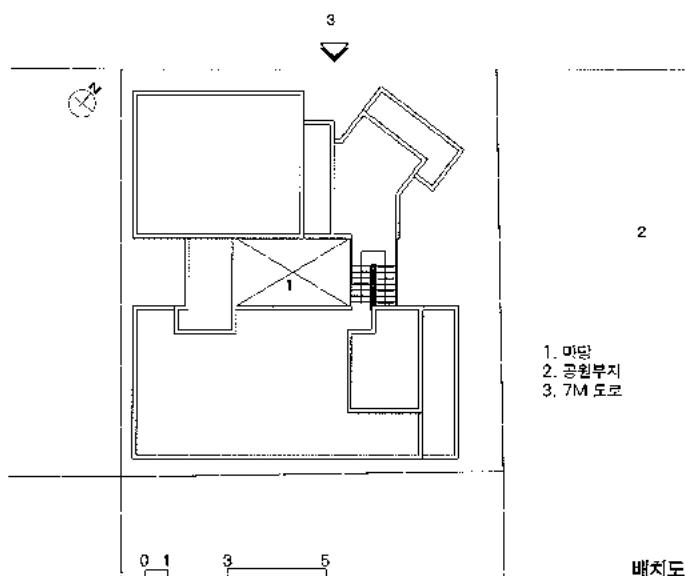
풍덕다가(豐德多家)

Pungdeok Multi-Family Housing

최동호 / 예전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Dong-Ho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69-93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대지면적	388.00m ²
건축면적	209.61m ²
연 면 적	658.53m ²
건 폐 율	54.02%
용 적 률	144.67%
최고높이	12.93m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T=16복층유리
설계참여	박상수, 나동진
구 조	구조기술사 최근철
설비설계	(주)수양ENG기술사사무소
전기설계	(주)수양ENG기술사사무소
시 공	화동종합건설(주)
감 리	예전건축사사무소
건축 주	정순옥
설계기간	2000년8월~10월
공사기간	2000년10월20일~2001년4월30일
사 진	건축사 제공(촬영 : 윤창진)



이집은

바깥마당에서부터 시작된다.

바깥마당은 단순히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불러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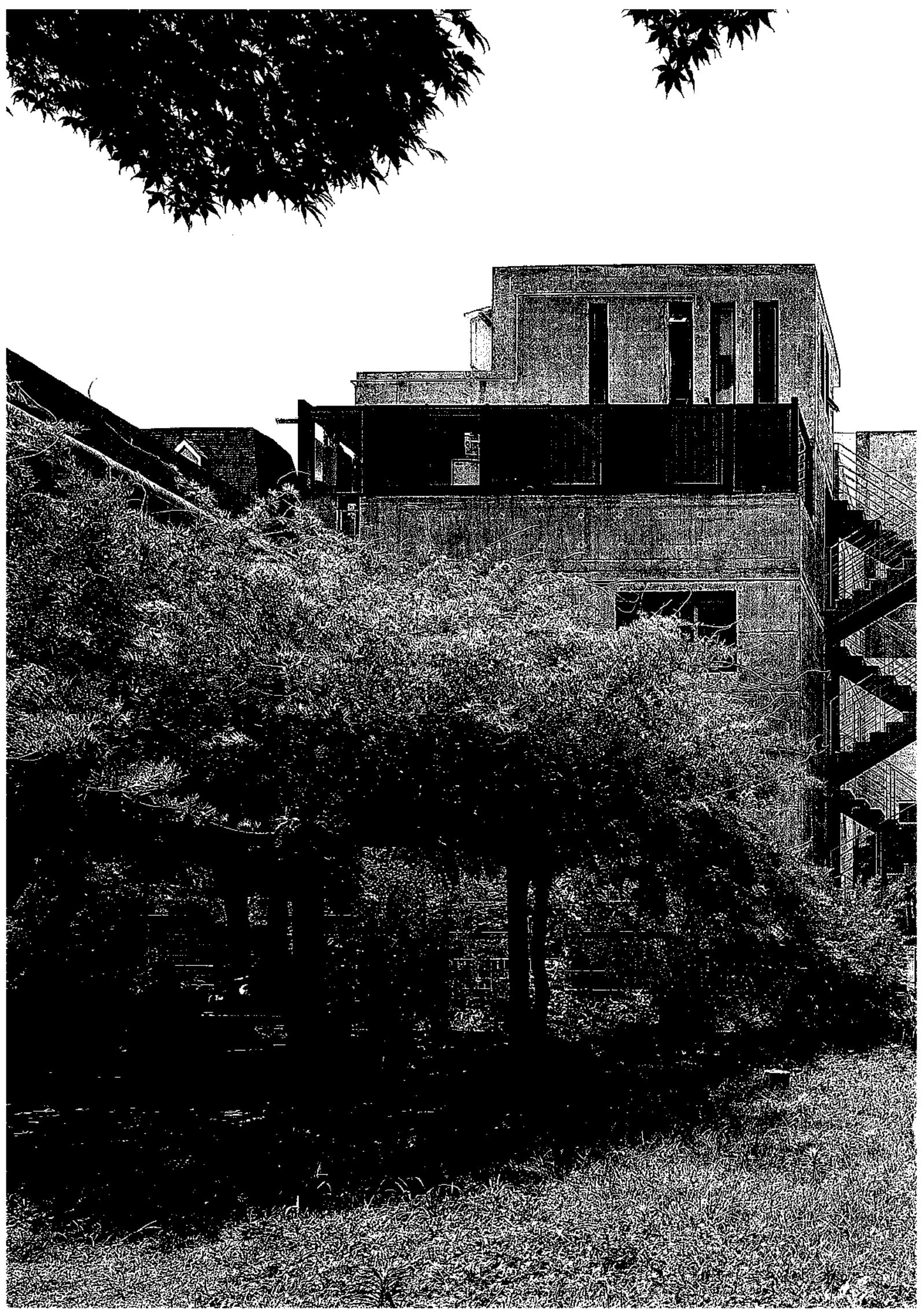
그리고 마당은 소리가 된다.

바깥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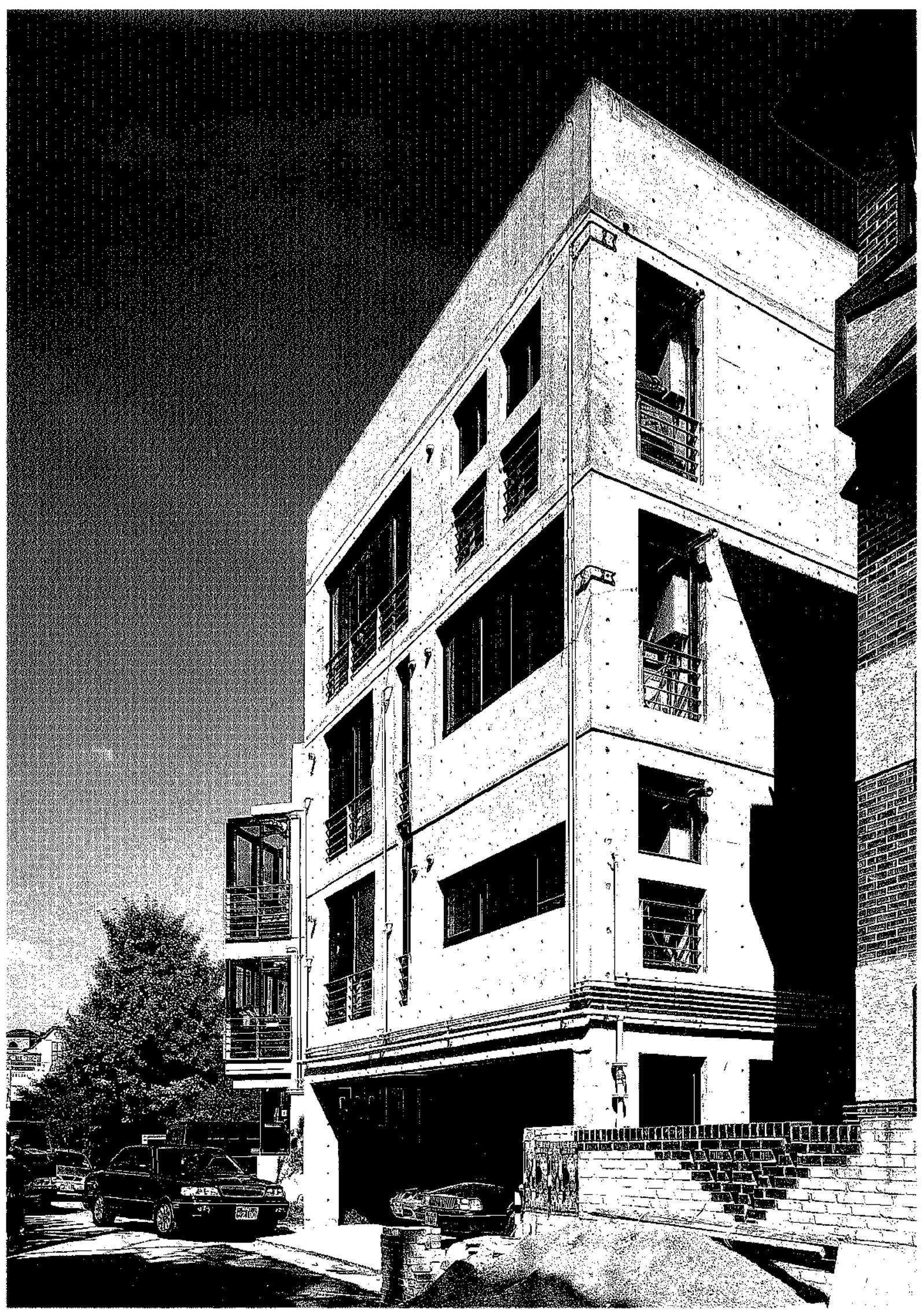
그 기습설계에 하는 느티나무가 있는 동네어귀의 바깥마당은 전통 건축에서 보면 우리의 추억이자 생활자체였다. 마당이 현대건축에서도 응용해야 하는 아주 귀한 외부공간인 것은 분명하다. 느티나무는 그 동네를 인지하게 하는 정체성(Identity)으로서 상징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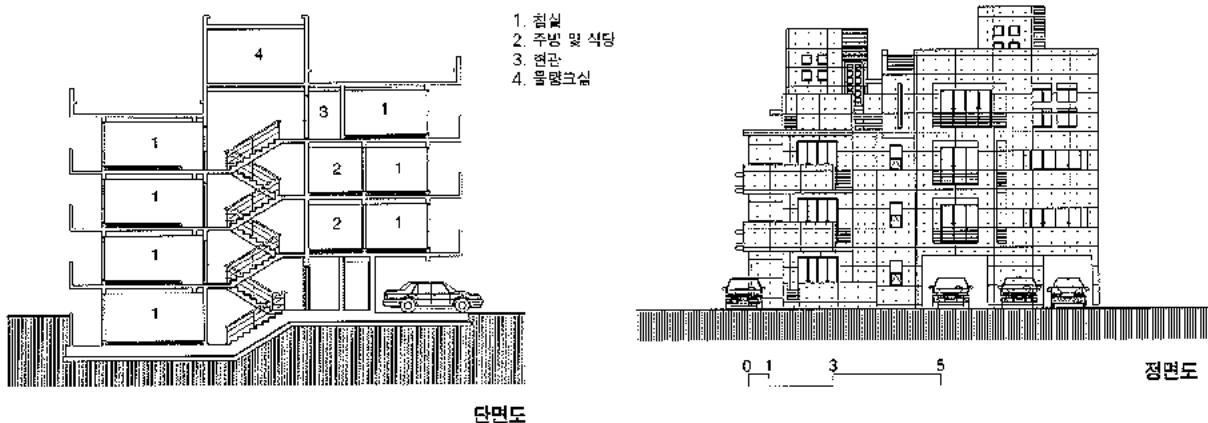
가지며 누구나 쉽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만든 한국전통건축의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한 느티나무는 이제 사골에서나 찾을 수가 있고 도시에서는 좀처럼 볼 수가 없다. 다행스럽게도 이 동네에서 본 계획된 대지의 바로 옆에는, 공원부지라는 옛날의 느티나무만큼이나 소중한 바깥마당이 자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집은 바로 옆에 소공원이 있다는 것으로서 그 설계 개념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곳은 우선 소리가 들린다. 바람소리와 비소리가 존재한다. 그냥 있는 것으로서 만족한다. 이 소리는 다시 이 집의 안마당으로 와서 마당소리로 변한다. 이 소중한 바깥마당 때문에 이 집은 전정한 마당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비람소리

비람소리가 들린다. 그것도 비소리와 함께. 비람이 소리가 되는 것은 비람부는 것과는 다르다. 단순한 비람이 아니라 이 집의 마당으로까지 와서 비람이 비람소리를 몰고오는 소리가 되어야 한다.

마당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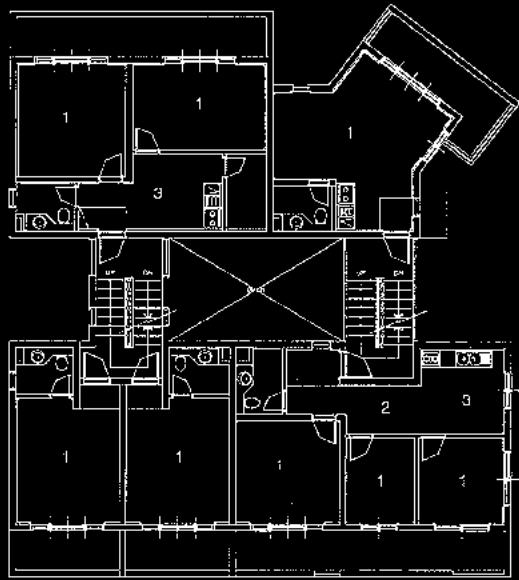
마당은 비어있는 공간이다. 그 실존은 현실적인 구체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비어있음에 정신적인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 집의 좋은 안 마당에서 공원을 보면 그것은 전통건축에서 사랑채 앞에 사랑마당을 가짐과 비슷하다. 마당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이러한 마당의 여유로

움은 그 속의 소나무와 함께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되었으면 한다. 마당 소리라고 할은 구상과 추상이 만나는 곳이다. 이것이 건축의 이념 (Idea)이 된다.

마당비람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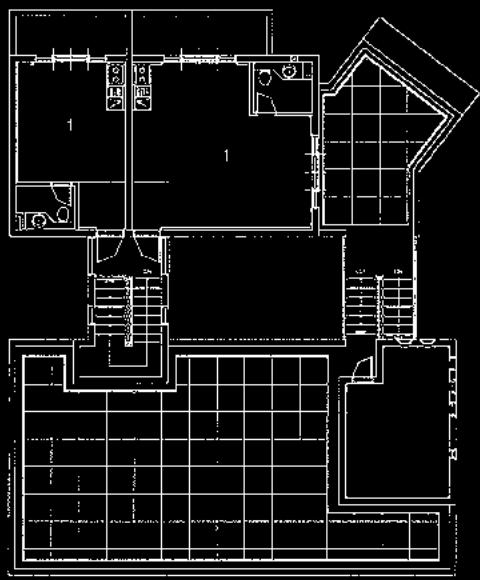
소리는 생명이다. 추상화된 개념이다. 건축이 담아내야 하는 본질적인 공간은 소리를 담은 그 공간이다. 그것이 마당이 담고있는 마당의 비람 소리이다. 마당에 비람소리를 갈무리 해야하는 이유는 비어있는 공간이 점점 없어지는 지금의 건축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인 최고의 추상이 아니겠는가?(글/최동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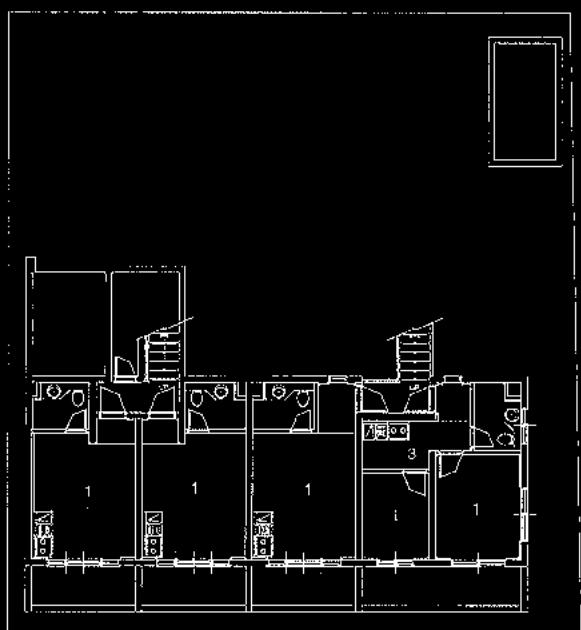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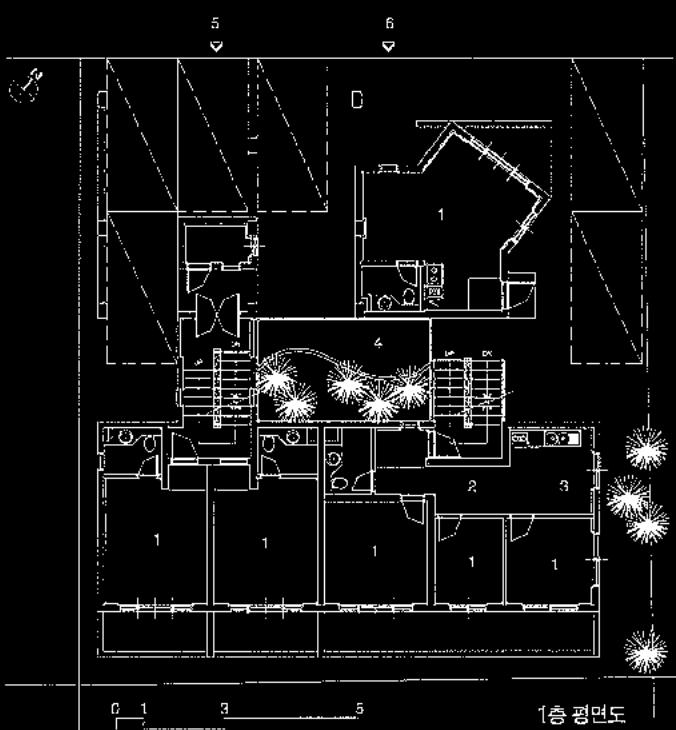
1. 창실
2. 거실
3. 주방 및 식당
4. 계단
5. 주차장 출입구
6. 보행자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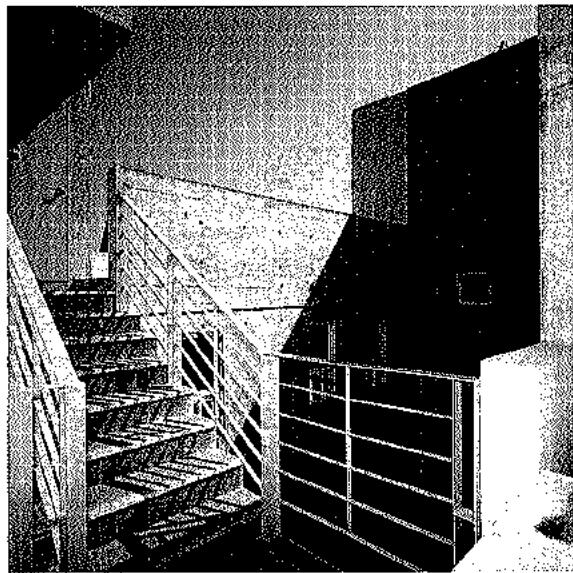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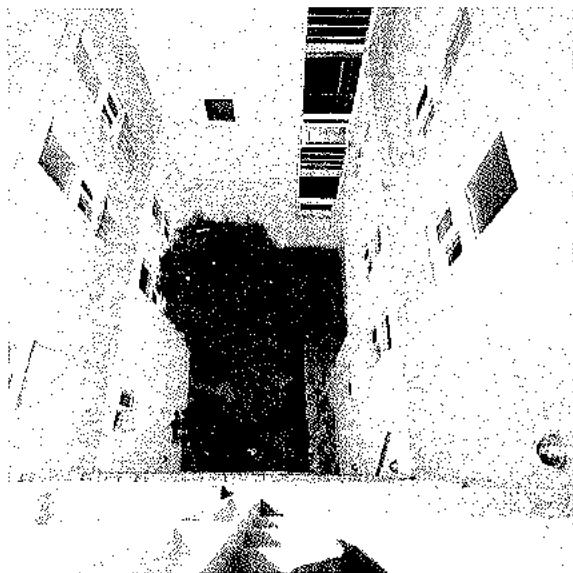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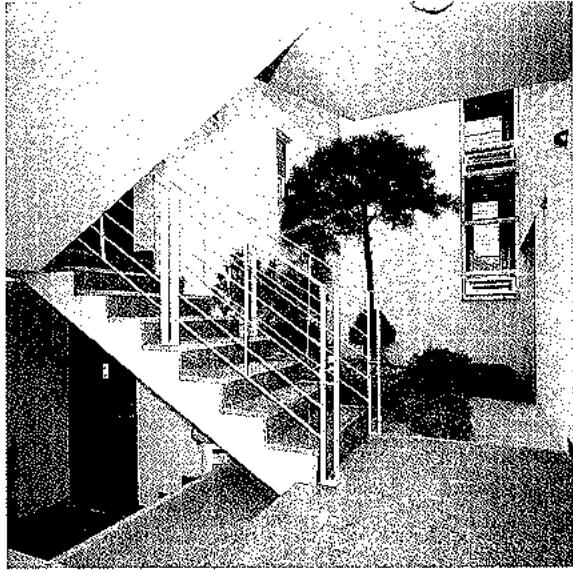
4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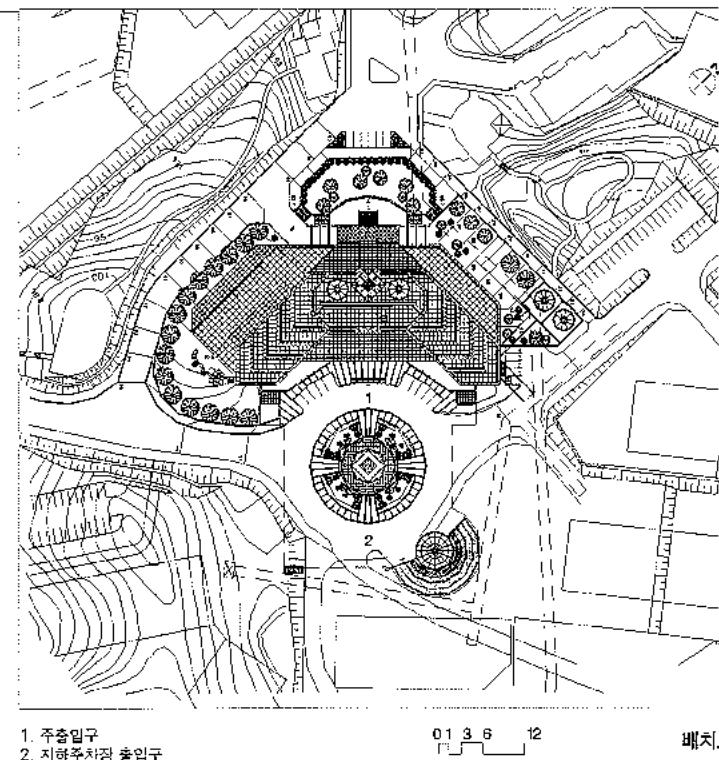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공동지원시설

Research Park Supporting Facilit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김진균 / 서울대학교+신동재 / (주)다율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Jin-Kyun & Sheen Dong-J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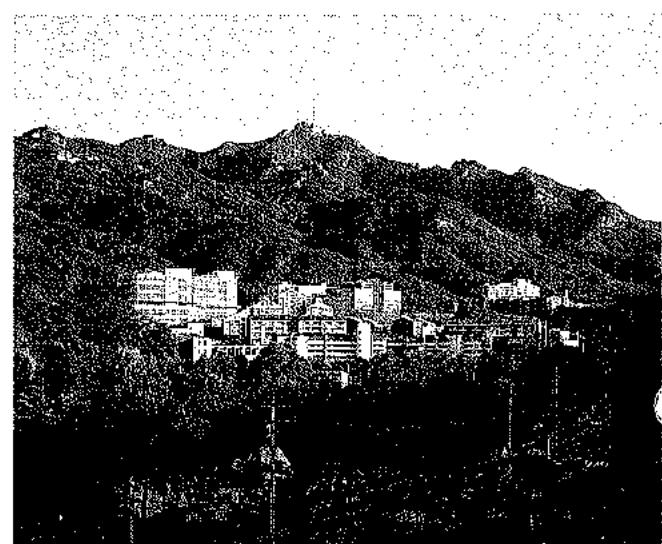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4-2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학교시설용지)
건축면적	3,435.88m ² (1,012.13평)
연 면 적	18,936.66m ² (5,728.34평)
총 수	지하2층, 지상5층
구 조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185대(지하1층 96대, 지하2층 70대, 옥외 19대)
외장재료	GLASS CURTAIN WALL(24mm 저반사복층유리) +화강석
승 강 기	승용 17인승 2대, 화물용 1.5TON 1대
시 공 자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사 진	건축사 제공(촬영 : 박완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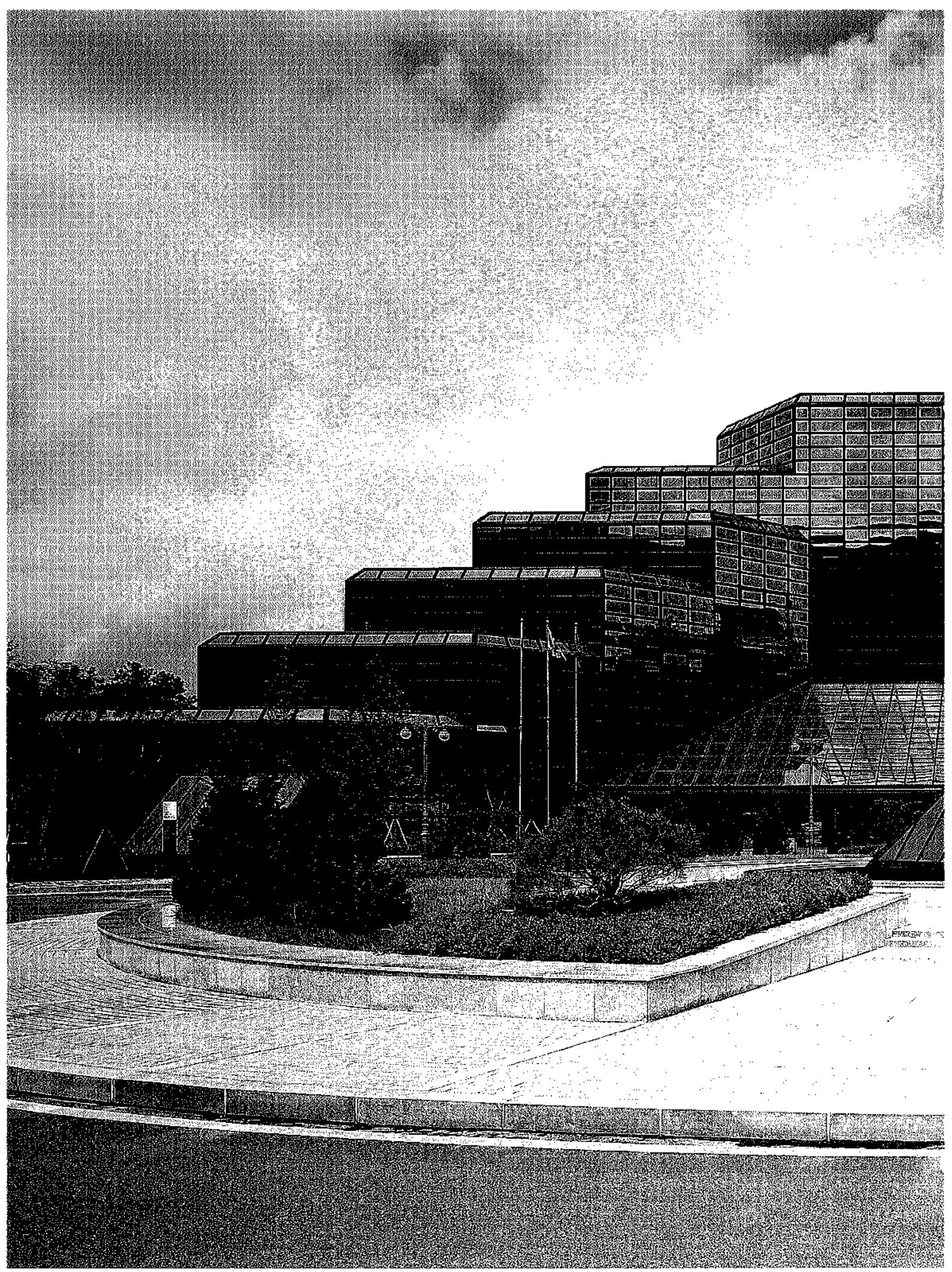


이 건물은 서울대학교 낙성대 후문 부근의 연구공원(Research Park)대지 진입부에 위치하여, 연구공원의 각 연구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계획되었다. 지상5층 지하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층은 창업용 연구실험을 위한 공간인 인큐베이터(Incubator)가 위치하고 지하층은 수영장·헬스·에어로빅 등의 체력단련시설과 수퍼마켓·스낵 등의 편의 시설, 그리고 주차장과 단지 전체에 열원을 공급하는 기계·전기실이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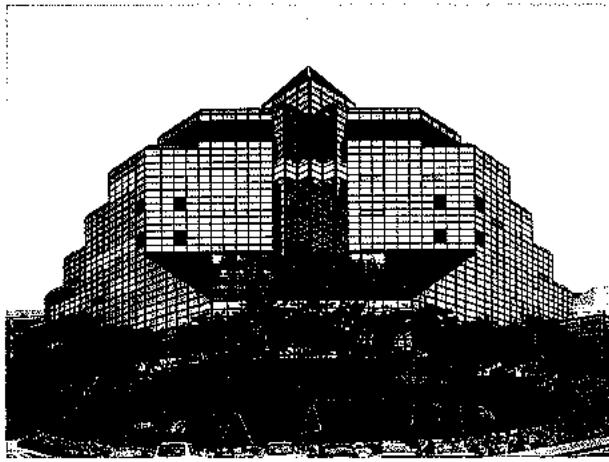
외부에는 연구공원의 중심이 되는 중앙광장을 계획하고 이를 둘러싸는 형태로 건물을 설계하여 대지에 장소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며, 관악산봉우리의 이미지와 산세에 적응하면서 연구공원의 중심시설로서의 위상을 나타내는 대칭형의 삼각형 계단형태로 정리되었고, 또한 이는 대지북측으로 열린 도심으로의 원경을 가장 적극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배치형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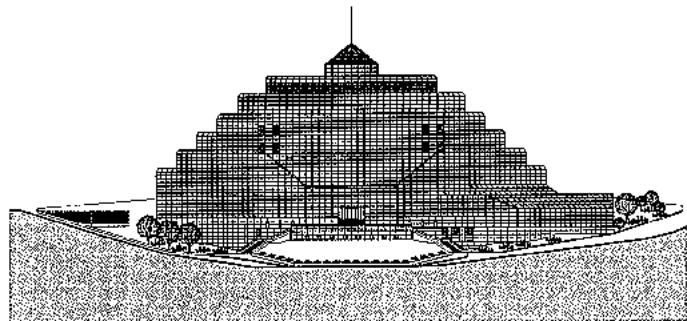
대지의 경사진 지형을 고려하여 진입동선을 분리하였다. 주진입은 건물 전면의 중앙광장을 통해 1층 출로 진입하도록 하며 부진입은 건물 후면의 낮은 레벨에서 외부계단을 통해 지하1층의 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지후면에 지하2층 기계실로의 장비반입을 위한 진입로를 마련하였으며, 일반차량은 간선도로에서 중앙광장에 오른 후 주차램프

를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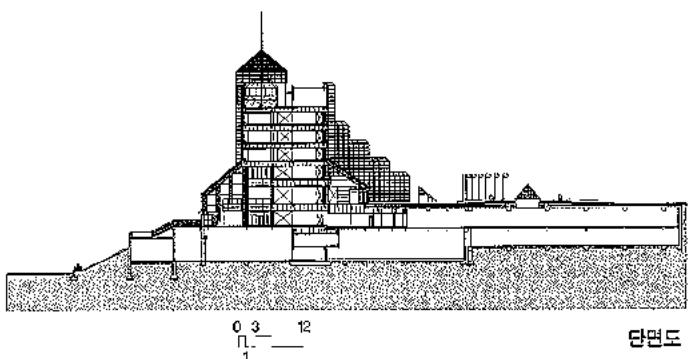
건물내부에서는 대지의 레벨차이에 따른 전·후면의 진입이 큰 축을 구성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전후면의 진입은 수직으로 관통된 지하층 및 1,2층의 홀 공간에서 시각적으로 합쳐지도록 하였다. 즉 전면은 1,2층이 통합되고, 후면은 지하층 및 1,2층이 관통되는 아트리움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아트리움은 유리로 덮인 경사진 형태를 이루어 진입부분에서 북측으로의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이 공간의 상부유리면에는 루버를 설치하여 일사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물의 수직동선인 코아는 날개를 편 삼각형 평면의 중앙 좌우측에 계획하여 효율적인 평면계획이 되도록 하였다. 남녀화장실과 계단실, 그리고 17인승 엘리베이터 2대, 화물용 엘리베이터 1대, 설비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장실과 계단실은 외기에 접하도록 하여 충분한 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후면 저층부에 사용한 회강석(고층석)을 제외하고는, 모든 외벽면을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반사 복층유리로 구성하여 조형적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저반사 복층유리는 비교적 높은 반사율과 높은 투과율이라는 상반된 요구를 만족시키는 재료로서 Mock up을 통하여 결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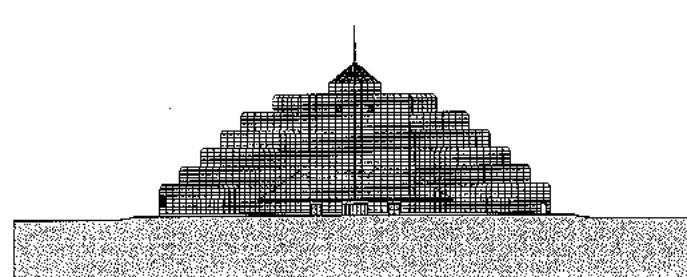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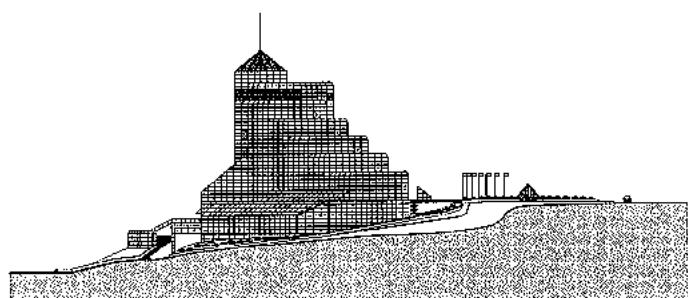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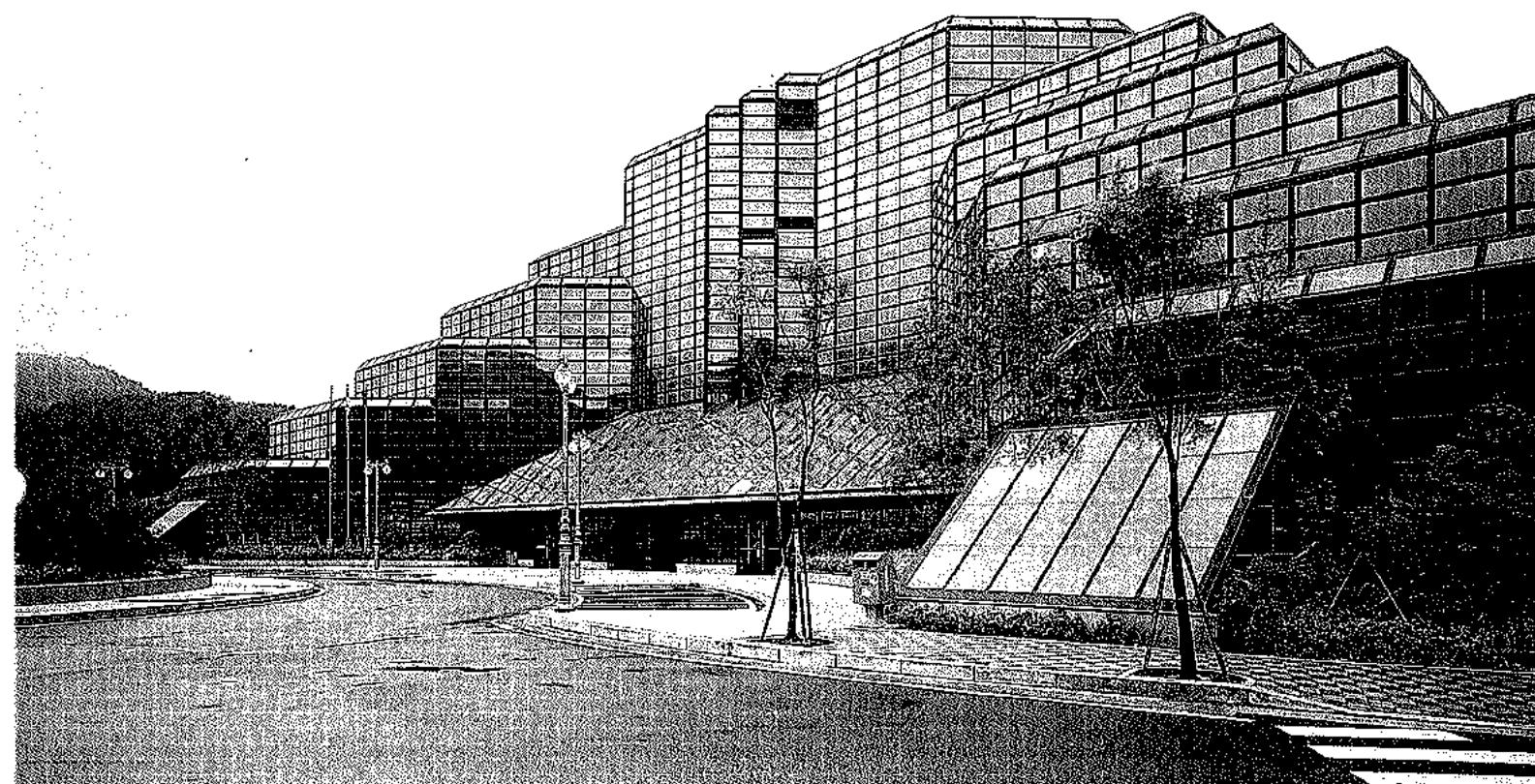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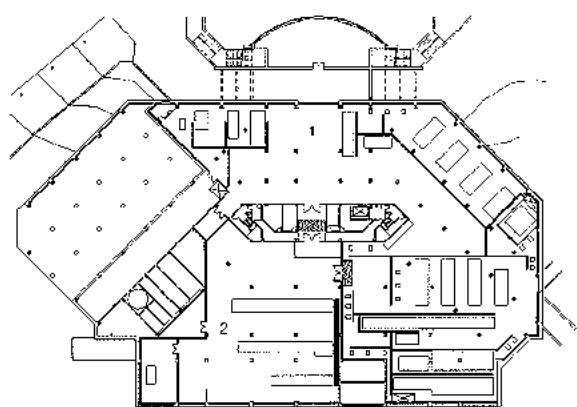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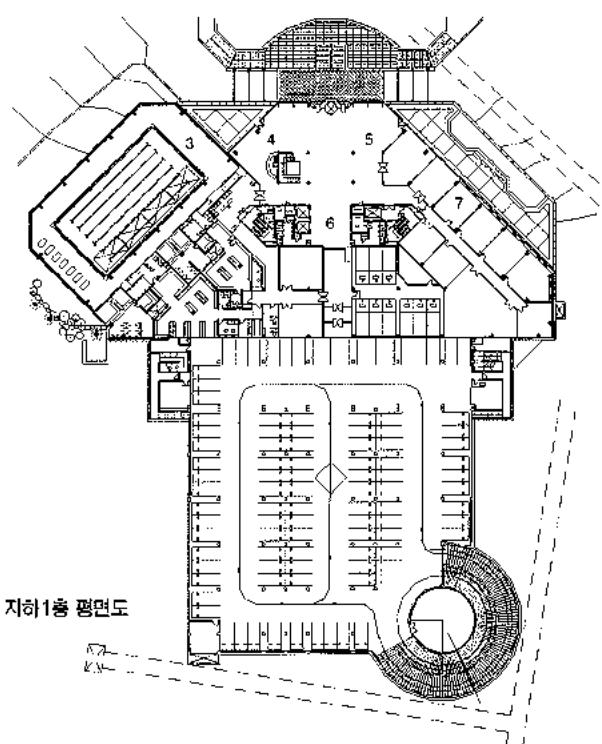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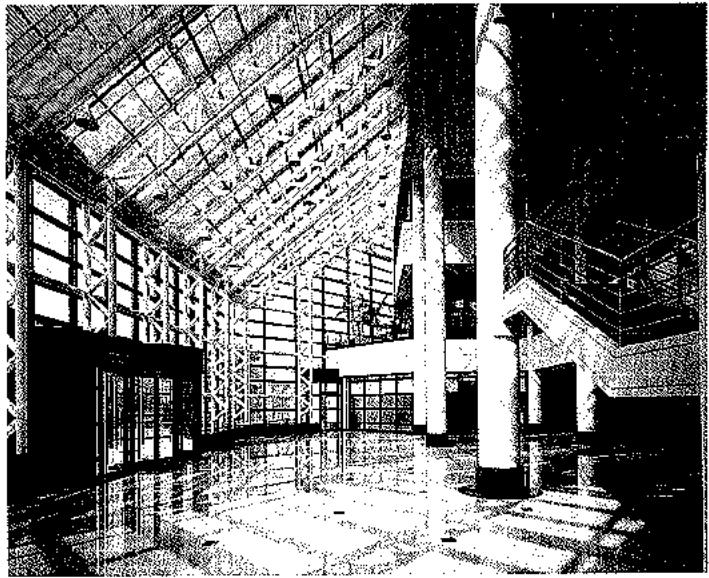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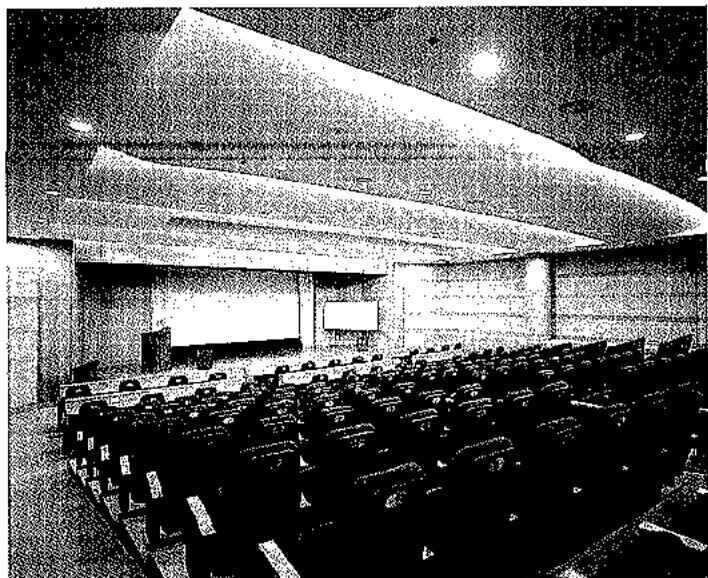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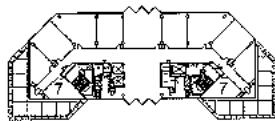
지하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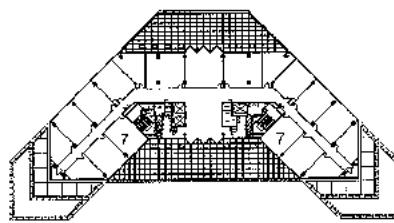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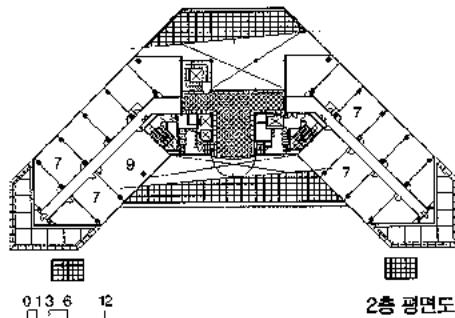
였고, 그 규격은 입면의 기본 모듈인 0.75m의 높이와 1.35m와 1.5m의 폭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층고 또한 3.75m(기준층), 4.5m(지하1층), 5.25m(1층) 등 0.75m의 배수로 구성하였으며 이 모듈선이 내부의 벽체에도 관통하도록 하여 동일감 있는 내외부의 벽면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층이 상승하면서 평면적으로 한 BAY씩 좁혀져 가는 MASS는 각 층에 적정한 휴게테라스를 제공하면서 옥상부에 설치된 쿨링타워를 위한 피라밋 형태의 그늘에서 정점을 이루도록 구성하였다. 서울대 연구공원의 중심지원시설인 이 건물이 창업인큐베이터의 모범적 사례가 되어 활발한 산학협동의 장으로서 기능하기를 기원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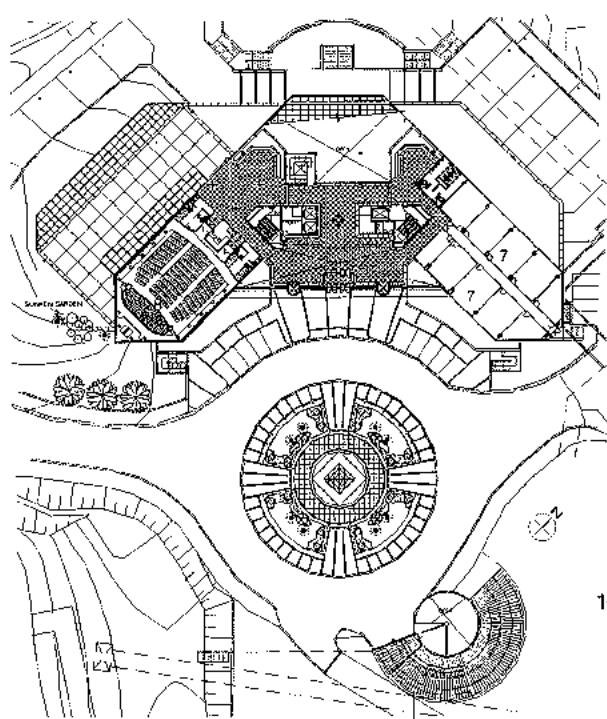
5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1. 기계실
- 2. 변전실
- 3. 수영장
- 4. 카페음
- 5. 휴게실
- 6. 층
- 7. 인큐베이터
- 8. 강당
- 9. 행성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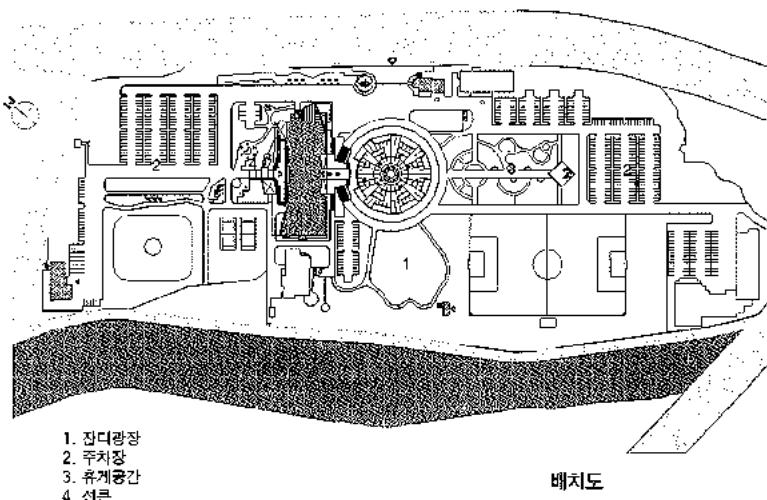
농업기반공사본사

KARICO

이강호 / (주)에시트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Kang-Ho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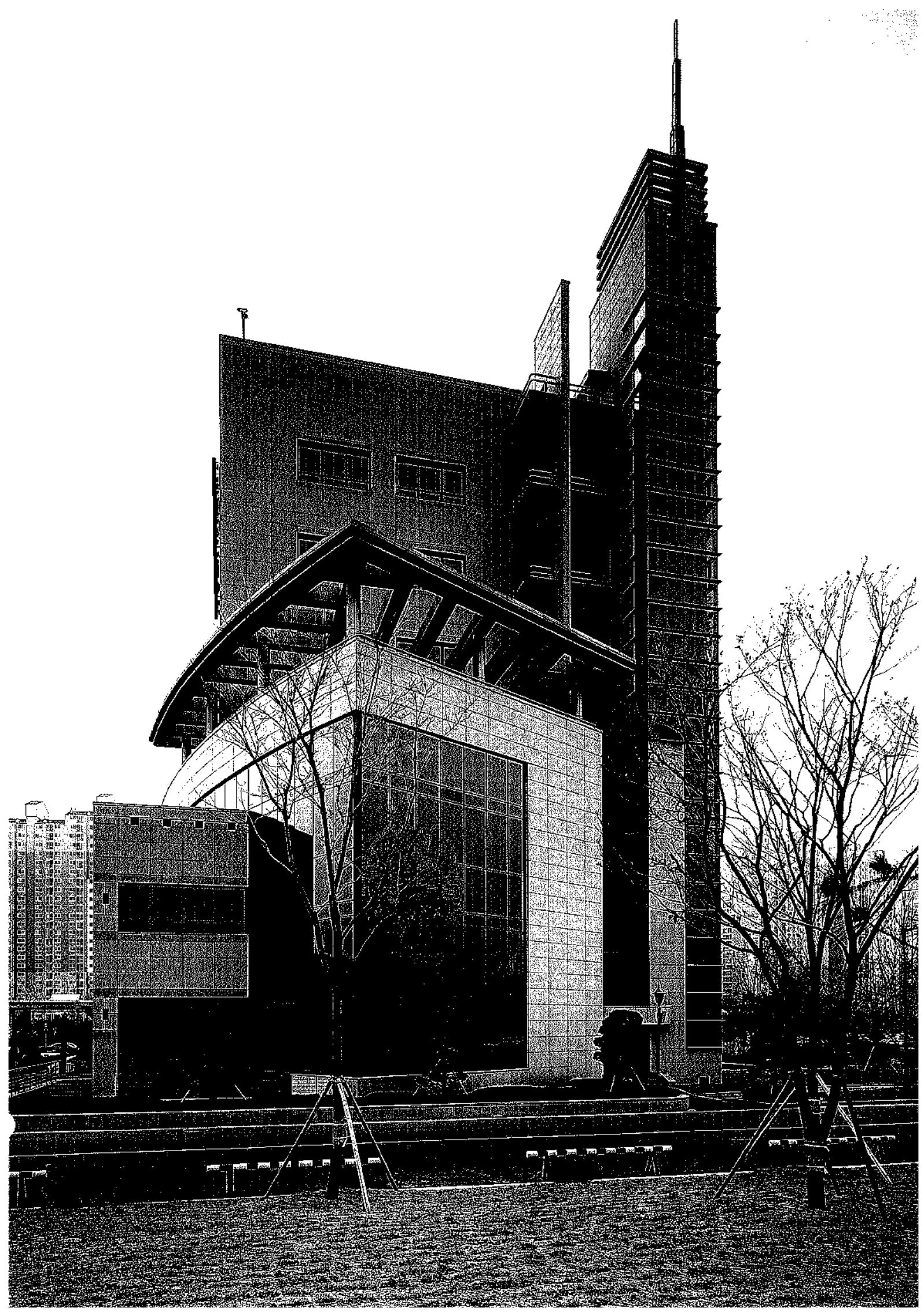
위 쳐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외 3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 지역
대지면적	91,762.10m ²
건축면적	3,323.69m ²
연 면 적	17,313.17m ²
조경면적	28,488.30m ²
건 폐 율	3.62%
용 적 률	15.89%
규 모	지하 1층, 지상 7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외부마감	화강석 베니 마감, 컬러복층유리
설계기간	1997. 8~1997. 12
공사기간	1998. 1~2001. 12
사 진	건축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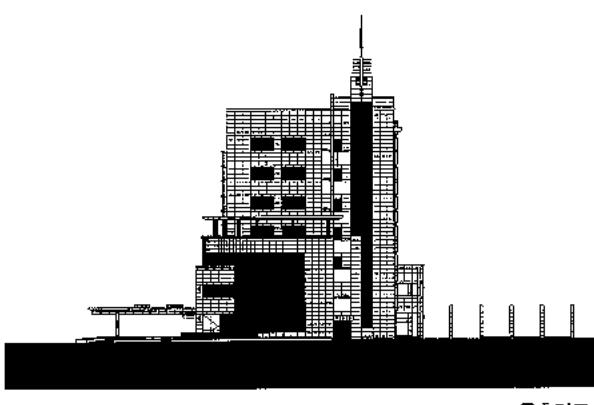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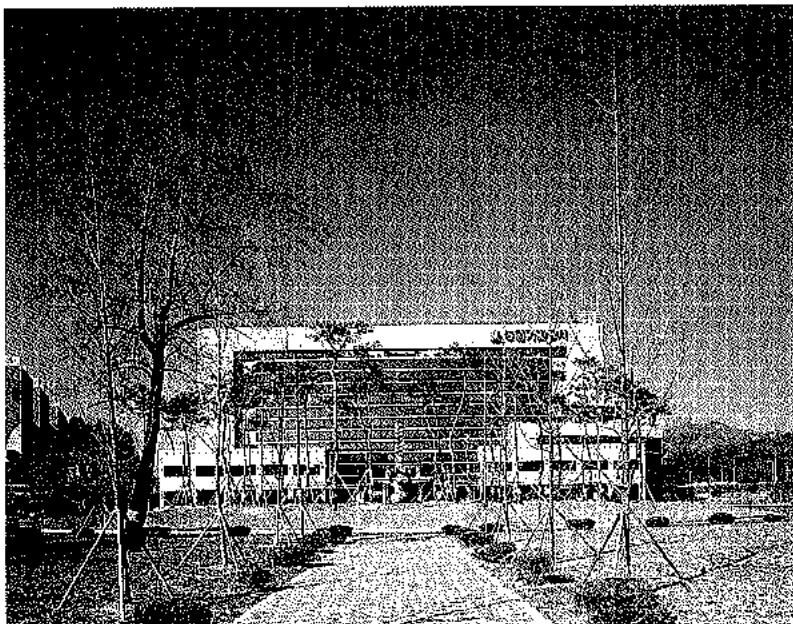
서울과 과천으로 연결되는 의왕시의 관문적 자리에 위치한 농업기반공사 본사사옥은 주위로 APT단지와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하고 배면으로는 공장밀집 지역에 접해 있으며, 전면에는 35M도로가 접하며 그 도로 건너편은 개발제한 구역의 녹지가 형성되어 넓은 조망이 확보되어 있다.

농업기반공사 본사사옥은 교육 및 연구시설로서의 공간과 기능을 수용하고 지역주민의 휴게공간의 제공 및 21세기 선진 농어촌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공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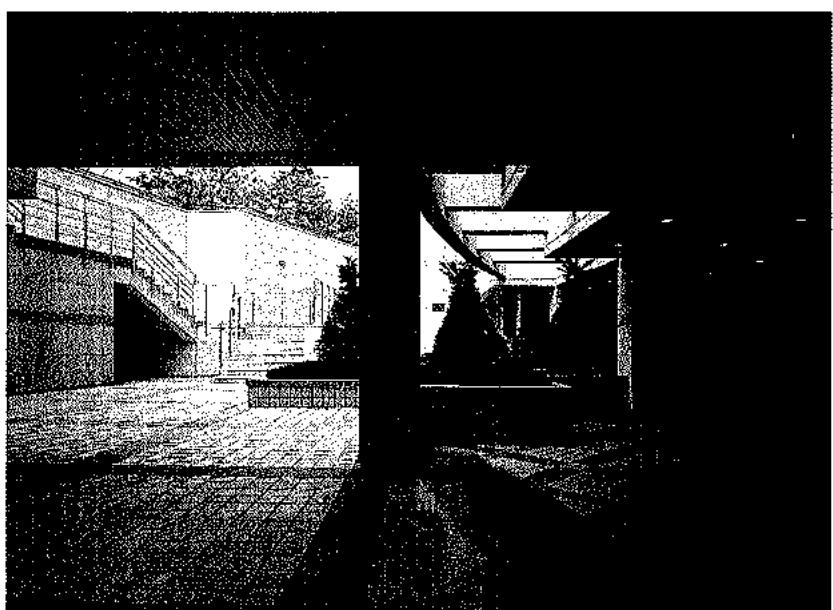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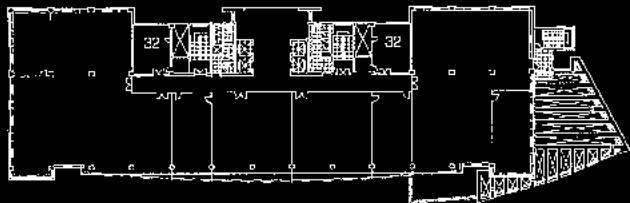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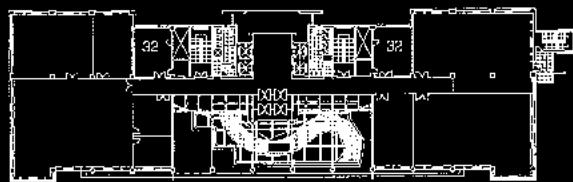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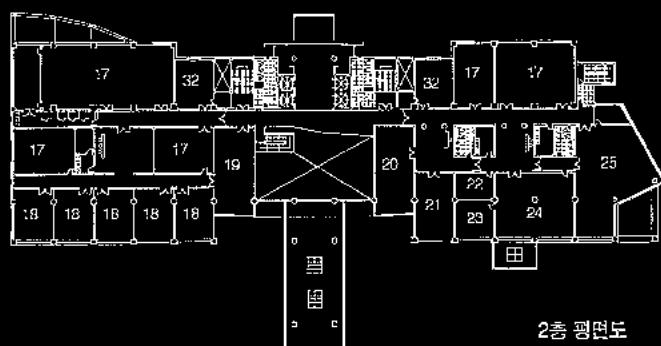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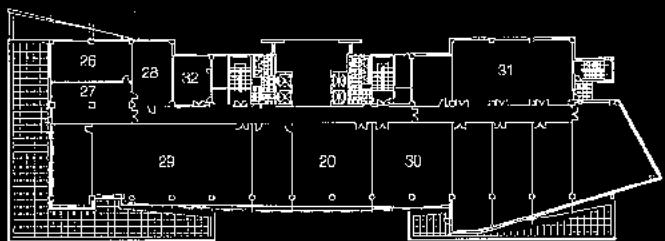


7층 평면도

- | | | | |
|-------------|-----------------|----------|-----------|
| 1. 잔기실 | 9. 미회반 | 17. 쇠외식 | 25. 이사찌설 |
| 2. 거거실 | 10. 드링워 페인팅 | 18. 본두침실 | 26. 소나리오 |
| 3. 냉재센터 | 11. 체력단련실 | 19. 브리핑실 | 27. 밤승실 |
| 4. 식물 | 12. 도스침화즈 | 20. 김사실 | 28. 등신실 |
| 5. 비품창고 | 13. 훈두관리실 및 부속실 | 21. 부서점찰 | 29. 기획조정실 |
| 6. 소모품 침고 | 14. 문방구내선 및 축적실 | 22. 비서실 | 30. 미장예식실 |
| 7. 청소노구 보관실 | 15. 브리 | 23. 짐무실 | 31. 전수실 |
| 8. 영선반 | 16. 출구실 | 24. 서정소 | 32. 공조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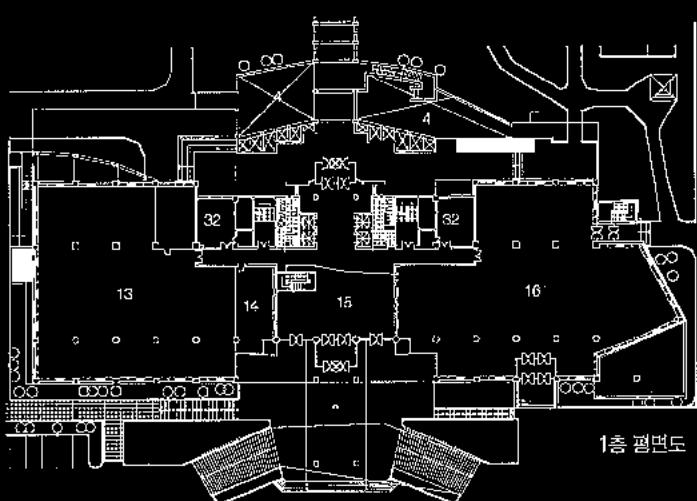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명지전문대 공학관/도서관 & 본관/인문사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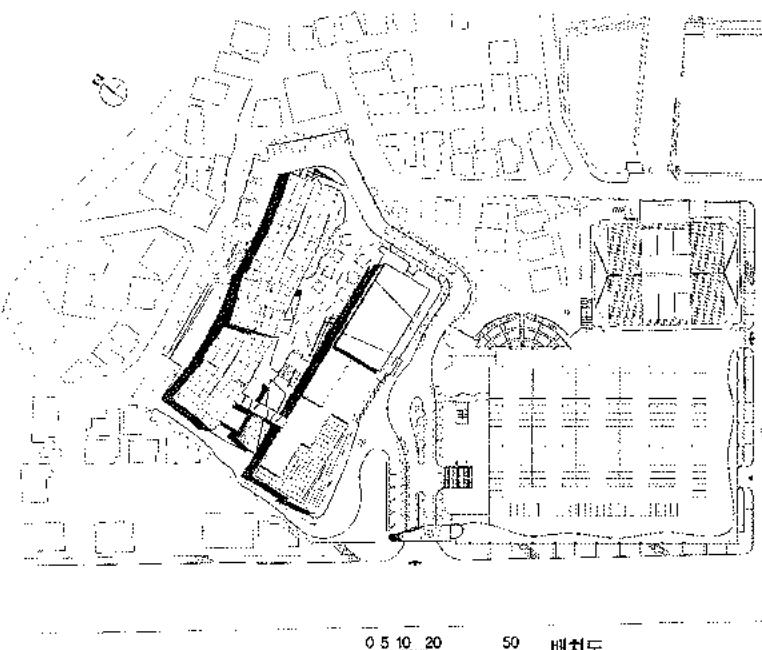
Myongji College Engineering Building/Library & Administrative/Humanities-Social Science Building

유 건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상

Designed by Yu Kun

건축개요

위 치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356-1번지 외 31필지
주 용 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25,921.00m ²
연 면 적	37,058.98m ² 공학관, 도서관 - 19,861.88m ² 본관, 인문사회관 - 17,150.44m ² 정문 - 46.66m ²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공학관, 도서관 - 지하2층/지상8층 본관, 인문사회관 - 지하1층/지상9층 정문 - 지상2층
외부마감	외단열시스템 / 점토벽돌
내부마감	화강석/인조석물갈기/석고보드 위 비닐페인트 몰탈 위 수성페인트
구 조	(주) 동양구조
전 기	(주) 세부엔지니어링
기 계	(주) 고도기술사 사무소
시 공	(주) 명지건설
환경코디네이트	나혜영(명지전문대)
사 진	건축사 제공



고밀도의 도심형 소규모 캠퍼스로서, 낙가좌동의 경사지에 위치한 기존의 명지중학교 부지로의 이전 캠퍼스이며 신축과 리노베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축건물은 공학관 및 도서관 용도로서 1998년, 기존 중학교 교사 리노베이션은 본관 및 인문사회관 용도로 1999년 각각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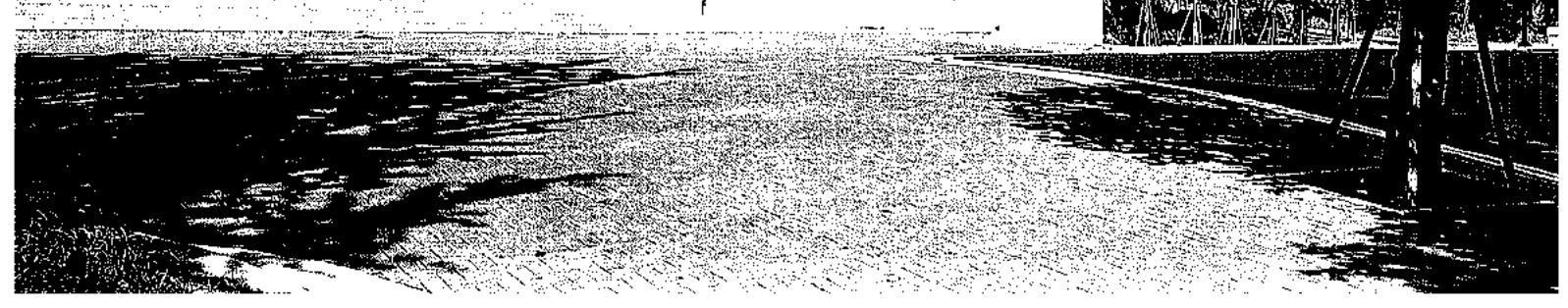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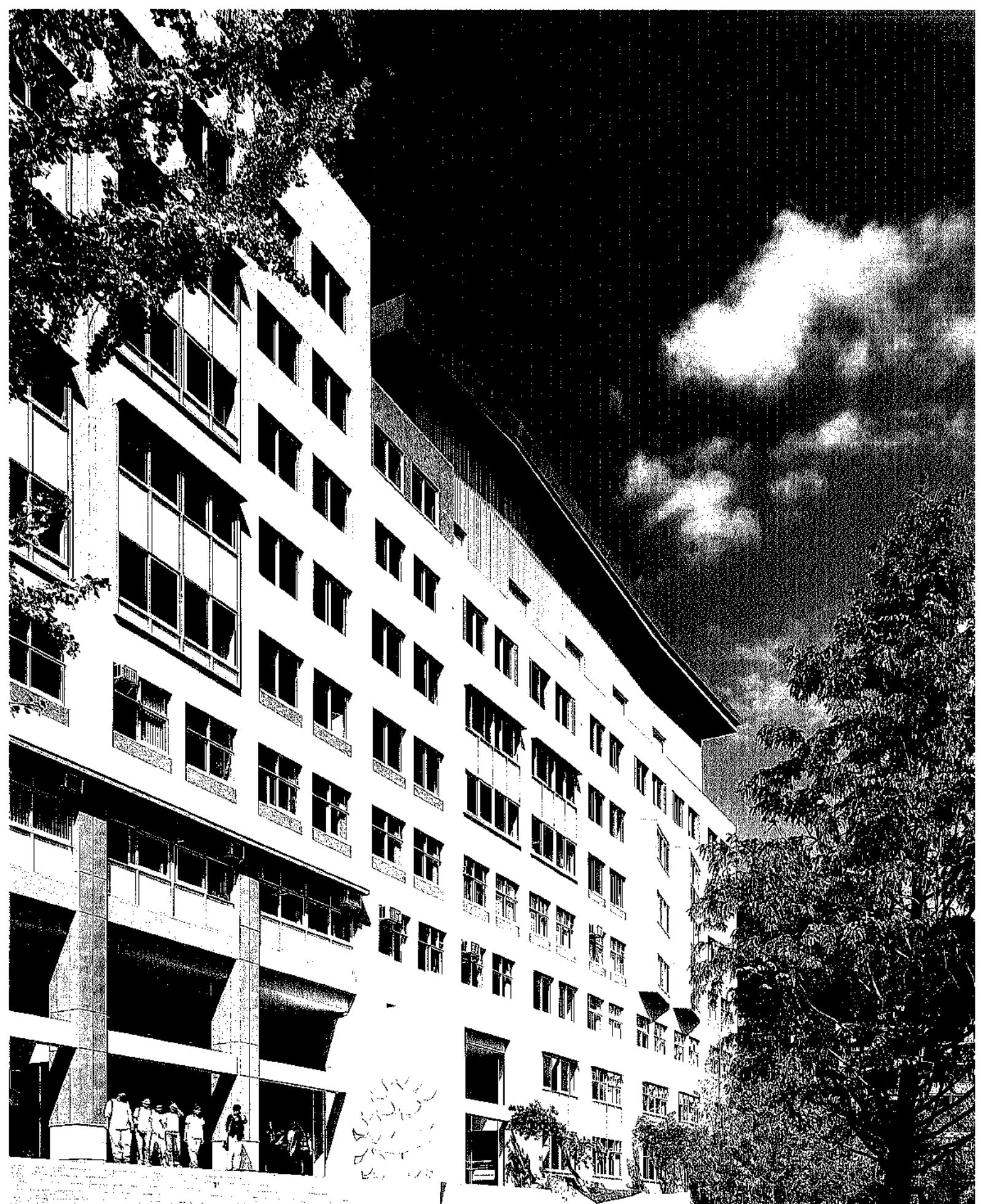
협소한 캠퍼스 부지와 기존 중학교 건물의 여간상 기존 건물의 중앙 부위에 2개층 높이의 옥외 공간이 관통하도록 하여 후면 신축 건물로의 진입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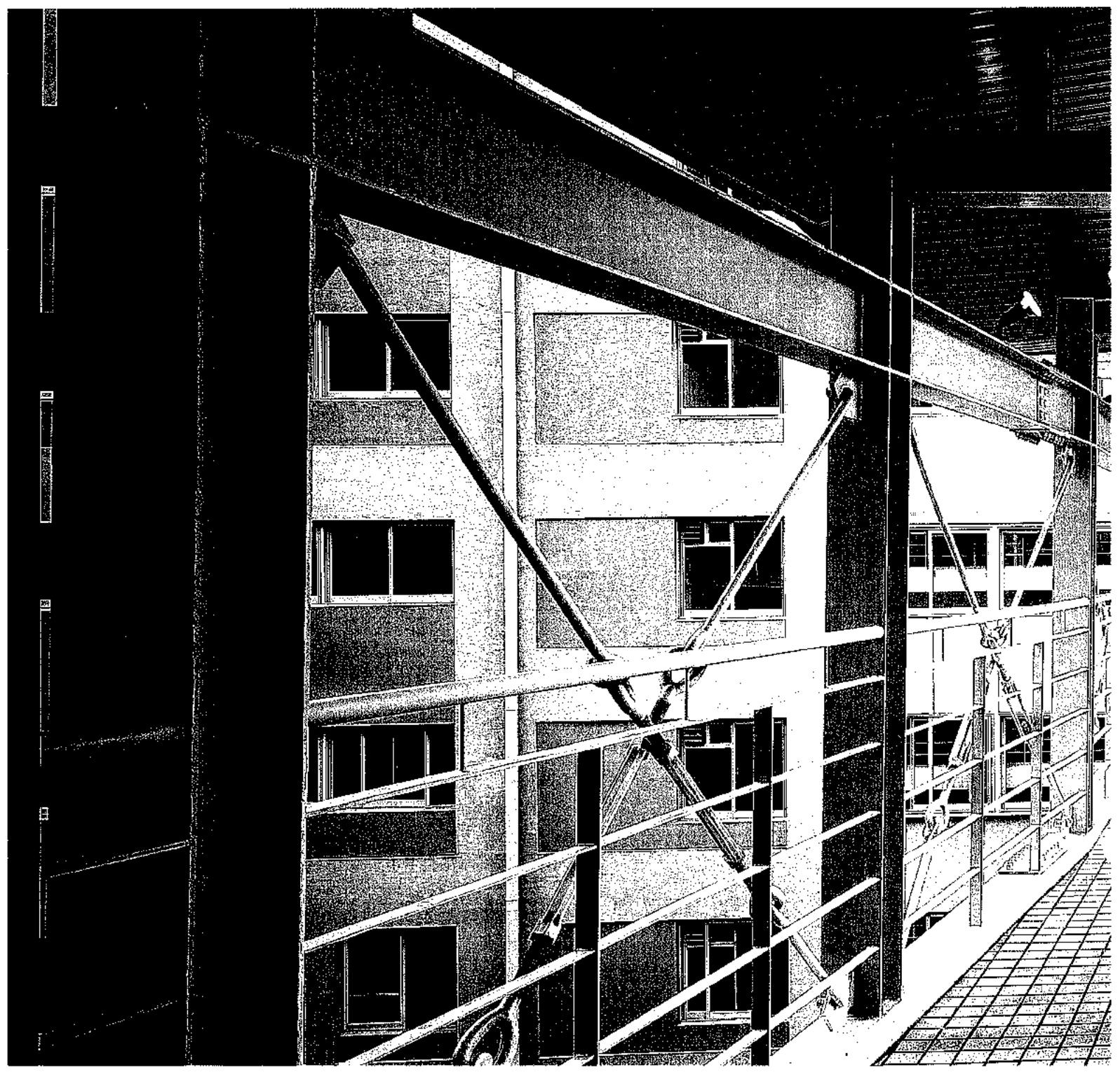
북측에 위치한 신축건물의 주변은 연립주택과 다가구 주택으로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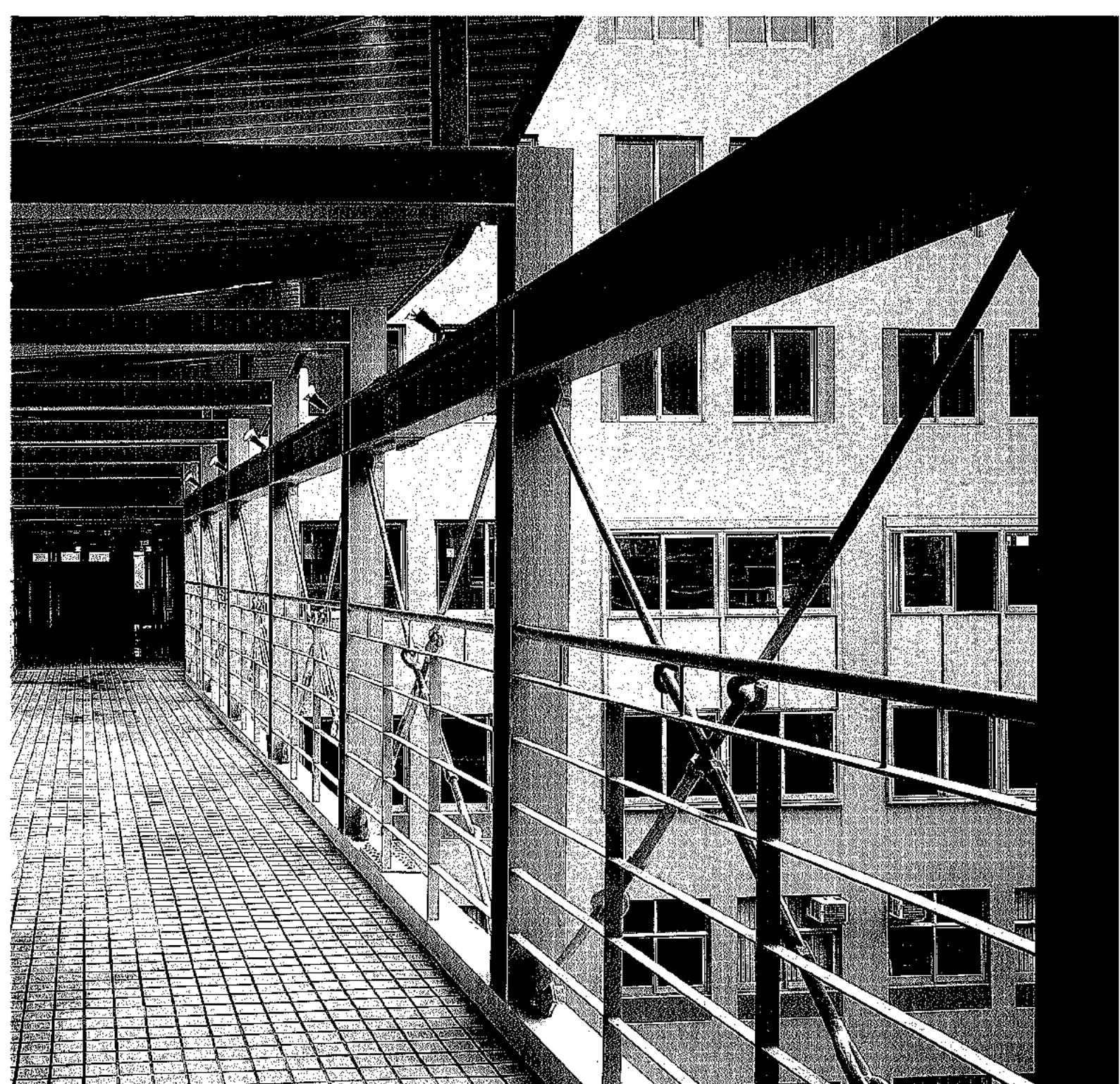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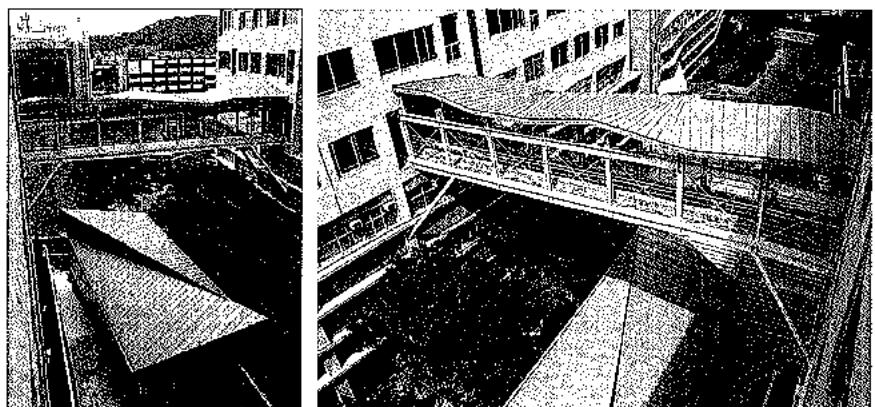
성된 자연발생적 지역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컨텍스트를 살려 정방향 마스를 분절하여 외부의 주변환경과 스케일을 반영하여 창문크기의 다양함으로 불규칙성을 강조하였으며 복도 공간의 변화로 내부의 자루함을 탈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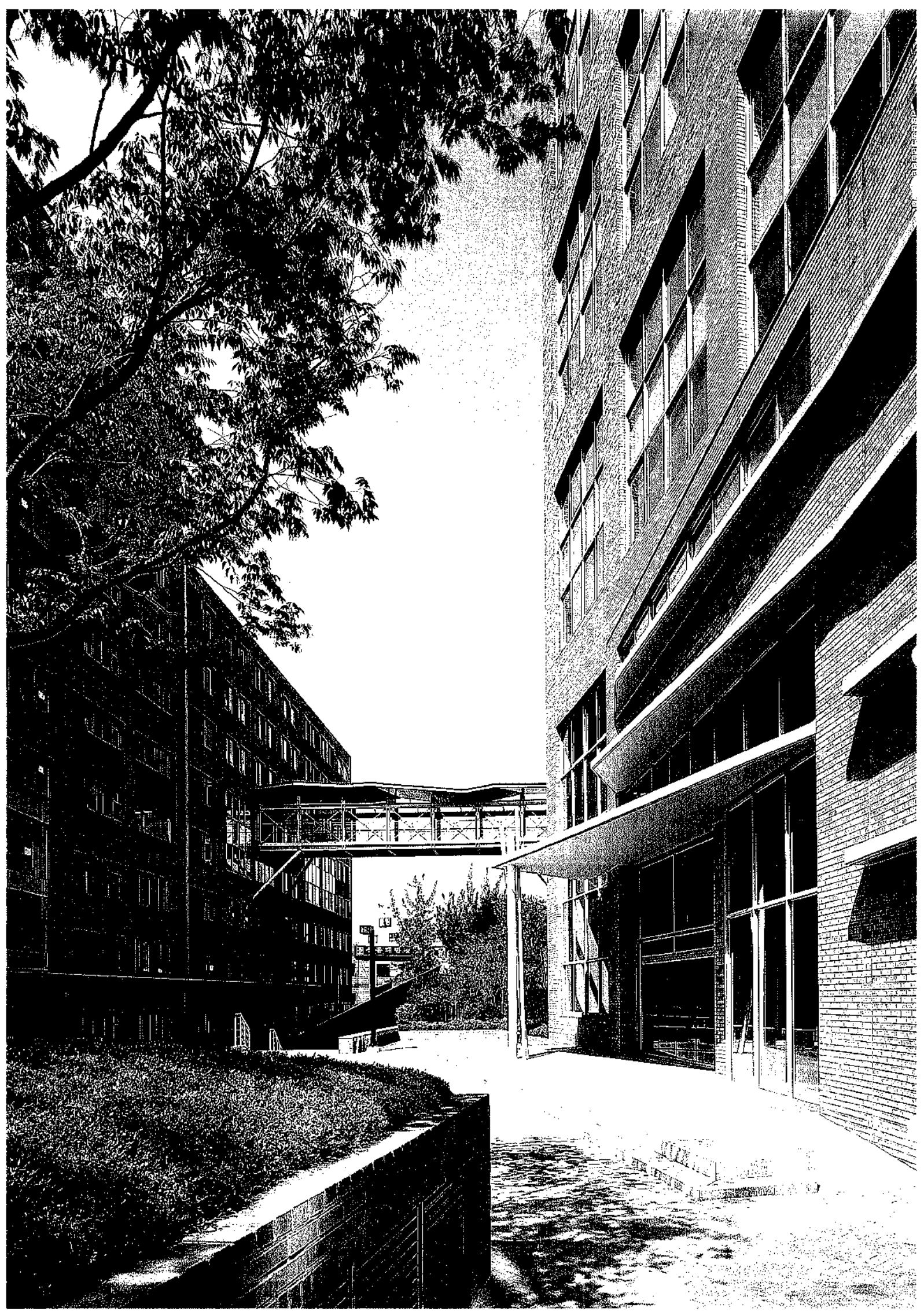
리노베이션은 중앙 오픈부위인 학생들의 주동선상의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접근 및 사용이 용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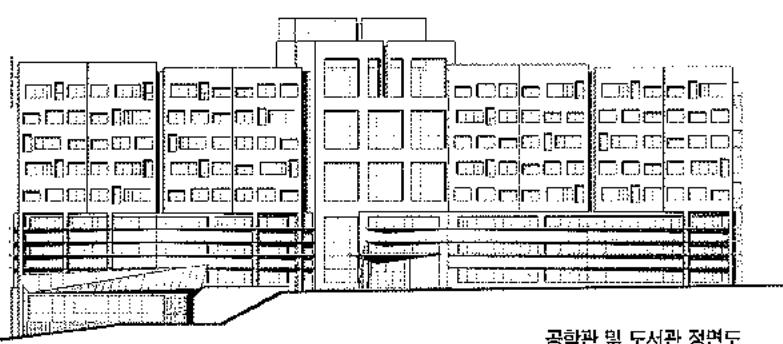
주가되는 용도인 본관, 인문사회관, 공학관, 도서관은 2개의 건물에 분산 배치되어 있으나 각각의 용도마다 주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독립성을 부여하되 유기적인 관계가 설립도록 하였으며 교문은 영역의 표시로부터 장중함을 지양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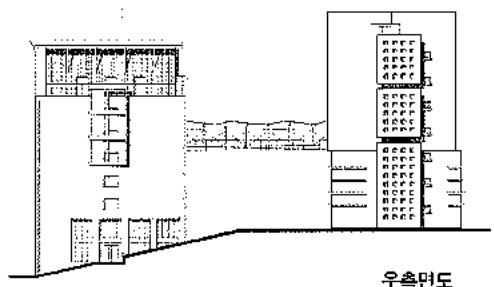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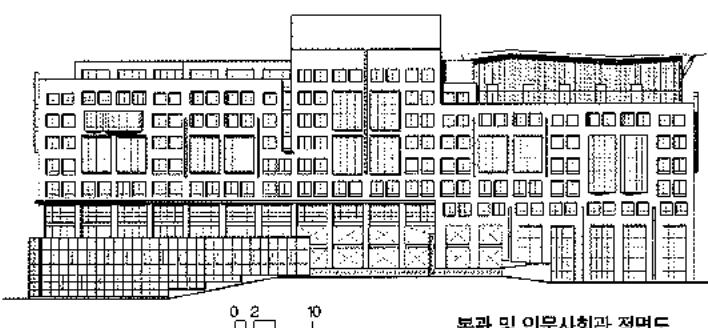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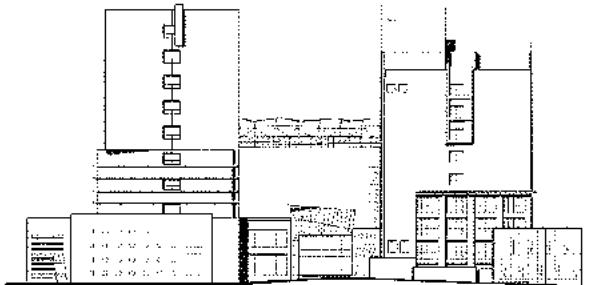
공학관 및 도서관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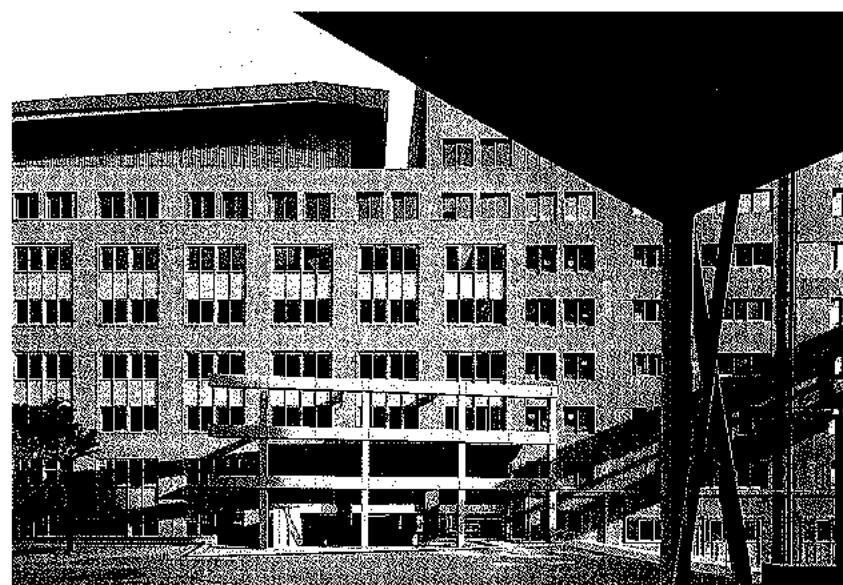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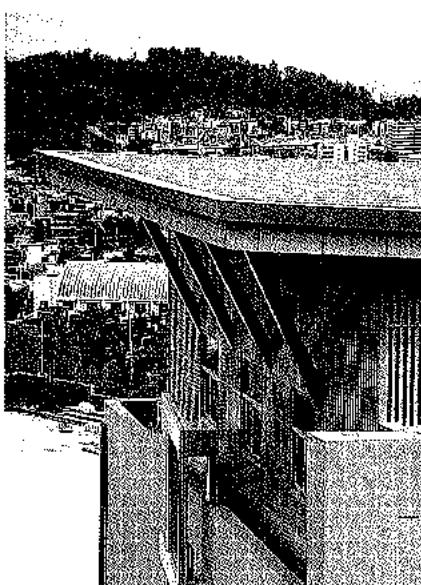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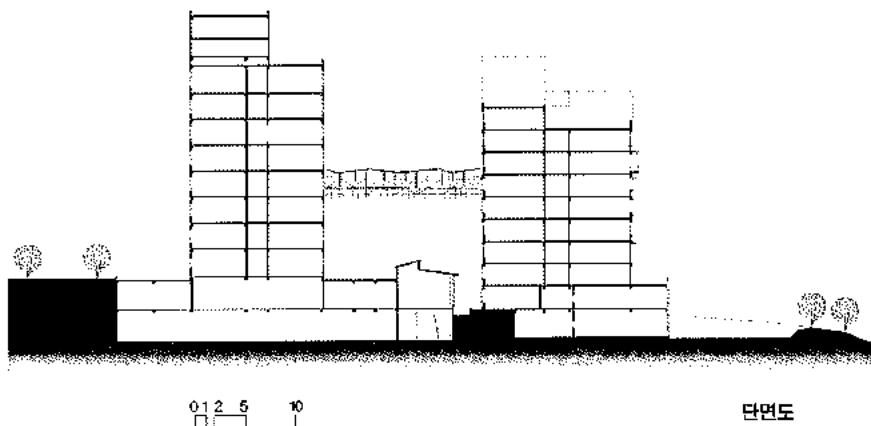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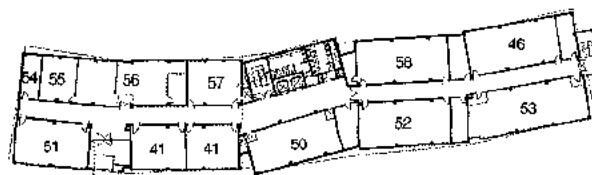
본관 및 인문사회관 정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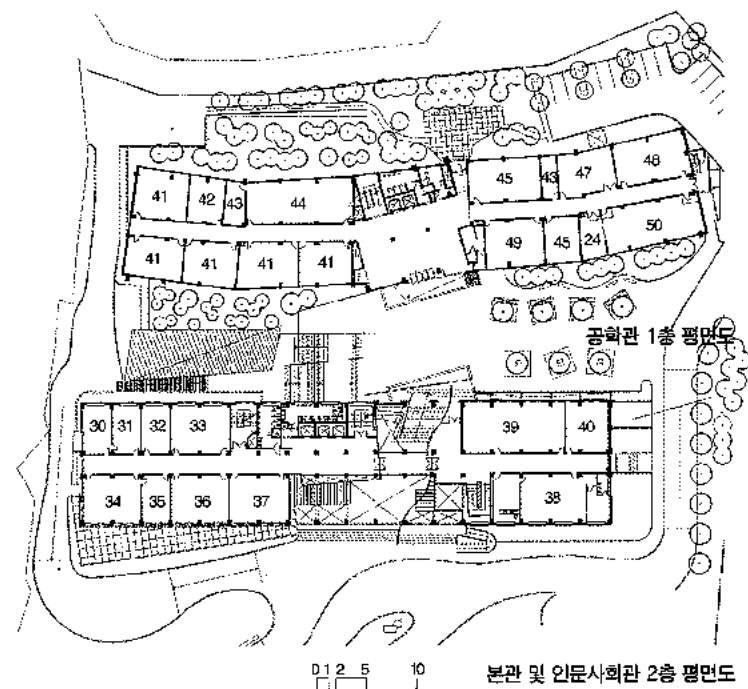




공학관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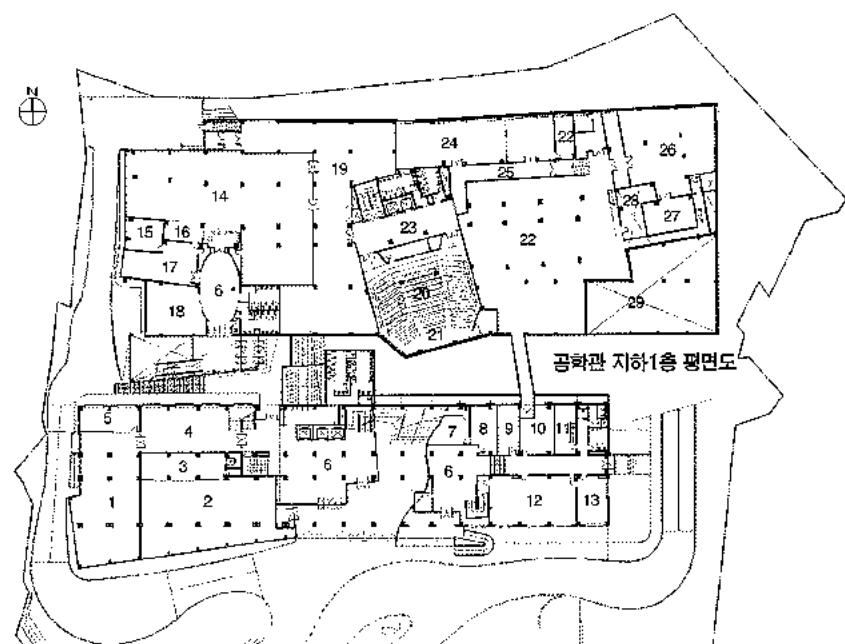


본관 및 인문사회관 6층 평면도



공학관 1층 평면도

1. 멀티미디어실
2. 직원식당
3. 주방
4. 학생리葺지
5. 조정실
6. 흠
7. 숙직실
8. 방재센터
9. 교환실
10. 문서보관실
11. 인쇄실
12. 총무과
13. 서무처장실
14. 인터넷결제실, 경기간행물실, 참고자료실
15. 관장실
16. 대출실
17. 사무실
18. 신문열람실, 휴게실
19. 서고
20. 체안감의실
21. 무대
22. 기계실
23. ELEV 흠
24. CNC/기계공작실
25. 복도
26. 전기실
27. 발전기실
28. 기계갈기실
29. 정화조
30. 교복실장실
31. 교육실
32. 학생지원 체장실
33. 학적과
34. 교무과
35. 학사관리 체장실
36. 학생지원과
37. 회계과
38. 학강실
39. 세미나실
40. 회의실
41. 경의실
42. 지적측량기재실
43. 실습준비실
44. 기계제도실
45. 재료실험실
46. 전학전자실습실
47. 정밀축정 및 안전진단실습실
48. 메카트로닉스 실습실
49. 강사대기실
50. CAD/CAM실습실
51. 매체제작실
52. 제어실습실
53. 디자털 및 마이크로프로세서실습실
54. 실장실
55. 정보관리센터
56. 정보관리센터 기계실
57. 전기설비실습실
58. 전기전자기초실습실



본관 및 인문사회관 1층 평면도

서부소방서 리노베이션

Renovation of Seobu Fire Station

한상운 / (주)씨티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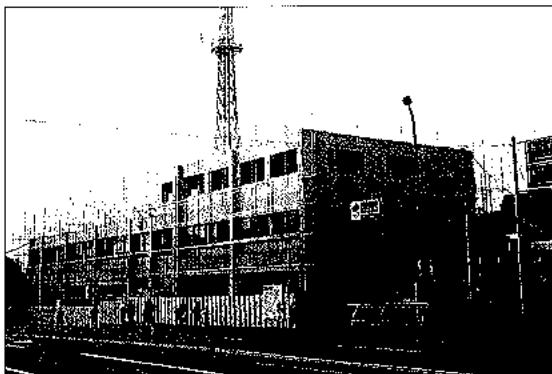
Designed by Han Sang-Woon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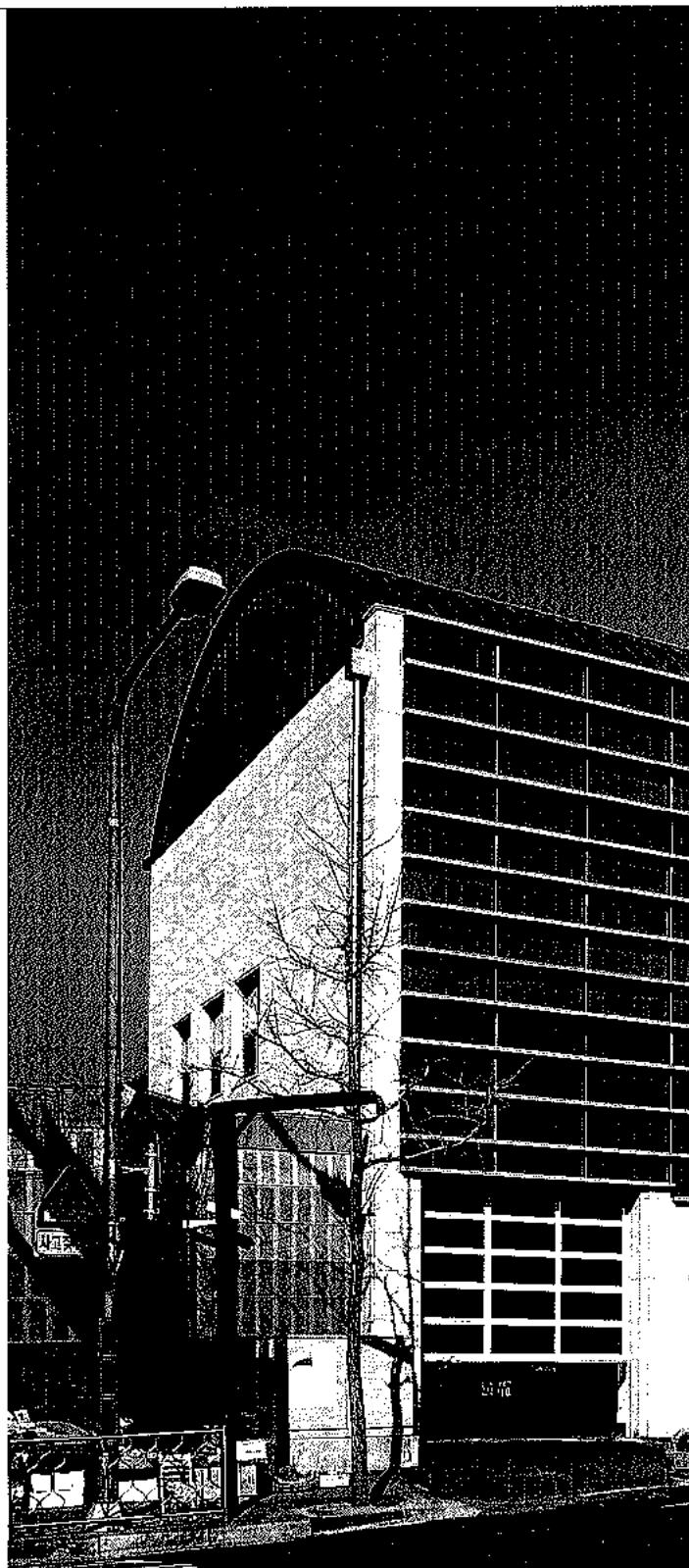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 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48-5호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대지면적	1,859.29m ²
건축면적	957.461,859.29m ²
건 폐 율	51.50%
연 면 적	3,048.64m ²
용적률	149.54%
조경면적	293.76m ²
주차대수	옥내 16대, 옥외 10대
차고면적	687.94m ²
건물높이	18.3m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정 화 조	200인조 부폐정화조
사 진	건축사 제공

서울 은평구 녹번동 48-5에 위치한 서부소방서 건물은 1975년 6월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84평의 규모로 신축하여 1977년 9월 1층, 2층을 116평 1차 증축하였고, 그 후 81년, 85년, 91년, 94년까지 5차례 걸쳐 증축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01평 규모의 건물을 사용하여 오다가 1998년 6월에 실시한 구조안전진단 결과 노후 건물로써 구조 안전 위험이 있는 D급 판정을 받았다.

설계자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여러 번에 걸쳐 증축하여 동선기능이 불합리하며 노후 건물로 24시간교대로 근무해야 하는 소방관



리노베이션 전 모습



돌의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개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보수 보강하여 리노베이션을 하게 되었다. 보수보강 설계의 주안점은 정해진 예산을 고려하여 기존의 골조를 유지하면서 주 계단실과 화장실 위치(CORE)를 변경하여 평면을 기둥에 맞게 정리하였고, 구조체 보강은 구조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보강하였다. 입면 계획은 기존 건물 전면에 어두운 이중창을 철거하고 ALL GLASS CURTAIN WALL을 설치하여 투명성과 상징성을 강조하였고 측면과 배면은 기존 타일위에 외단열 SYSTEM으로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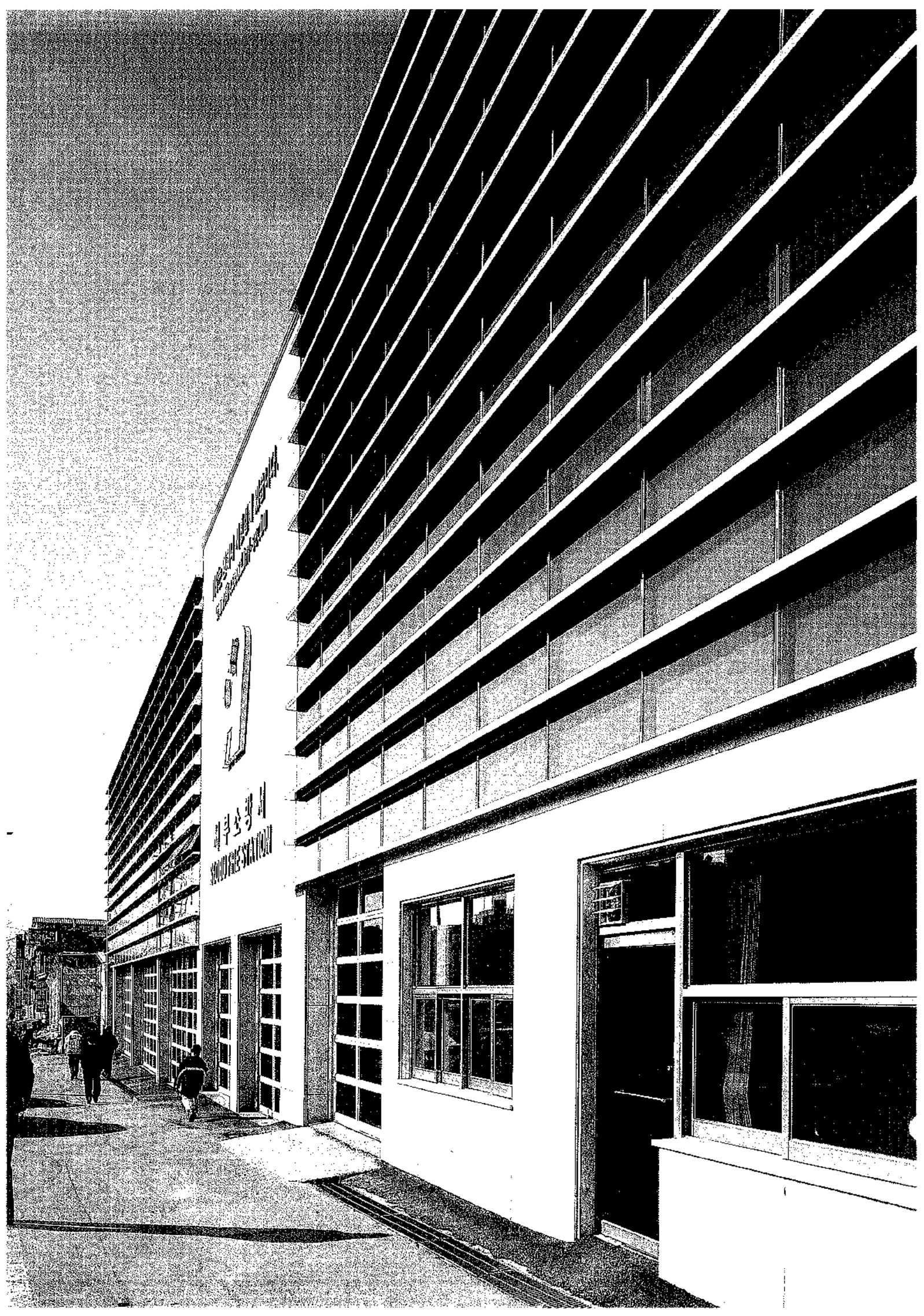
또한, 부족한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4층에 경량 구조물로 강당을 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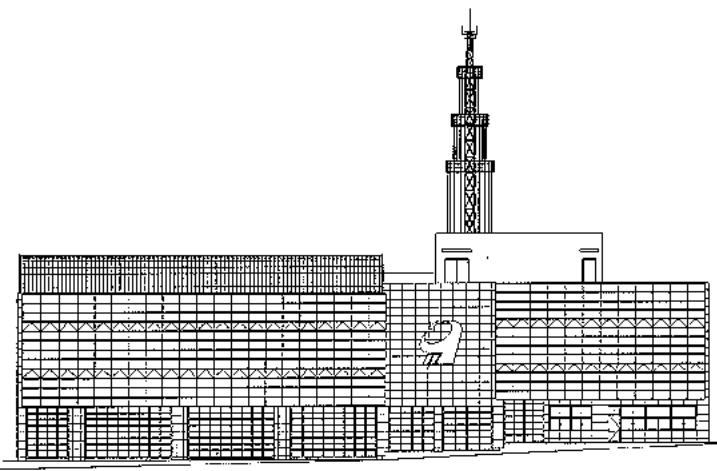
하여 디복적설로 사용토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공사 감리중에도 한정된 공사비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으나 서부소방서 김국례 서장님과 담당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사비를 증액하게 되어 예산 부족으로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어느정도 만족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끝으로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묵묵히 소방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왔던 서부소방서 대원들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그들의 무사와 건강을 기원해 본다. 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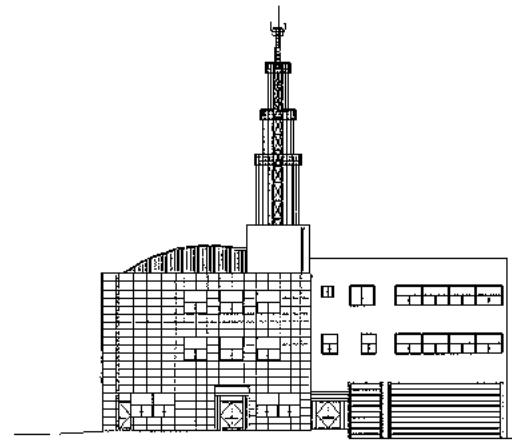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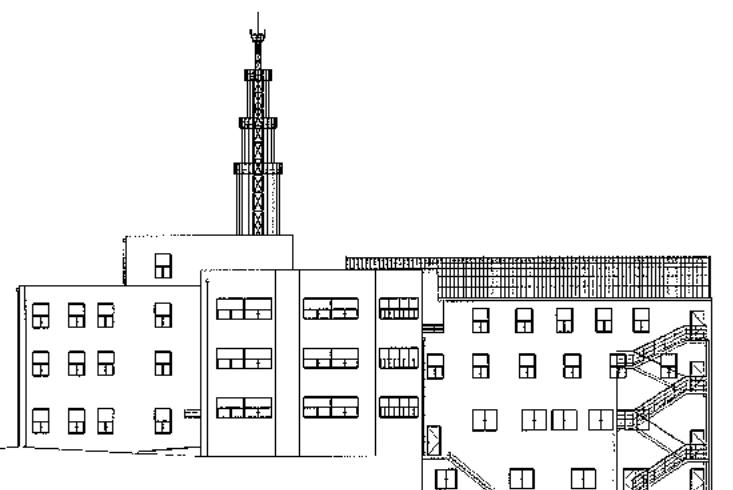


1 3 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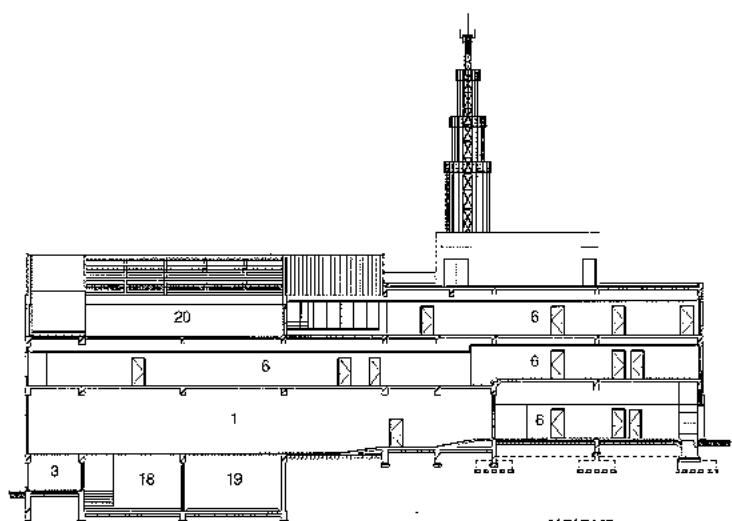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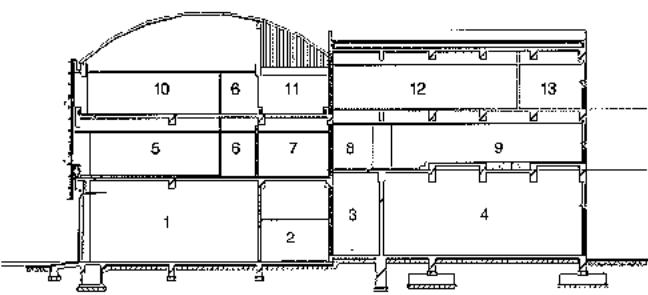


좌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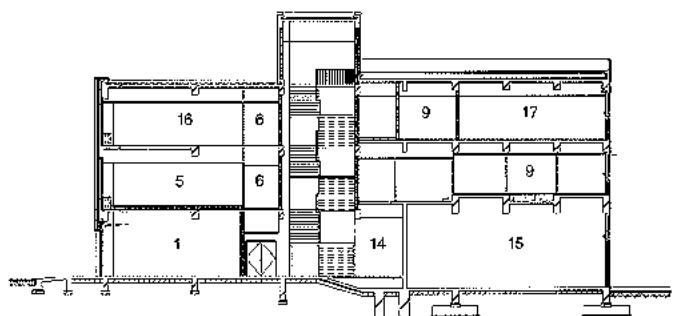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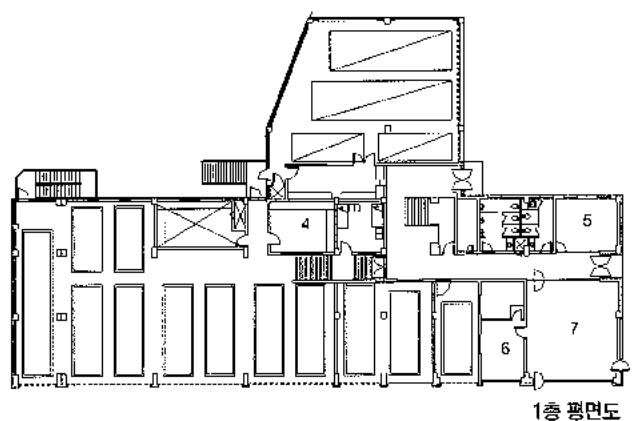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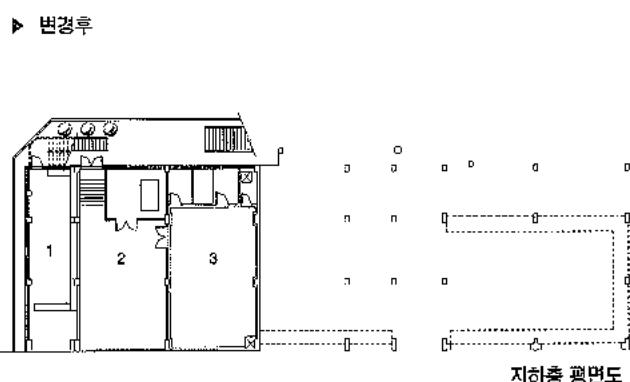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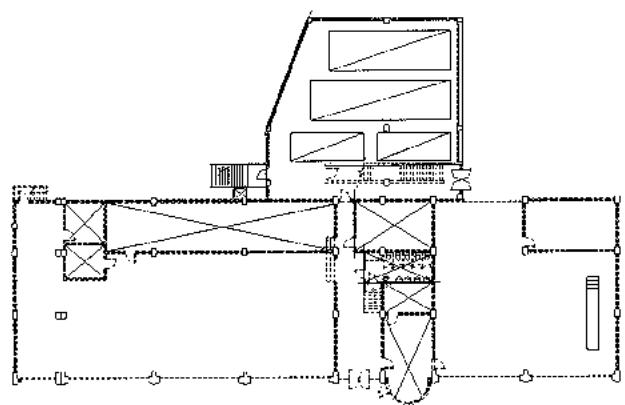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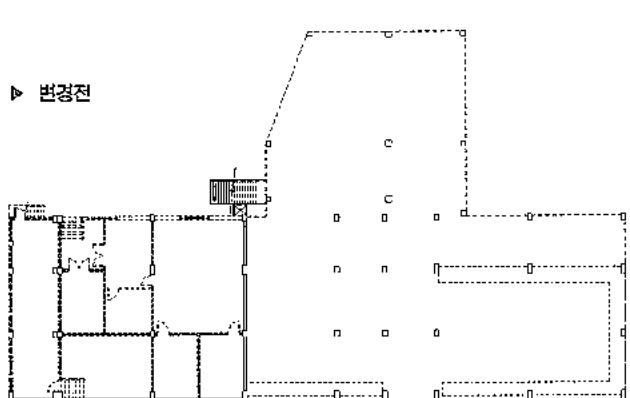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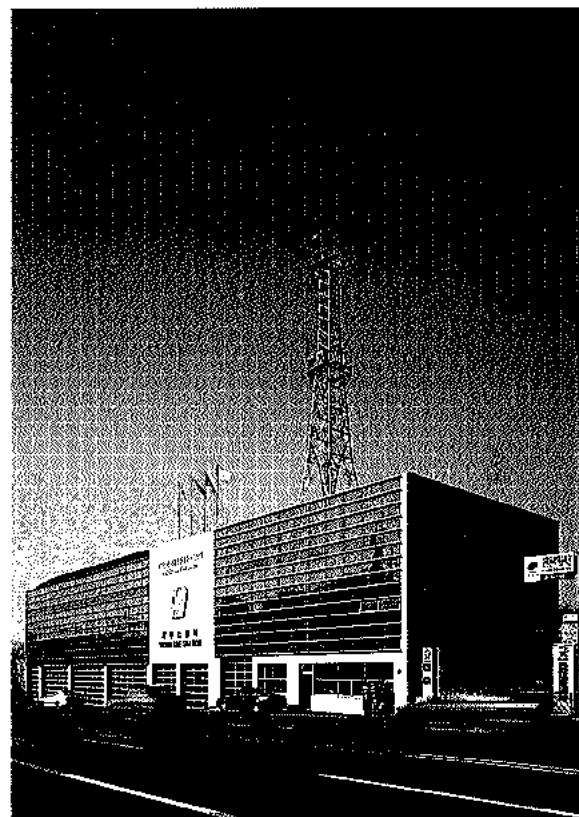
- | | | |
|----------|-----------|----------|
| 1. 제1차고 | 8. 휴게실 | 15. 제2차고 |
| 2. 반점대기실 | 9. 대기실 | 16. 문서고 |
| 3. 힘고 | 10. 소회 의실 | 17. 서장실 |
| 4. 제3차고 | 11. 육의공간 | 18. 전기실 |
| 5. 상황실 | 12. 소방행정과 | 19. 기계실 |
| 6. 복도 | 13. 괴장실 | 20. 강당 |
| 7. 내근강의실 | 14. 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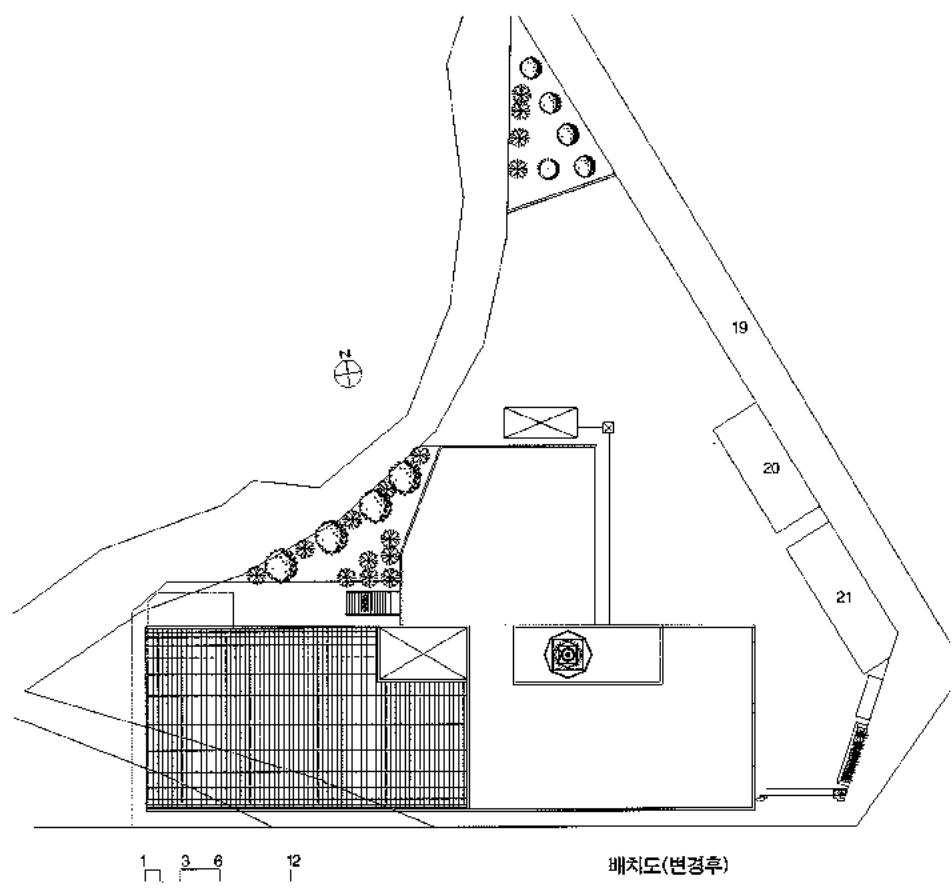
총단면도-1



총단면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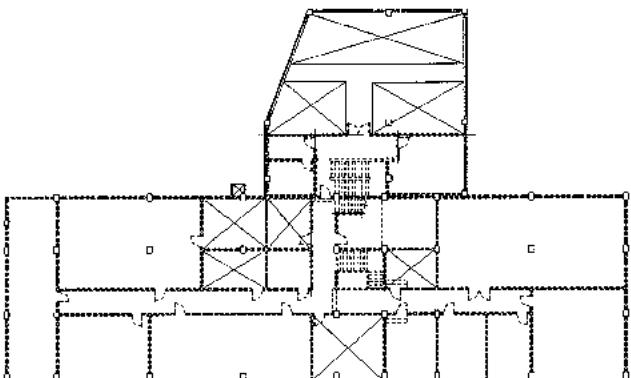


1. 구조대 창고
2. 전기실
3. 기계실
4. 장비창고
5. 민원실
6. 소장실
7. 사무실
8. 구조대사무실
9. 구급대기실
10. 간부대기실
11. 상황실
12. 구조진압과
13. 휴게실
14. 적합대기실
15. 강당
16. 소회의실
17. 예방과
18. 소방행정과
19. 35M도로
20. 경찰파출소
21.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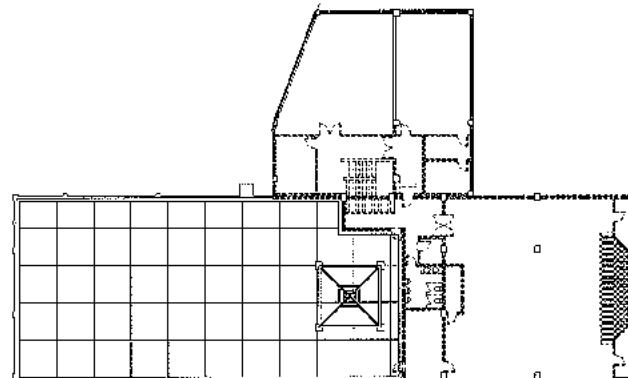


1 3 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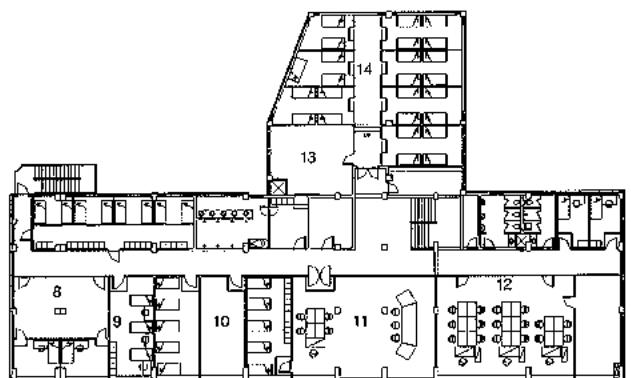
배치도(변경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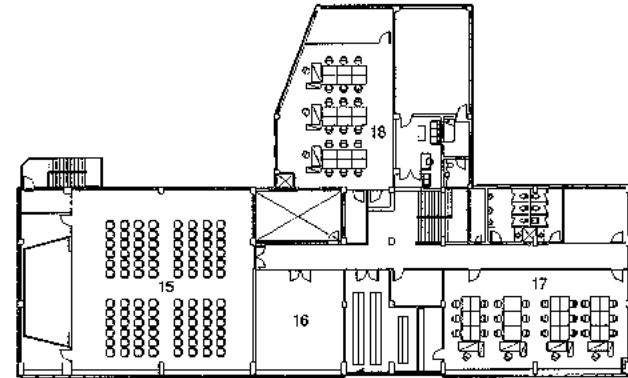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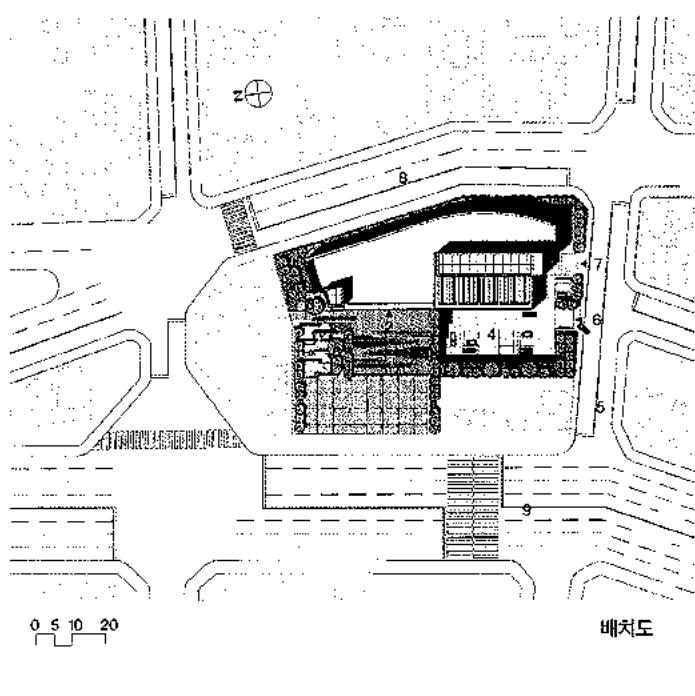
금정세무서

Geumjeong District Tax Office

김동희 · 허동윤 · 고성룡 / (주)상지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Dong-Hae, Heo Dong-Yun & Ko Seong-Ryong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26-5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일부 최저고도지구
용 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4,145.10 m ²
건축면적	1,933.12 m ²
연 면 적	4,347.40 m ²
용적률	104.88 %
건폐율	46.64 %
규 모	지상 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최고높이	20.70 m
주요마감	외부 - AL 커튼 월 + 화강석 내부 - 바닥 : 화강석 + 비닐타일, 벽 : 디채무늬도료 + 수성페인트
주요설비	F.C.U 냉난방
인테리어	민원실- 신건미 의장
구 조	(주) O.S 구조 엔지니어링
설 비	시재 설비
전 기	(주) 한국 나이스 기술단
조 경	(주) 부산 환경
도 목	대우 토목
설계기간	1999.7.22 ~ 1999.10.9
공사기간	1999.12 ~ 2001.3
설계참여	이홍식, 최성룡, 선우식
사 전	건축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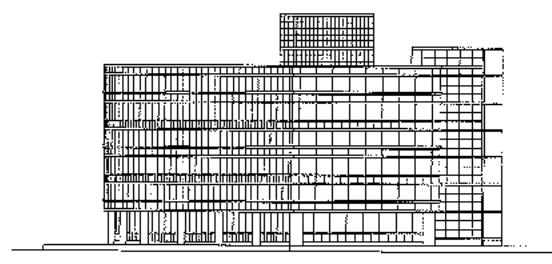


동래 부도심에서 북쪽으로 약 3km 지점에 35m 폭의 동래대로와 부곡동 길의 교차점 인근에 위치한 금정 세무서는 옛길과 현대의 길의 만남에서 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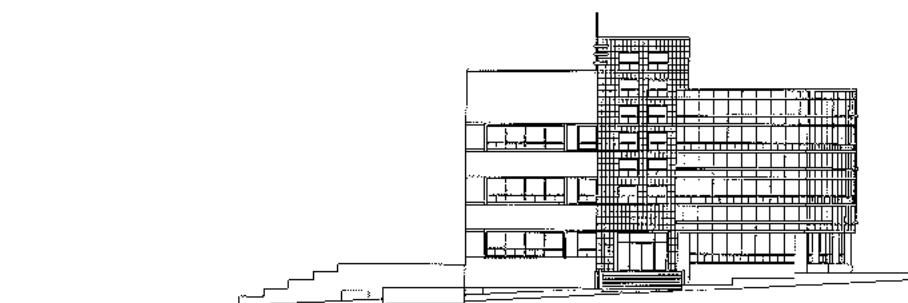
부곡동의 이 옛길은 주거문화의 영역임과 동시에 부산 대학교라는 교육매체로 인해 발생한 소비문화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또한, 부산의 행정 자치구역의 확대로 계획된 동래 대로는 현재의 부산이라는 메트로 폴리스가 시작되었던 발상지가 동래였음을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이 옛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연장선상위에 관공서가 지나는 공공성의 건축물로 표현된다.

인접 도로의 확장으로 인한 대지의 불규칙한 사선은 공간의 유도와 배치를 위해 적극 사용되며, 이는 건축물 내에서도 적극 반영되며 오히려 직사 광선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된 루버는 관공서로서의 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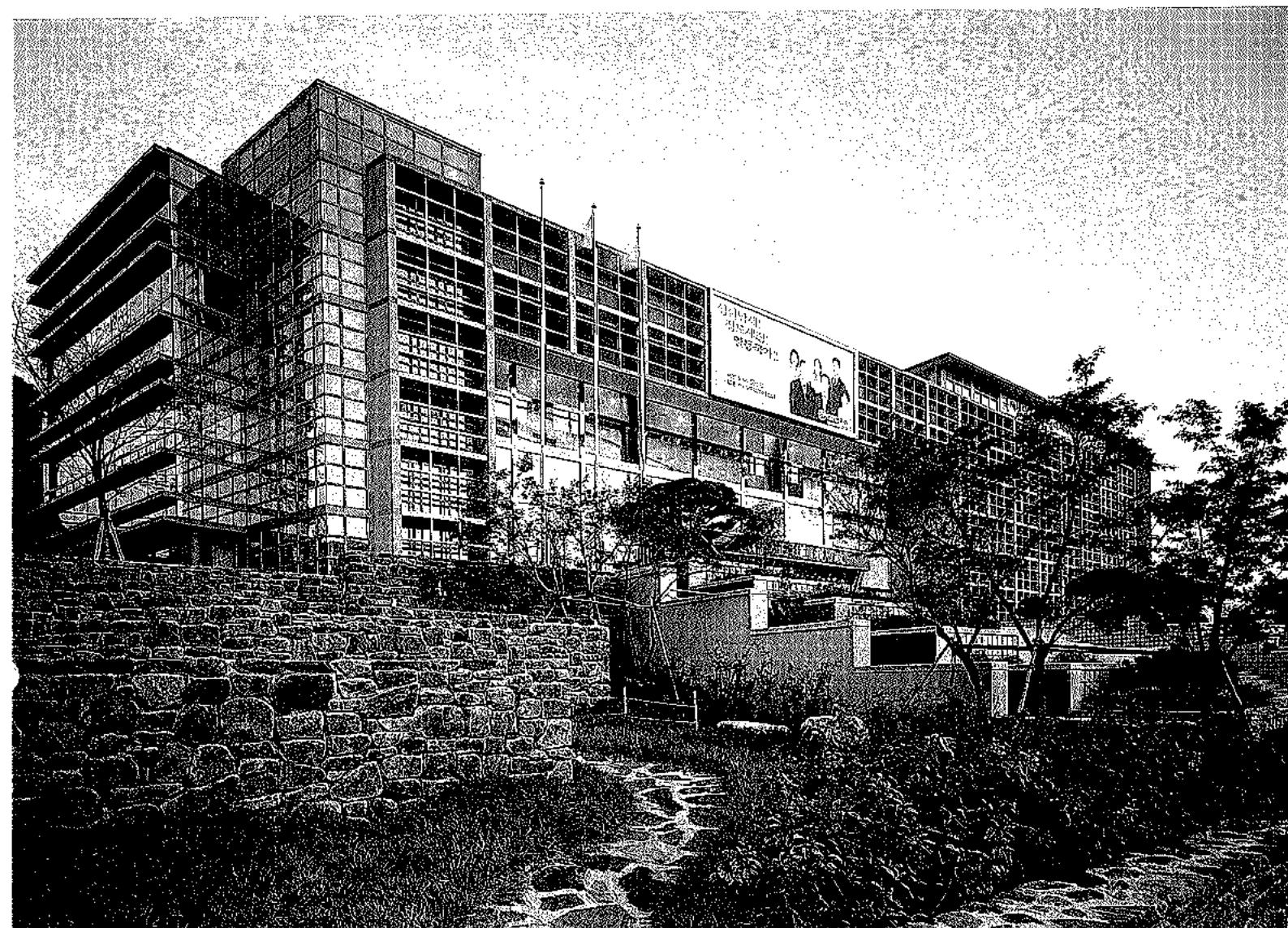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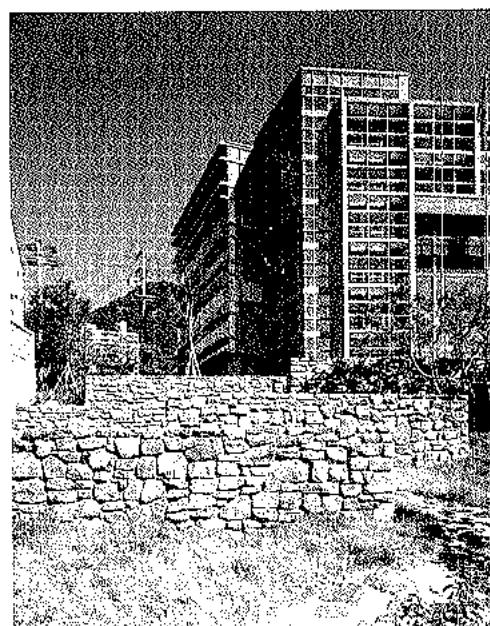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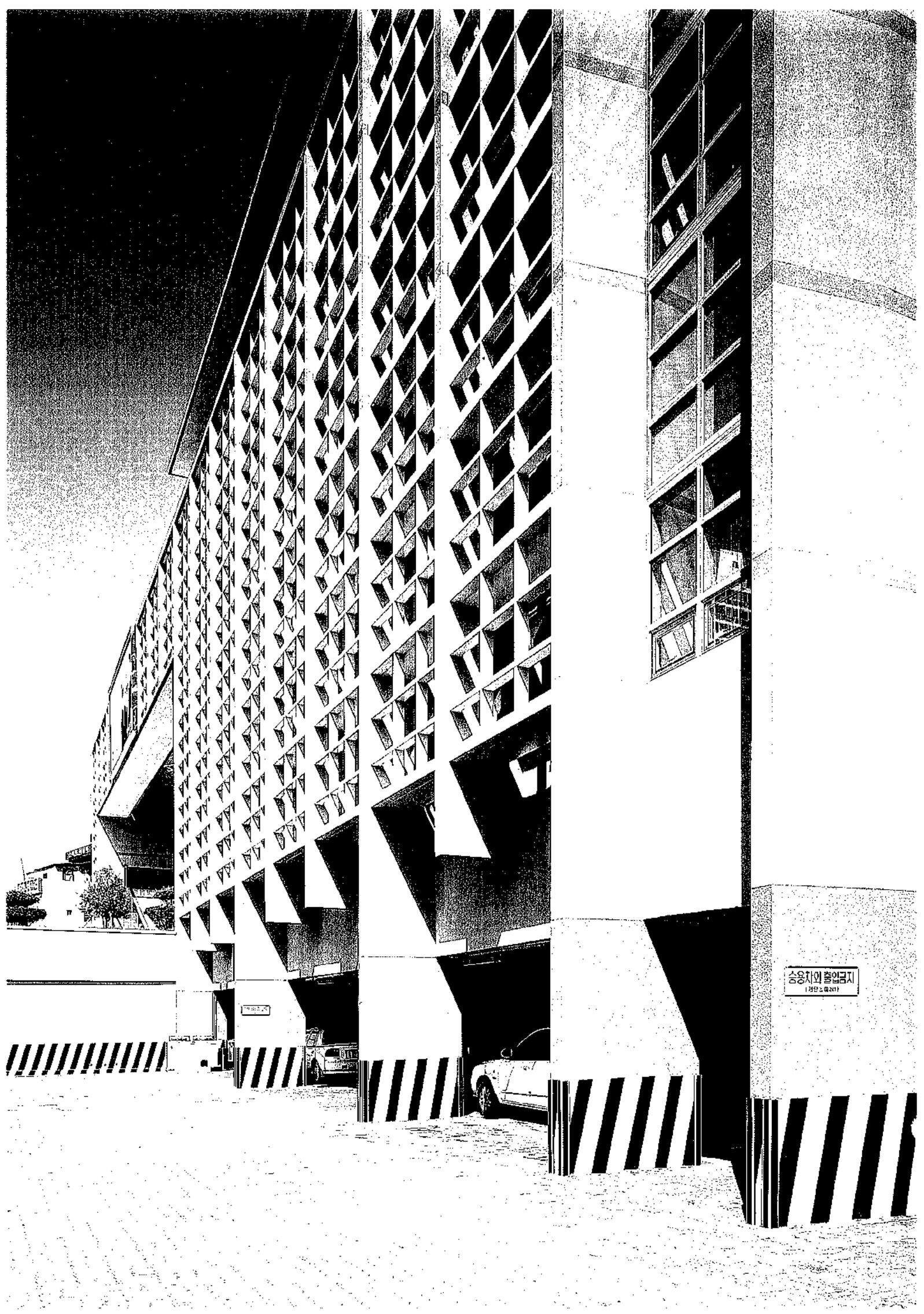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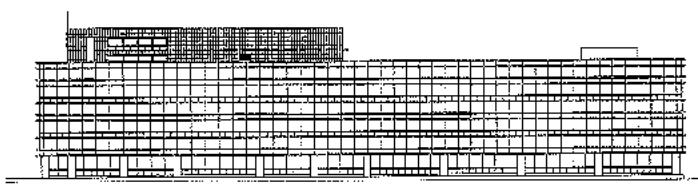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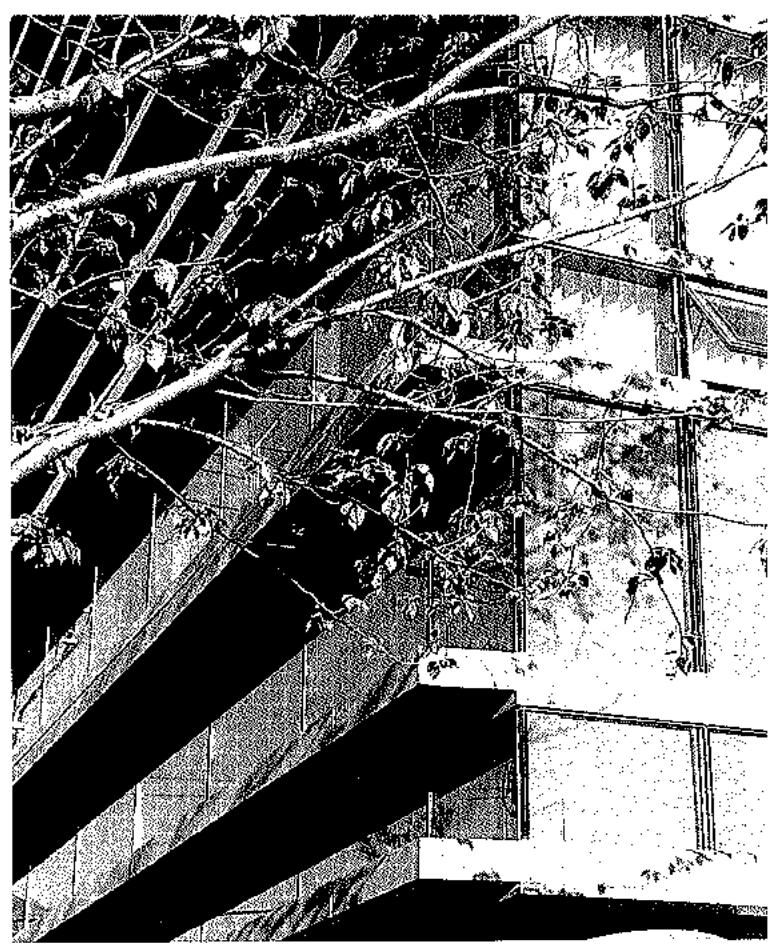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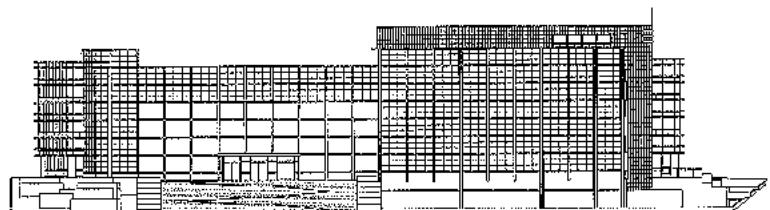
마크적 이미지로 강한 인상을 풍기며 정돈된 grid는 위계와 질서를 부여한다. 또한 전면광장의 open space 제공은 공공의 청사로서 이미지 제고와 함께 도심의 숨통으로써 역할도 하게 된다. 젊은이들의 소비문화 거리 그리고 주택단지의 중간에 위치한 금정 세무서는 관공서가 가지는 독자성이 주변환경이 가지는 주거와 소비의 문화 속에 흡수되어 중성공간으로 변화한다. 즉, 문화의 탈 행위에서 문화를 공유함에 의한 시간성을 금정 세무서는 가지게 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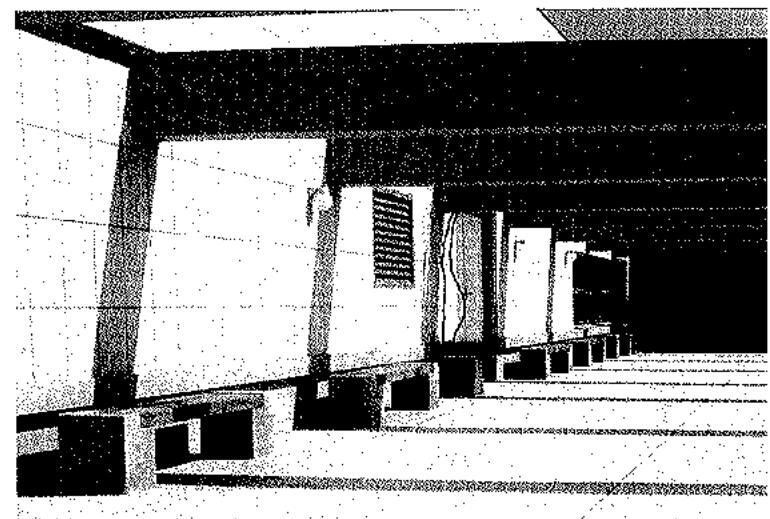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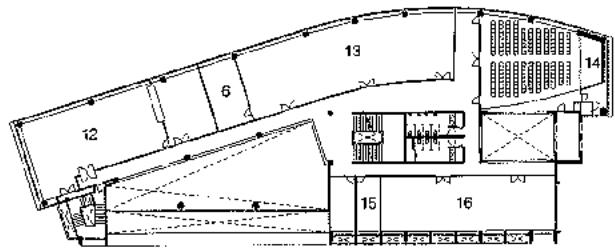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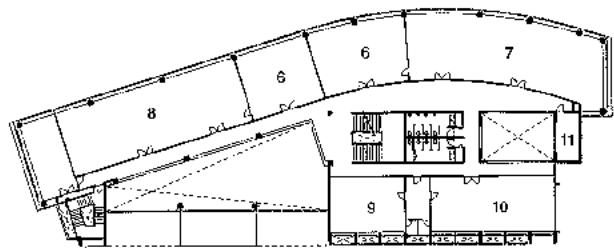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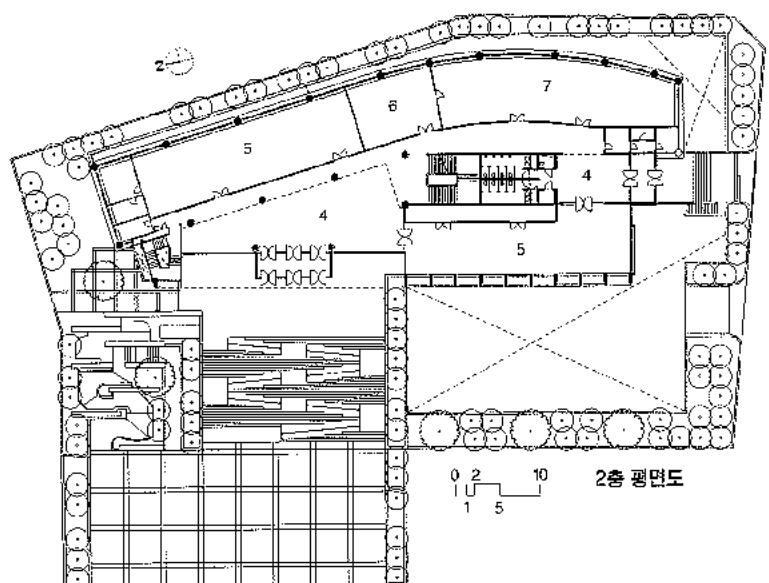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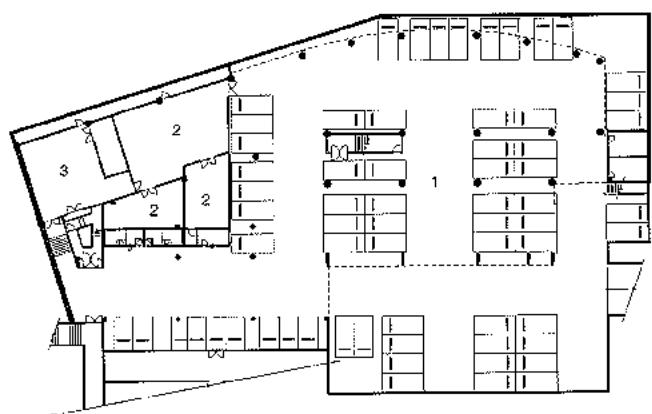


3층 평면도

- 1. 주차장
- 2. 기계실
- 3. 전기실
- 4. 문비
- 5. 남세시원과
- 6. 문서고
- 7. 세원관리과
- 8. 칭세과
- 9. 서정실
- 10. 소회의실
- 11. 축제실
- 12. 식당
- 13. 조사과
- 14. 대회의실
- 15. 조사실
- 16. 종양서고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D천주교회

D Catholic Church

이충기 / (주)한메건축사사무소
by Lee Chung-Ki



노트를 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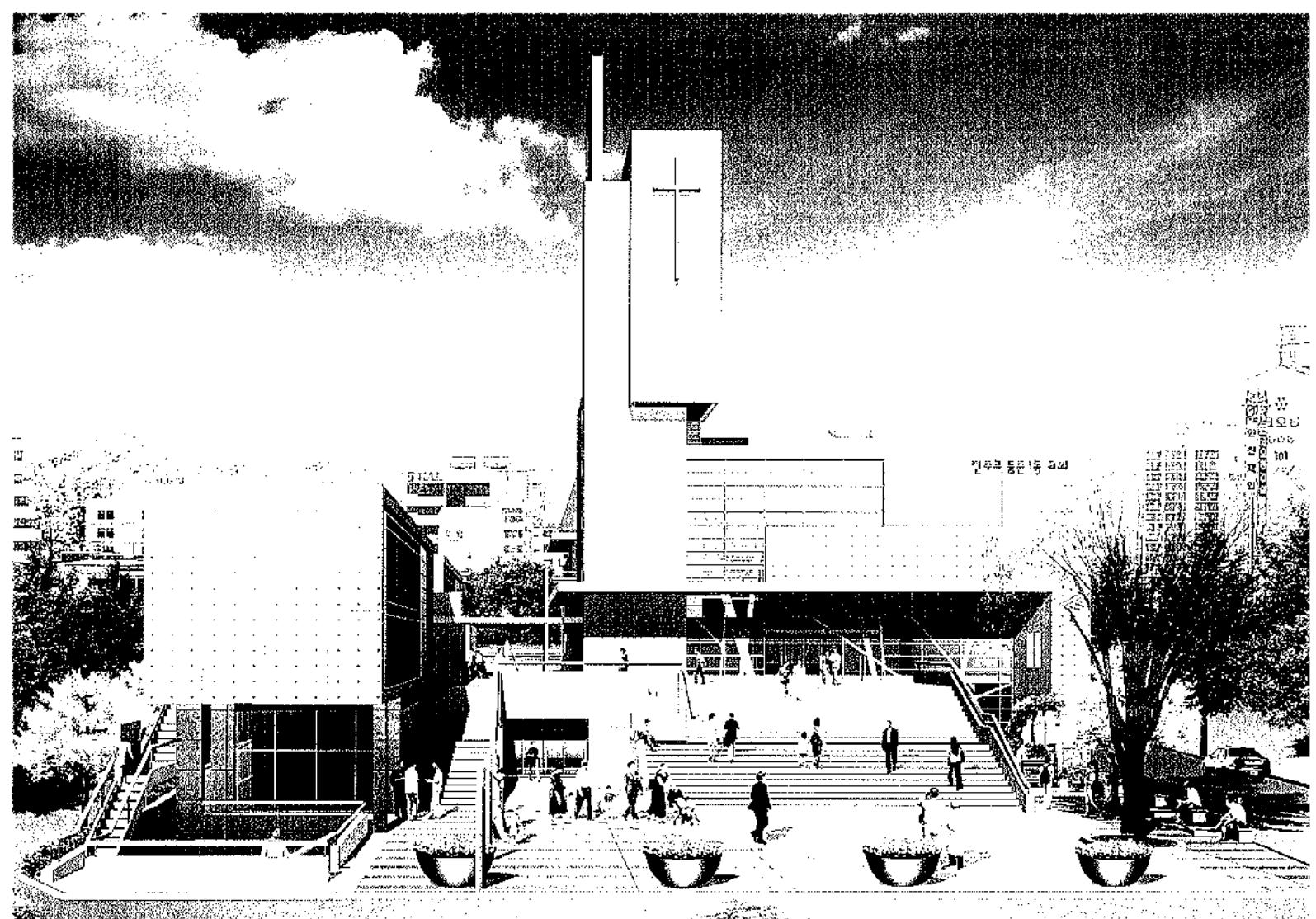
짜고 치는 고스톱을 잘 모르는, 평소 일 관계로 잘 알고 지내던 ㄚ모씨(세례명이 바오로라 했던가? 그는 참으로 인간적이고 솔직하며, 일밖에 모르는 분이다.)에게서 전화가 왔다. 자기가 다니는 성당을 헐고 새로 짓는 일이 준비 중이라고.

그러면서 성당 신축설계를 설계경기로 진행하되 준비위원들의 추천으로 5개사 정도를 지명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무실을 정해놓고 다른 사무실들은 둘러리로 참여시켜 형식상 공정했다는 소리를 듣기위해, 그래서 투명성을 포장하기 위해 설계경기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터라 좀 내키지 않는 투의 반응을 보였더니 그 분 말씀이 큰 사무실은 제외하고 10명에서 15명 사이 규모의 설계사무실들을 추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대형사무실을 지명해 봐야 결국 10명 정도 되는 한 팀에서 추진할 테고 설계비도 많이 요구할 것이니 종소형 규모의 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의견

을 모았다고 했단다. 짜고 치는 고스톱에서 둘러리 서는 역할을 하기 싫은 마음을 누르고 성당, 종교건축 설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시작했다.

Portfolio를 제출하면 그 중에서 5개 회사를 지명하여 연락이 갈 것이라고 하여 부랴부랴 기존 Portfolio를 보강하여 제출하고 기다렸다. 궁금함을 참지 못해 며칠 후 ㄚ모씨에게 연락해 보았더니 자기가 보기에는 우리 회사가 5개 안에 무난히 들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일주일 후 추진위원장이 통보한 내용은 탈락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았더니 성당 층에서 중소규모 사무실이 불안했던지 첫 자만 대면 다 알만한 수백명 규모의 대형 설계사무실을 지명하여 요청을 했던 모양이었다. 역시나 하는 마음뿐이었다. 허탈한 심정이 여기서 그치면 이 뒤의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몇 주 후 성당 층 추진위원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다시 기회를 주면 응모할 수 있느냐고? 망설인 끝에 가능하고 했더니 3주 후에 안을 제출하라고 하기에 왜 다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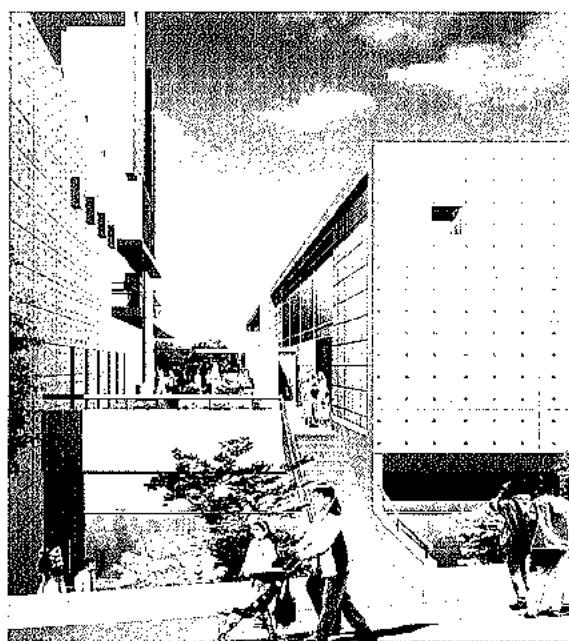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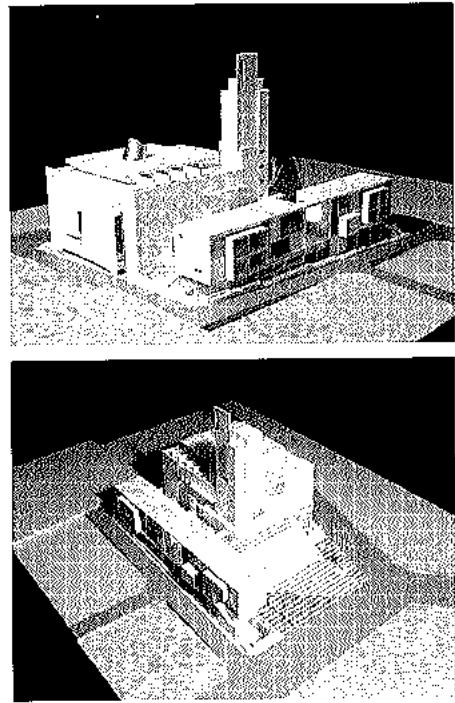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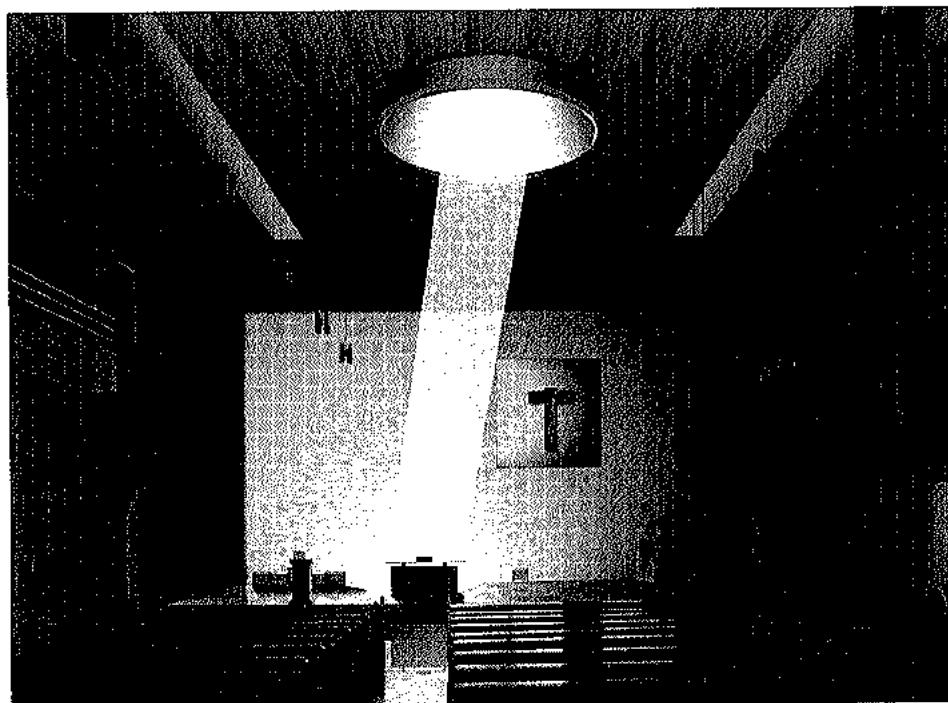
명을 하나고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사정이 생겼다고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Y모씨에게 전화를 해 사정을 알아 보았더니 대형 설계사무실 3군데에서 규모도 크지 않고 설계비가 많지 않아 안을 제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추가로 3군데를 지명했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더욱 놀랄 일은 1000평 정도의 규모에 설계비 1억 정도 되는 현상설계에 “자” 같은 대형 설계사무실이 제출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렇게 해서 어렵게 처음으로 성당 설계를 해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느티나무에 물이 오를때 현장 답사를 갔다. 대지 주변은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 4m, 6m, 8m, 10m의 좁은 도로로 둘러싸인 island 같은 상황이었고 전면과 후면의 2.5M 정도 Level 차이가 있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큰 도로에서의 주 진입로가 강한 시선축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축선상에 기존 성당마당의 느티나무가 봄같지 않게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2000년 태풍에 쓰러진 것을 다시 심어 큰 덩치에 비해 잎사귀는 듬성

듬성한 것이 마치 가을 같았다. 좁은 마당 한가운데에서 어린이들이 맵들며 놀고 있었고, 나는 이 성당의 역사를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그 느티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적었다.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

사람의 때가 묻어 있고 시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내가 이 아득하고 정겨운 모습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중요한 실마리가 뛸 아득한 마당의 이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 한없는 상념에 잠겨 있었다.

대지 주변의 열악한 환경은 이미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 곳이 곧 아파트 숲이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케 했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새로 지은 성당건물은 도로를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게 될 것이 아닌가?

답사 후 대지로부터 얻은 Design의 실마리는 느티나무와 아파트 숲을 비집고도 보여주어야 할 것, 시선적 표현, 즉 종탑 그리고 Level 차, 이웃에 제공되어야 할 열린 공간 등이었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추억 그리고 매개체”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추억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터에 새로운 교회가 들어서면 사람들은 기난하고, 소박하고 겸소한 지금의 모습을 기억하고 추억할 것이며, 그 추억의 매개체(a vehicle of retrospection)는 마당과 마당에 있는 저 부활을 꿈꾸는 느티나무(Zelkova)가 될 것이다.
그 느티나무 주변에는 항상 그늘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들이 만드는 풍경, 즉 순간적 행위, 사건/시뮬라크르(Simulacre)가 존재 할

것이며, 그것은 추억을 둡는 또 하나의 추억이 될 것이다.

이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규정, 기존 사례 등을 참고하여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틀을 잡았다. 대성당과 사제관을 분리하고 그 사이를 중정으로 계획하여 Privacy를 고려하였고, 진입마당에서 2층 대성당으로 연결되는 큰 계단을 설치하여 대규모 옥외집회도 가능한 열린 교회를 제안하였다. 공간적 경계는 있을지언정 시각적 경계는 없앰으로써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테면 외부공간은 쓰다 남은 자투리가 아니라 내부의 기능을 가진 공간과 같은 가치를 지니는 등가요소가 되도록 하였다.

대성당에서는 제대와 감실을 이루는 성단과 그 중에서 독경대, 해설대, 사제석, 성모상, 십자가 등의 위치와 성수대, 종의 위치가 관심의 대상이었고, 고해실의 위치와 동선, 영성체를 고려한 동선계획 등이 고려해야 할 주안점이 되었다. 그리고 사제관과 수녀원에서 특히 사제관의 식복사 공간과 사제식당, 숙소공간에서 주임신부와 신부의 위계, 수녀원에서의 상담실의 위치, 숙소에서의 옥실계획 등은 즐겁고 재미있는 작업들이었다.

그렇게 Design 하고 빔샘으로 작업하여 Panel 2장, 모형, 조감도를 제출하던 그날 나는 작업노트에 또 이렇게 적었다.

“종탑 그리고 시선적 투흔”

종탑은 땅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느티나무의 그림자이다. 마치 교회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혹은 믿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느티나무의 Image로 치환된다.

그리고 진입로와 느티나무를 연결하는 축의 연장선상에 배치되어 진입로에서의 강한 시선축을 형성할 것이며, 진입마당과 느티나무와 함께 교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 종탑은 주변의 어느 위치에서도 시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높이를 가진 하나님의 Land mark가 될 것이며, 고층 아파트들이 에워싸고 위험 하더라도 끌하지 않고, 그 틈을 비집고 얼굴을 내미는 투흔을 발휘할 것이다.

노트를 닫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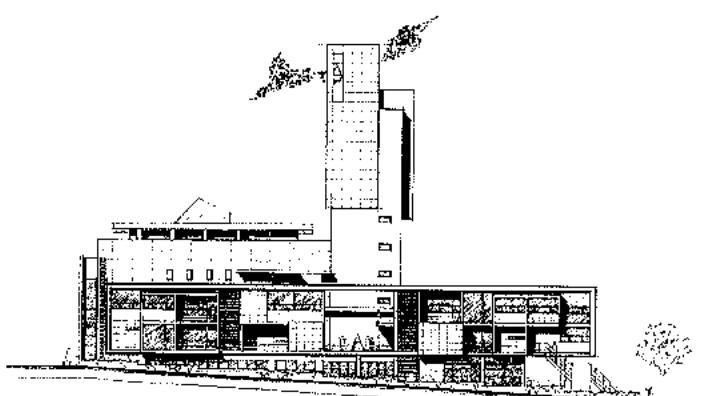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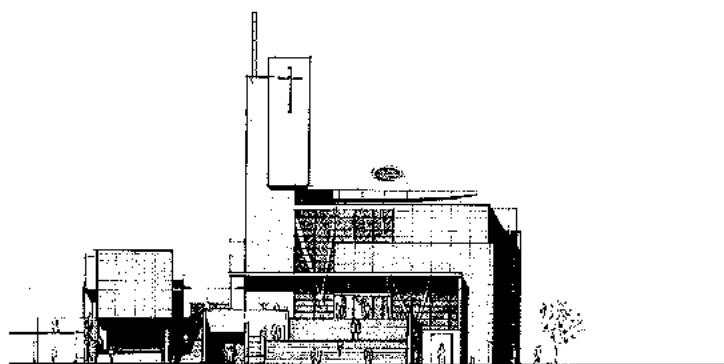
노트 안에 담긴 나의 생각들이 몹시 답답해 할 것 같다.

아제 그 작업 노트를 다시 펼 기회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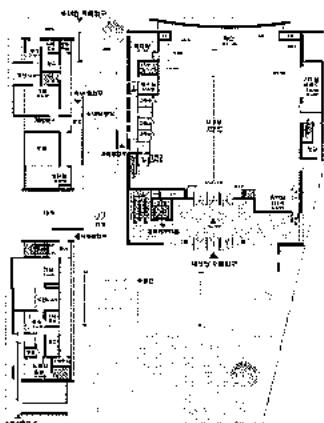
나는 기다릴 뿐이다. 언젠가 또 우리에 나의 생각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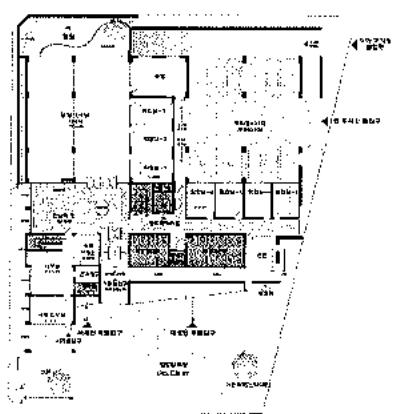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6-48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대지면적	2,101.10m ² (635.58평)
건축면적	1,221.51m ² (369.51평)
연 면 적	3,214.60m ² (972.41평)
건 폐 율	58.14%(법정 60%)
용 적 률	103.64%(법정 400%)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 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외장재료	노출 콘크리트 + 샌드스톤 + 24mm컬러복층유리 + 목재패널
주차계획	계획 - 31대(장애인 주차 2대 포함) 법정 27대
조경계획	계획 - 366.00m ² (16%) 법정 - 315.17m ² (15%)
설 계 팀	이종기, 도성열, 서유찬, 이정륜, 남기중, 조성완, 이상복, 김은아
모 형	정지광, 이동복



스케치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구단위계획이 아파트설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Urban District Planning on Apartment Building Designs

윤혁경 /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관리팀장
by Youn Hyuk-Kyung

1. 주택공급에서 도시관리정책으로의 전환

공동주택 건축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파트지구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으로, 재개발지구는 재개발기본계획으로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재건축이나 민간아파트의 경우는 현행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적합하다면 다른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밀·난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주택 200만호공급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입지심이나 사전 결정제가 폐지되고, 15층 이하의 건축심의제가 폐지되는 등의 규제완화가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사회적인 consensus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컨트롤수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을 때, 마침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입된 지구단위계획제도를 손쉽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그 동안 서울시는 「공동주택 지표적 심의기준」을 제정하고(96.10),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허용조정(98. 4:400%→300%, '00.7 제1종내지 제3종으로 세분 : 최대 250% 이하)하였으며,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위한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98.10:입지별 여건에 따라 허용 용적률 180%, 200%, 220% 이하로 결정)하는 등 꾸준히 문제해결을 위한 시책이 강구되었지만 그것만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선택한 서울시의 입장은 단호한 편이다. 건축법·도시계획법·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구체적인 컨트롤 수단을 만들기 전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가칭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 재건축 예상지를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때에는 굳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주거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되기까지는 적어도 3~5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88년 발표한 「주택 200만호 건립정책」으로 주택보급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섰고(‘80년도 71.2%이던 보급율이 2000년도는 94.8%, 그리고 2002년에는 100%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서울의 경우는 2000년말 현재 72.0%로서 다소 부족한 실정이지만 보급율에 포함되지 않는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을 포함하면 90.8%), 종래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국토·도시관리 정책으로 선취한 정부정책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도시계획법의 정신과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의 관계

일단 고층·과밀 개발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되, 도시계획법의 기본정신인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친화적인 개발」의지가 반영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다들 공감했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친화적인 개발」에 대한 해석을 사람마다 달리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빈곤과 미개발, 환경파괴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현세대의 개발이 미래세대의 복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며, 「환경친화적인 개발」이란 생태계 수용능력의 한계에서 정주지를 개발함으로 자연과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예방하고,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종래의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의 자속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만들면서 이러한 정신을 액면 그대로 지표로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제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갖는 제도일지라도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이상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현실과 이상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개발패턴을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가급적 지표화하여 객관화 할 수 있는 부분만 반영하기로 하였다.

3. 지침에서 다루어야 할 범위

지침을 수립하면서 과연 무엇을 담을 것인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것은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과욕일 뿐이기 때문이다.

일단 지침에 담을 내용을 최소한으로 정하

기로 하였다. 최소의 규제를 통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컨트롤 수단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칙」,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건축심의에 관한 규칙」 등을 살펴보고, 여기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도시컨트롤 효과가 높은 몇 가지의 요소를 선정하였다.

지침 작성시 지표화할 수 있는 것은 지표적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화시키고, 지표화가 어려운 것은 그 해석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단순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기로 하였다. 분명하지 않은 내용은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과 경직된 운영으로 적지 않은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일단 이러한 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자에게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심의하는 자(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게는 심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으리라 본다.

4. 지침의 적용대상

건립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대지면적 1만m²이상인 재건축인 경우, 속칭 「나홀로 아파트」(건립예정지로부터 200m이내에 4층 이하가 70%이상인 경우), 준공업지역안의 공장이적지와 군부대·학교 등 대규모 이적지안에 건립하는 아파트는 동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나홀로 아파트에 해당하면서 건립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으로서 대지면적 1만m² 미만인 재건축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계획을 한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승인을 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줄임으로 민원도 해소하고, 도시컨트롤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 ① 용적률 250%이하(입지별로 차등 적용),
- ② 층수 15층 이하(입지별로 차등 적용), ③ 진입도로 6m 이상(입지별로 차등 적용), ④ 입면적 제한(2,000m²이하, 2,500m²이하)

5. 지침의 중요 내용

지침을 만들면서 동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할 때 과연 아파트단지의 배치나 입면·평면형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가 숙제였다. 종래의 남향·판상형 패턴이 계속

직으로 유지될 것인지, 개발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주민부담금의 증가를 설계에서 얼마나 만회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기 위해 설계의 패턴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몹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등 지침을 마련하면서 몇 가지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접근하였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1.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은 286.77㎢로 시가지면적(그린벨트 166.82㎢)을 제외한 면적 439.1㎢의 65.3%를 차지할 정도로 넓은 면적이다. 서울시는 2003. 6 까지는 이를 세분화(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하기 위하여 '01. 6. 20 매뉴얼을 발표한 바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반드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도록 건교부에서 제정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 하여야 한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세분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용도지역 세분화 기준 (서울시 기준)

구분	세분화 기준	대상지	충수	용적률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릉지 및 경사지의 주택지 • 개발제한, 공원, 녹지 인접지 • 역사문화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4층 이하	150% 이하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가 요구되는 주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인접지 • 저층 중심의 주택지 •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요구가 있는 곳 		
	도시계획적 규제와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고 도고지구(4층, 15m) • 자연경관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등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평지, 중저층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학보가 필요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 • 중/저층 공동주택 밀집지 	7층 이하	200% 이하
	역세권 인접지역으로 중/저층 주택의 주거환경 확보가 필요 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세권 인접지 • 역세권 지역 중 이면도로변 주택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제1종과 제3종 입지특성의 일반주택지	-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교통환경이 양호한 주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변 또는 역세권동에 고층/고밀화된 지역 • 토지이용의 효율적 증진이 필요한 지역 	250% 이하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한 타운 도시역과의 원총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준주거지역 인접지역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토지이 용의 변화가 예상되는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기반시설 개선화 연계한 계획적 개발지역 		

5.2. 단지 안과 단지 밖의 조화로운 설계

지금까지의 설계는 대부분 단지안에서의 배치와 평면계획에만 충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도 단지의 동선 흐름이나 공개공지 등 열린 공간의 조성보다는 건축물의 평면에 더 중점을 두어왔다고 할 수 있다. 남향으로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에 따라 분양성이 결정될 정도였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단지와 그 외부가 만나는 지점, 그리고 외부로 향한 내부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용적률의 허향조정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변 도시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면 개발 그레인을 줄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단지 내부의 양보를 통해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주민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주변의 경관과 환경을 감안하고, 적절히 조화를 이루기를 원한다. 이 또한 단지 내부의 양보로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무작정 양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할 동기(경제적인 이유이거나 주거생활 개선의 이유 등)를 엊어버릴 정도의 양보를 요구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두 접점을 여하히 잘 찾아내는 건축기가 유능한 건축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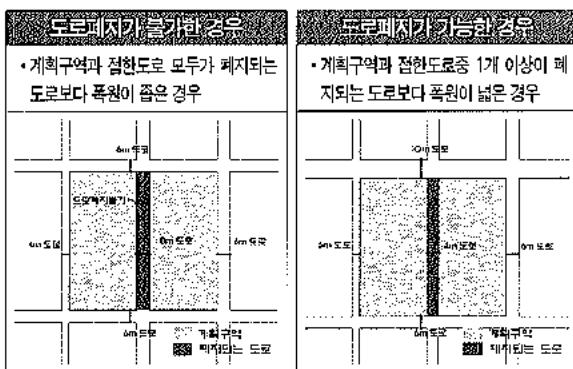
① 도시기반시설과의 관계

재건축(기존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과 단독주택지를 합필하여 아파트로 건축하는 소위 「나홀로 아파트」와는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 주변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은 이미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증가와 규모증가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하겠지만 단독주택지를 아파트로 건립하는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리라 본다. 더구나 주변 주민들도 기존의 공동주택이 재건축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 새로운 건축 행위시 발생하는 민원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차등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단독주택지를 합필하여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할 경우 필지합필로 인한 주변 도로가 폐도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기존 가구형태를 변경시켜 보행 및 교통동선의 변화를 초래하고, 주변 건축물의 규모와 상당히 부조화되는 건축물이 입지함으로 일조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 정도가 재건축의 경우보다 훨씬 더할 것이기 때문에 폐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❶ 원칙적으로 폐도되는 도로의 너비가 주변 도로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는 폐도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보행과 차량의 주요 동선이 차단됨으로 입는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도로폐지기준



❷ 폐도가 허용되더라도 그 부분을 모두 주택용지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공익적 차원에서 비람직하지 않다. 도로가 축소되는 만큼 주변지역의 불편도 기증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보상차원에서 폐도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로로 제공되거나 다른 공공의 용도(공원·녹지·공용의 청사부지 등)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 폐도면적의 공공용지 제공비율

폐도되는 도로폭	공공용지 확보비율	비 고
4m미만	-	
4m~6m미만	폐도 면적의 50% 이상	
6m이상	폐도 면적의 100%	

일반 주택지를 합필 개발할 경우 가구의 형태를 변경하는 대규모 건축은 기존 도시구조를 바꾸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초 건립된 아파트 단지는 그 주변을 급격히 변화시키며, 이는 지역적인 도미노현상으로 이어진다. 현재 서울시의 아파트가 주거형태의 44%를 차지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지가 언제가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지 않다. 그래서 가구(블럭)의 형태를 바꾸는 대형합필 개발은 가급적 억제하되, 밀도(용적률, 세대 등)를 낮추거나 도시기반시설 등 공공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 허용하기로 하였다.

❸ 서울의 일반적인 가구 평균면적을 6,000㎡로 잡고 그 면적의 1.5배 이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1.5배를 넘고 3배 범위안에서는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도록 조건을 부이며, 3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발밀도를 최소로 낮춘다면 이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②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대지면적이 3만㎡ 이상인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일정면적의 공원을 확보하여 인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대부분 지금까지의 아파트는 단지 내부에 공원(또는 조경공간)을 확보하여 외부와의 단절을 피하는 경향이었다면, 앞으로는 단지외곽에 일정면적 이상의 공원을 확보하게 함으로 녹자공간과 만남공간을 제공하여 환경과 지역공동체를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재개발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3만㎡ 이상인 주택단지인 경우 대지면적의 5%와 세대당 2㎡ 중 큰 면적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최소 1,500㎡ 이상이 되어야 하며, 1,500㎡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면적만큼의 공개공지(조성면적의 1/2만 인정)를 조성하는 것으로 인정하게 하고 있다.

이 때 확보되는 공원(공개공지 포함) 조성 계획은 건축가의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같은 면적이라도 그 기여도를 높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5.3. 남향·판상형에서 다양한 형태로의 설계

지침의 각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를 할 경우 종전의 「거실+2방」의 남향배치를 고집할 경우 허용되는 용적률을 다 찾기 어렵다. 남향 판상형에서 탈피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주상복합 건축물의 탑상형(물론 세대면적이 크다는 점에 있어서 설계가 다소 자유롭지만)은 가능하고, 일반 아파트단지에서의 탑상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대지경계선 부근(12층 이하부분은 6m건축 한계선을 지키고, 13층 이상부분은 그 높이의 1/4을 이격하도록 한 규정)과 6m이하 도로변 경계선(도로 경계선에서 그 건축물 높이의 1/4이격)에서는 낮은 건축물을, 단지 중앙부에는 높은 건축물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탑상형이나 올림픽 아파트처럼 계단식 건축물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정남향 배치에서 현재의 인동간격을 1배를 고수할 경우 등지일 기준으로 북쪽의 아파트는 그 높이의 1/3이 영구음영이라는 사실을 과연 입주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굳이 남향을 고집하는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① 인접지 환경을 고려한 계획

건축규제개혁이 일환으로 아파트와 인접지 간 최소 6m 이상 이격하도록 한 규정이 '99. 5. 8 삭제됨'과 동시에 1m도 띄우지 않고 20층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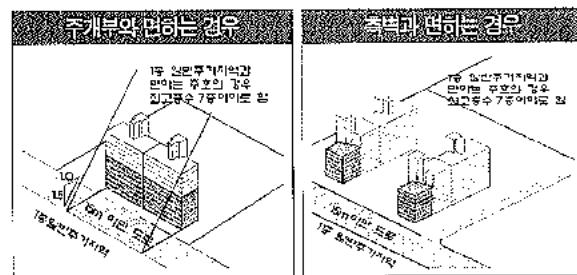
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주변환경이나 입장보다는 개발이익을 우선시한 현상으로 건축가의 양심이나 아파트시장의 자율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아 강제 규정을 두기로 하였다.

주변을 배려함으로 기존 주거질서를 유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정신의 하나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 건립되는 주변지역이 만약 1종 전용주거지역(2층, 8m 이하)과 1종 일반주거지역(4층 이하)이라면 그에 직접 면한 아파트의 높이는 7층 이하로 건립하여야 한다. 이는 강력한 규제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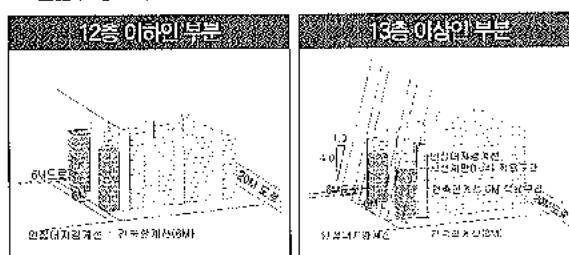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주개구부와 직접 면하는 부분은 해당부분의 전체를, 측벽이 면하는 경우는 측벽 1개측만 7층으로 건립하여야 한다.

◇ 절대높이제한 적용예시



● 체광방향으로는 일조 기준에 의해 그 높이의 1/20이상을 띠우고, 측벽인 경우는 종전 건축법에서 규정하던 것처럼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최소 6m 이상을 띠우도록 하고, 13층을 넘는 부분부터는 그 높이의 1/40이상 띠워야 한다.

◇ 연접부 경관처리기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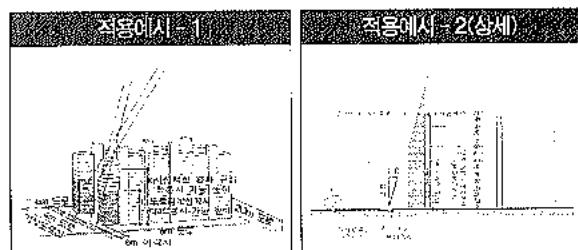


● 단지에 여러 도로가 접한 경우 좁은 도로 일자라도 가장 넓은 도로로 본다는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소규모 도로를 사이에 둔 각각의 단지중 한쪽은 그 단지가 접한 가장 넓은 도로로 보아 높이 올라가고, 나머지 마주보는 단지는 소규모 도로에 의한 높이를 제한 받을 경우 소규

모도로변의 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래서 6m이하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도로경계선에서 떨어진 거리의 4배 이하로 건축하던가, 가장 넓은 도로에 의한 1.5배의 높이중 적은 높이를 기준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6m를 초과하는 도로는 건축법령에 의한 가장 넓은 도로로 인정할 수 있게 하였다.

◇ 도로폭에 따른 적용예시



5.4. 살아있는 가로공간을 위한 설계

답장으로 폐쇄된 공간배치가 현재 전형적인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다. 보도와 아파트 사이를 버려 둔 공간으로 되어 가로의 활력이 없는 실정이다. 살아있는 가로를 공동주택 단지가 만들어 주거를 바리는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 심의회에서 제시된 건축가의 아이디어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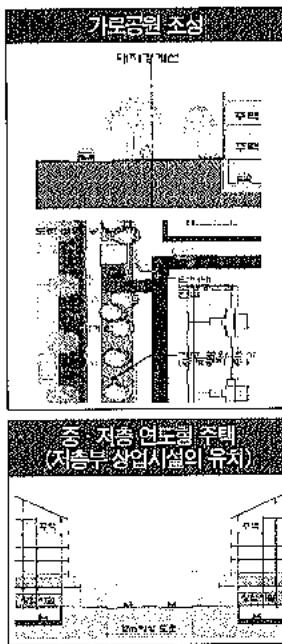
가령 가로를 따라 1, 2층은 상가로 조성한다면 아니면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는 방법 등 가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지는 않았다. 건축가의 고민을 통해 더 좋은 계획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컷기 때문이었다. 흥미로운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어짜피 건축가는 자신의 계획안으로 지구단위계획 심의위원회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리라 본다. 그러나 당장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경험에 없기 때문에 설계자나 사업자(입주자) 모두가 어색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곧 익숙해지리라 본다.

5.5.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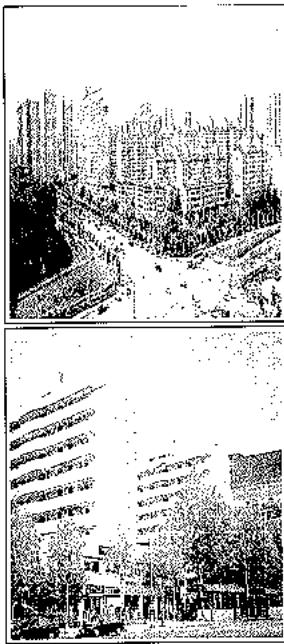
서울의 주요 산과 강은 어느 도시에서도 찾기 어려운 귀중한 자연자산이다. 그러나 이를 마구 훼손하고, 조망을 차단하는 일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주택공급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훼손은 불가피한 것으로 봄 시장적인 인정을 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러다가 우리는 남산에 위치한 외인 아파트를 폭파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서 의문을 갖게 된다.

◇ 가로경관 향상계획 사례예시



◇ 가로경관 계획예시



무엇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 이를 폭파하고(94. 11), TV중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인가? 이벤트인가? 헤프닝인가?

해답은 서울시의 도시경관에 대한 가시적인 의지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필요가 있다. 그 사건이 후 경관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함께 시책 또한 경관과 환경을 고려한 내용이 적지 않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일단 경관에 대한 심의기준은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이를 지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서울이라는 광범위한 지역을 특정한 하나의 시각으로 경관을 정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지침에서는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할 대상범위만 정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건축가의 손에 맞기기로 하였다. 지구단위계획심의위원회(市도시계획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또 대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완벽한 해결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공익의 침해정도와 개발이익의 침해정도를 비교하여 적절한 선에서 양보와 타협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물론 그 중간에 선 건축가의 입장은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다. 사업주(건축주)를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위원들을 이해시키도록 하는 일은 더욱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경관에 대한 구체적 심의기준 없이 매스모델이나 합성사진만으로 계획가의 의도를 심의위원들이 얼마나 납득할 것이며, 또 심의과정에서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객관성을 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표를 만들어 획일화된 경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라 판단하여 심의기준을 개광화 시키지 아니하였다.

① 매스모델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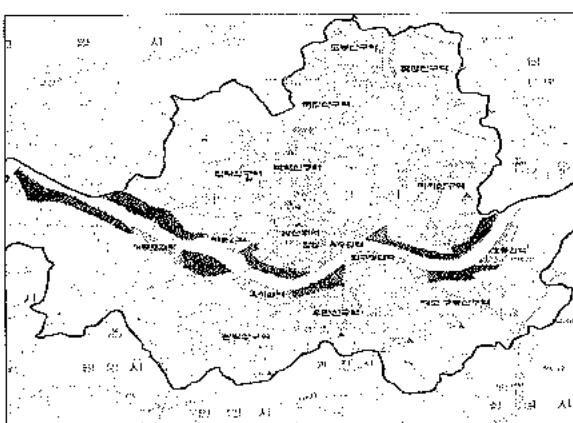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매스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매스모델을 만드는 그 범위는 검토구역(공동주택 건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로서 별도 기준에서 따로 정하고 있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매스모델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을 필요 이상 들이지 못하게 흰색 스틱로풀로 채색을 하지 않도록 하며, 주요건축물 위주로 작성하고, 단독주택 등 총수가 동일한 기타 건축물은 개념적으로만 표현하게 하였다.

② 합성사진 만들기

북한산·남산 등 11개의 주요 산이나 한강변 주변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 주요 조망대상과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사진합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대상은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공동주택건축심의에관한규칙”, “한강연접지역경관관리방안연구”, “조망가로조성기본계획” 등에서 언급된 주요 조망대상을 선정하였다. 다음 그림의 색상부분만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건축할 경우 합성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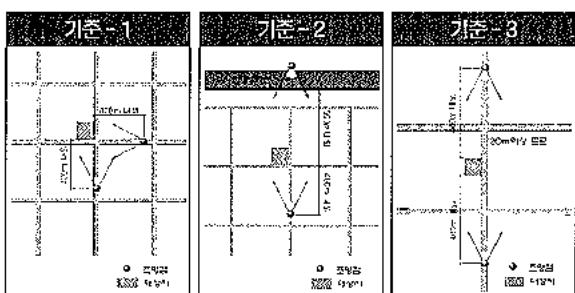
◇ 조망대상별 권역예시도



사진합성을 함에 있어 사진촬영 지점이 중요하다. 어느 한쪽이 유리하게 촬영지점을 선정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중경(中景)의 경우 계획구역 경계로부터 약 400~800m를, 원경(遠景)의 경우에는 800m이상의 거리에서 조망점을 선정한다. 건축기가 조망점을 선정함에 있어 그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 조망점 선정기준



◇ 사진합성 작성사례



5.6. 환경성 검토

모든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00. 1. 28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환경에 대한 보편적인 국민의식의 변화가 법령에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환경성이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다소 개념적인 요소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 또 한 이를 구체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다. 왜냐하면 아직 검증된 기초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다보면 코끼리를 그리려다 강아지를 그리게 되는 우를 범할지도 모른다.

일단 서울시에서는 '01. 3에 「도시계획환경성검토업무지침」을 발표하였다. 사례중심으로 설명되어 알기쉽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처음 이를 작성해야 하는 사람으로서는 당혹스러울 것이다. 원칙적으로 환경성 검토는 도시계획입안권자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선 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중에서 이를 작성할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 용역전문가의 힘을 빌어 환경성을 검토할 것이다.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계획임으로 반드시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도 예외일 수가 없다.

환경성검토 지침중 계획구역의 특성과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고, 환경성 검토지침의 내용에 따라 기본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수 항목과 지구단위계획서 세부 검토가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여 지침 적용의 객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대개 다음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성 검토 항목

구분	내 용	주 요 내 용		지침 적용
		자연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기본 검토 항목	• 지구단위계획작성시 1 차적으로 검토가 필요 한 항목 (관계전문가의 도움없이 비교적 쉽게 검토할 수 있는 항목)	토양포장, 우수 유출,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녹지변동, 폭지체계, 습지보전, 비오류변화	환경오염 대책 (폐기물처리등) 기존수목의 보존 및 이식	규제적 지침으로 적용
세부 검토 항목	• 세부검토가 필요한 항목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한 항목)	습지보전, 우수 유출	동/식물, 소음, 일조, 에너지, 비람	유도적 지침으로 적용

6. 공동주택 건립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에 거는 기대

과연 공동주택까지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컨트롤해야 할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서두에서 밝힌바 그대로이다. 그러나 이를 운영함에 있어 지금까지 도출된 몇 가지 문제를 들여다 볼 때 걱정스럽지 않은 바가 아니다.

① 과도한 규제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불만이 만만찮다. 2003. 6. 30까지 일반주거지역의 종을 세분하지 아니할 경우 300%의 용적률이 가능함에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종을 세분하도록 강제하고, 제3종으로 지정된다하더라도 250%로 하향된 용적률로서는 주민부담이 너무 과중하여 재건축을 아예 추진하지 아니할 경우도 없지 않는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250%의 용적률마저도 지구단위계획심의과정에서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불안으로 계획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개발방향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②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이 너무 과도하여 사업성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안전진단과 조합설립, 건축심의가 고작인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추가됨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주민제안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할 경우 구역지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여 그 기간을 1/2로 축소시키고, 또 심의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 일정규모 이하에 대하여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처리하게 하고, 기 결정된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자치구에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편함은 남을 것이라 본다.

③ 건축사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이 또 하나의 불만이다. 설계비조차 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비용마저도 건축사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격을 특정인으로 한정해 버리면 그 특정인에게 건축사는 귀속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비참한 위치로 전락하고 만다. 사실 지구단위계획은 건축을 전제로 한 계획이기 때문에 건축전문가이외에 더 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많은 건축사들은 지구단위계획이 건축사의 과외 업무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④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규제위주의 정책들이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갖는다는 점이 문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필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직접적인 규제를 당하는 건축분야의 사람들은 목소리는 크지만 전체 인구의 극소수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체적인 환경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대다수 사람들은 목소리를 죽이고 있지만, 이를 등에 업은 시민단체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의 위력을 경험하여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동강 살리기”, “일산의 리브호텔 축출”, “옹인 축전의 그린벨트 살리기” 등등 그들의 손길을 통해 이룬 그 위력을 결코 어떤 정권파도 바꾸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환경과 경관에 대한 문제는 국내문제만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변경될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더구나 2002년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이 100%에 달한다는 점, 이제 건설경기가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선진국형 경제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01.6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등을 감안한다면 결코 정부가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친화적인 개발」 정책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2002년의 선거를 통해서 이러한 친환경정책이 바꿔지리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경기활성화를 꿈꾸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당연한 기대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고 볼일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운영과정에서 경작성에서 탈피하여야 하며,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전문가를 양성하고, 건축사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아울러 전개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규제와 적절한 인센티브(give & take)를 통해서 개발의지를 잃지 않게 하는 것도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

원자주 _____
이 글은 2001. 5. 8 발표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원」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건축계소식 / 87

현상설계경기 / 92

계획작품 / 106

해외집지동향 / 109

건축계소식 archi-net

2002 건축사자격시험 일정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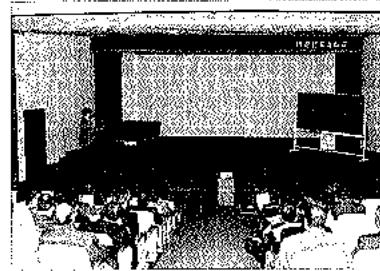
5월 12일 예비시험

9월 29일 자격시험

올 해 건축사시험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 했다. 예비시험은 오는 5월 12일(일) 서울에서 시행하고, 자격시험은 9월 29일(일) 서울, 부산, 광주에서 분산 시행키로 했다.(참조 : www.kira.or.kr, 114쪽)

건축설계대가기준 관련 공청회

3월 8일



지난 2월 6일, 세미나 광경

지난 1999년 폐지됐던 건축사업무대가 기준이 부활할 전망이다. 우리협회는 지난해 개정된 건축사법에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견교부장관이 공고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지난해 대한건축학회에 발주한 대가기준 연구용역을 완료, 지난 2월 6일(수) 협회 강당에서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완료된 연구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한 건축설계업무 대가요율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제시하는 건설부문의 요율을 적용하고 건축설계업무의 완성도에 따른 기본, 중급, 상급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해 총 9단계로 설계대가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2종(보통)의 중급을 기준으로 3종은 +10%, 1종은 -10%를 적용하며, 동일한 종에 대해서 중급을 기준으로 기본과 상급에 ±20%를 적용해 설계의 완성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오는 3월 8일 14시에 협회 강당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들이 참여하는 건축사업무대가기준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계 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별표5】"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제4호【별표7】"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2001년 8월 13일 개정, 공포됐다.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59 및 제2001-362호(2001. 12. 31)로 고시했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실국별 홈페이지(기술안전국 선택)→공개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문의: 건설교통부 건설환경과(02-504-90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정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 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서는 도시 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 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였으나, 국토 의 난개발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 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 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 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을 제정하므로써 국토의 계획 적, 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 축한다는 내용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법률제6655호, 2002. 2. 4.) 이 제정됐다.

서울건축사회 홈페이지 운영

www.sira.or.kr

서울시건축사회의 홈페이지가 지난 2월 1일자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회원업무 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건축사 회의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알려야하는 공지사항이나 기타사항들을 게시할 예 정이다. 서울건축사회 소속회원은 ID는 건축사면허번호 앞에 se를 입력하여 로 그인하면 된다. 비밀번호도 건축사면허 번호이며, 접속 후 메일-환경설정-개인 정보 변경에서 비밀번호는 수정할 수 있다. 또한 기타지역 회원이나 회원사 직 원 또는 일반인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20MB의 메일을 사용할 수 있다.

토탈미술관 제10기 아카데미회원 모집

오는 3월 개장

토탈미술관에서는 2002년도 제10기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한다. 건축, 미술, 음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는 협연 작가에서부터 철학, 사상계의 이론가에 이르는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빙된다. 개설되는 강좌는 「시각 문화와 예술철학」, 「현대건축의 원류 및 경향」, 「음악사, 음악감상」으로 오는 3 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평창동 토탈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수강료는 각 강좌당 48만원이며, 입회비는 별도로 10만원 이다.

문의: 토탈미술관(02-379-3994)

APA건축사진전

서울 중구문화원에서 3월 3일까지

건축을 전문으로 작업하는 건축인들이 담은 두 번째 건축사진전을 마련한다. '삶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2월 23일부 터 3월 3일까지 서울 중구문화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사진전은 전문사진인은 아니지만 청암건축사진아카데미를 수료한 건축전문인들로 33인의 건축인들 이 틈틈이 작업한 것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삶의 공간을 전통공간, 도시공간, 현대건축 등 3부작으로 구성된다.

문의: 청암건축사진아카데미(02-598- 6100)

www.freechal.com/imfoto

조택연 가상 건축전

4월 12일까지 아트센터 나비에서

2002경향하우징페어 개최

서울무역전시관과 코엑스에서

e-하우징, 경향신문사, SBS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2002경향하우징페어가 2월 17일부 터 22일까지 서울무역전시관과 코엑스 태평양홀, 대서양홀에서 개최된다. 바르 고 유익한 건축정보제공, 하이테크 시대 의 건축패션 제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하우징페어는 폴리카보네이트 주 시로 만든 건축내, 외장재 및 지붕재인 단피름을 소개하는 (주)현대에프디비에 스를 비롯한 5백여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며, 전시회 개막에 맞춰 인터넷을 통 해 연중 어디서나 온라인 전시회 관람 및 제품검색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www.eHousingFair.com

늘 실험적인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 인식체계를 탐구하는 조택연(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씨의 가상 건축전이 2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광화문 SK본사빌딩 4층 소재 아트센터 나비에 서 열린다. 1997년부터 지구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식하는 Gaia이론 을 바탕으로 시공간적 생존환경에 대한 작업을 선보였던 조택연씨는 이번 전시 를 통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가 급속하게 전달되는 디지털 Gaia시 대의 인간생존환경에 대한 새로운 기술 을 제안한다. 관객들은 새로운 생존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현재의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 및 온라인상의 가상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을 경험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세계에

대한 나름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전시와 더불어 3월 30일 오후 1시에는 일반 관람객을, 4월 12일 오후 6시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미래의 생존환경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마련한다.

문의: 02-2121-7139

www.nabi.or.kr

조선못 특별전

2월말까지 짚풀생활사박물관에서

사라져가는 조선못의 가치와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명륜동 짚풀생활사박물관(관장 인병선)에서 열리고 있는 '조선못 특별전'은 오랜기간 전국 각지를 돌며 어렵게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인병선 필립생활사박물관 관장은 "전문연구인력도 없고, 문화재는커녕 건축물이나 가구의 부속품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조선못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연구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시리지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은 못 하나에도 혼신을 다하는 장인들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2월말까지 계속된다.

문의: 02-743-8787

제1회 리모델링 우수건축물

공모

2월 28일까지

한국리모델링협회(회장 홍성웅)는 리모델링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1회 리모델링 우수건축물을 시상하는 리모델링 대상'을 시행키로 하고 부문별 후보작품을 공모한다. 리모델링 대상은 베스트 리모델링 부문과 건물 수명연장 부문을 비롯해 에너지절약, 환경보존, 정보통신, 도시환경, 자산가치 등 8개 부문에서 각각 관계부처 장관상과 대한건설협회 및 리모델링 협회 특별상 등이다. 출품을 원하는 리모델링 관련업체는 건물동도와 규모, 지역 구분 또는 준공연도와 관계없이 2월말 까지 협회 사무국에 응모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547-5605

이집트 그랜드박물관 국제현상설계

1단계로 5월부터 8월까지

20개 작품 선정

이집트 정부는 Giza 피라미드 근처에 예술 문화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아트 뮤지엄을 계획중이다. UIA의 감독아래 개최되는 이번 국제현상설계의 심사위원은 Salah Zaki(이집트), Galal Abada(이집트), Peter Cook(잉글랜드), Teodoro Gonzales(멕시코), Gae Aulenti(이탈리아), 김종성(한국) 등의 건축가를 포함하여 이집트와 박물관 관련자 13명으로 구성된다. 1단계로 2002년 5월부터 8월까지 20개의 작품을 선정하여 수

상자에게 각각 10,000USD 상금을 수여하고, 2단계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최종 작품을 선정하여 1등에게 250,000USD, 2등에게 150,000USD, 3등에게 100,000USD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문의: 전화 2-2-386-5911/2-2-386-

5917 팩스 2-2-386-5871

gem1@idsc.net,eg

www.gem.gov,eg

국민대 목조건축디자인센터, 2002학년도 교육생모집

제5회 목조건축 전문지도자 과정

▷기간: 3월 15일 개강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내용: 목조건축의 개론/주택개발정책/한국의 주택금융/전원주택의 환경개발/공학독재의 특성/목조주택의 시공학/매년 2월 외국현장답사 및 연수

제3회 가구디자인 스튜디오 과정

▷기간: 3월 13일 개강 매주 수, 목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8시까지

▷내용: 가구디자인개론/디자인약사 및 표현기법/재료학/색채학/공구이해/Mock-up/Modeling/포트폴리오/작품제작/졸업작품전시

제14기 목조건축 설계기술교실

▷기간: 2월 16일 개강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내용: 목재의 재료적 특성/구조모형 제작실습/목조주택에 사용되는 자재/시공기술이해

문의: 02-2006-6212

www.wooddesign.or.kr

건축교육제도 변화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에 관한 심포지움

2월 25일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에서

경기대건축전문대학원에서는 대학원 종합세미나실에서 2월 25일 오후 2시부터 '건축교육제도 변화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기존의 건축사자격 시험제도가 최근의 건축교육인증논의, 5년제건축학부제도입, 건축전문대학원의 수적 증가 등의 건축교육제도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건축사자격시험제도를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건설교통부, 건축사협회, 건국대건축대학원, 경기대건축대학원, 한양대건축대학원, 영남대건축대학원, 국민대, 명지대, 서울시립대, 계원예술대학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2002 정림포럼

'Cross-OVER II' 를 주제로



매년 건축인을 위한 공개포럼을 개최해 온 정림건축에서 진행하는 2002정림포럼이 2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크로스오버2(Cross-OVER II)'를 주제로 서울 종로 연간동 소재 정림건축사옥 지

하2층 나들목교회에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개최된다.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접근과 건축적 소양에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창조력을 소주제로 각종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조적 원천과 흐름을 파악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2/22 : 안상수(시각디자이너, 흥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한글...타이포그 래픽...기능성
- 3/15 : 유병은(작곡가, 한국예술종합 학교 교수)- 현대 음악의 창의성
- 5/24 : 최원수(전통미술가, 간송미술 관 연구실장)- 진경산수화
- 7/19 : 고동학(흥익대 광고홍보학부 교수)- 광고의 창의적 발상
- 9/27 : 김종성(건축가, 서울건축 대표)- 모더니즘의 발전과 근작
- 11/22: 김종구(건축가, M.A.R.U. 대 표,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작가론

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PC속도의 저하로 CAD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또한 CAD를 직접 다루는 사용자는 기존 AutoCAD 환경을 변화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없게 돼 비용절감 및 생산성 유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문의: (주)트라이노소프트(02-522-3123)

(주)트라이노소프트 MoMo-X(모모 컨버터) 개발

AutoCAD 상위버전 업그레이드 없이 모든 버전 도면 열어

현재 건축사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AutoCAD(R14, R13버전)에서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더라도 상위 버전 및 모든 버전의 도면을 열 수 있게 됐다. 이는 (주)트라이노소프트에서 AutoCAD의 모든 버전의 도면을 열 수 있도록 하는 툴(MoMo-X:AutoCAD내장형 dwg변환도구)을 개발해 가능하게 됐다. AutoCAD R14 또는 R13에서 「MoMo-X」를 적용시키면 별도의 작업없이 기존 AutoCAD 환경 그대로 모든 상위 버전의 도면파일을 열어서 작업할 수 있다. 따라서 「MoMo-X」를 사용하므로써 업그레이드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고 업그레이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 오픈"
www.sira.or.kr

모든 공문 e-mail로

ID : se 건축사 면허번호
비밀번호 : 건축사 면허번호

이 책은 2002년 개정판 건축법규 해설서로 건축법을 비롯하여 도시 계획법, 주차장법을 정리, 분류하여 그 해설을 부여하였고, 관련규 정별 이해를 돋기 위해 질의회신 등을 분야별로 엑스체인지판계법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편 건축법규해설, 제2편 건축관계법 그리고 부록(관련법령)으로 구성되었으며, 건축법규해설을 CD에 수록해 더욱 이해를 돋고 있다. 대학에서의 교과적용은 물론 일반인에 대한 법률 접근과 기술자격시험 등의 준비서로 활용할 수 있다.



김성배 편저/737쪽/2만원(건축법규문 제해설CD포함)/도서출판 서우 발행
(02-383-169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고용보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 선에 관한 공사(고용보험은 총공사 금액이 3억4천만원이상인 건설공사)는 산재보험(고용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다.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인 건설공사 시공자가 법정 기한내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보험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이하(고용보험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지고, 동 기간중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당해 보험료이 외에 근로자에게 자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문의: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
(02-2254-3011)
www.welco.or.kr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033-3425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8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688 ·
노원구건축사회/033-5781 · 도봉구건축사회/954-1253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
3026 · 마포구건축사회/5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
9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74-6109 · 성동구건축사
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
회/423-0153 · 양천구건축사회/604-5040 · 영등포구건축
사회/62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
사회/368-1486 · 종로구건축사회/737-2030 · 종구건축사
회/281-5743 · 중랑구건축사회/437-33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6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1)46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8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92 · 광명건축사회
(02)684-5845 · 구리시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
천시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시역건축사회
(031)755-6445 · 수원시역건축사회/(031)241-7007~
8 · 시흥시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
(031)490-9130 · 만大叔역건축사회/(031)449-2698 ·
의정부시역건축사회/(031)876-0458 · 하남시역건축사회
(031)635-0545 · 평택시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
산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시역건축사회
(031)386-0140 · 광주시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1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
(033)8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00 · 영
월지역건축사회/(033)374-2859 · 원주지역건축사회
(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축천지역건축사회
(043)732-5752 · 세종지역건축사회/(043)643-2559 ·
충주지역건축사회/(043)9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6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
(041)592-32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
(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무형지역건축사회
(063)651-2223 · 완주지역건축사회/(063)552-3793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
(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352-7028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
(054)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
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
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시역건축사회/(054)505-
8975 · 인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
사회/(054)634-8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
8256 · 청도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
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
(055)243-6030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
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김양지역건축사회
(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13-9778 · 양
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
(055)741-6403 · 진해시건축사회/(055)544-7744 · 통
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
(055)833-48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강북구민종합체육센터 / 92

대전 신선초등학교 / 96

대전 신선중학교 / 100

씨네월드컵 자동차극장 / 104

강북구민종합체육센터

Gangbuk Sports Center

▶ 당선작 / 단우건축사사무소(최명철)

+ 그룹원건축사사무소(박찬정 ·
김영국) + 성균관대(서기영)

대지위치	서울시 강북구 반동 산318번지 외 1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3,658㎡
건축면적	3,017.10㎡
연면적	6,078.25㎡
조경면적	370㎡
최고높이	25.7m
규모	지상 3층
구조	철골조
주차대수	63대(장애인용3대포함)
외부마감	알미늄페널, 화강석, THK24 컬러복층유리

계획의 개념

▶ 오동근린공원과 연계한 보행로 계획:
수영장 및 종합체육관으로 MASS를
분리하고 중앙 연결부에 DECK 및 계
단을 설치하여 오동근린공원과의 연계
를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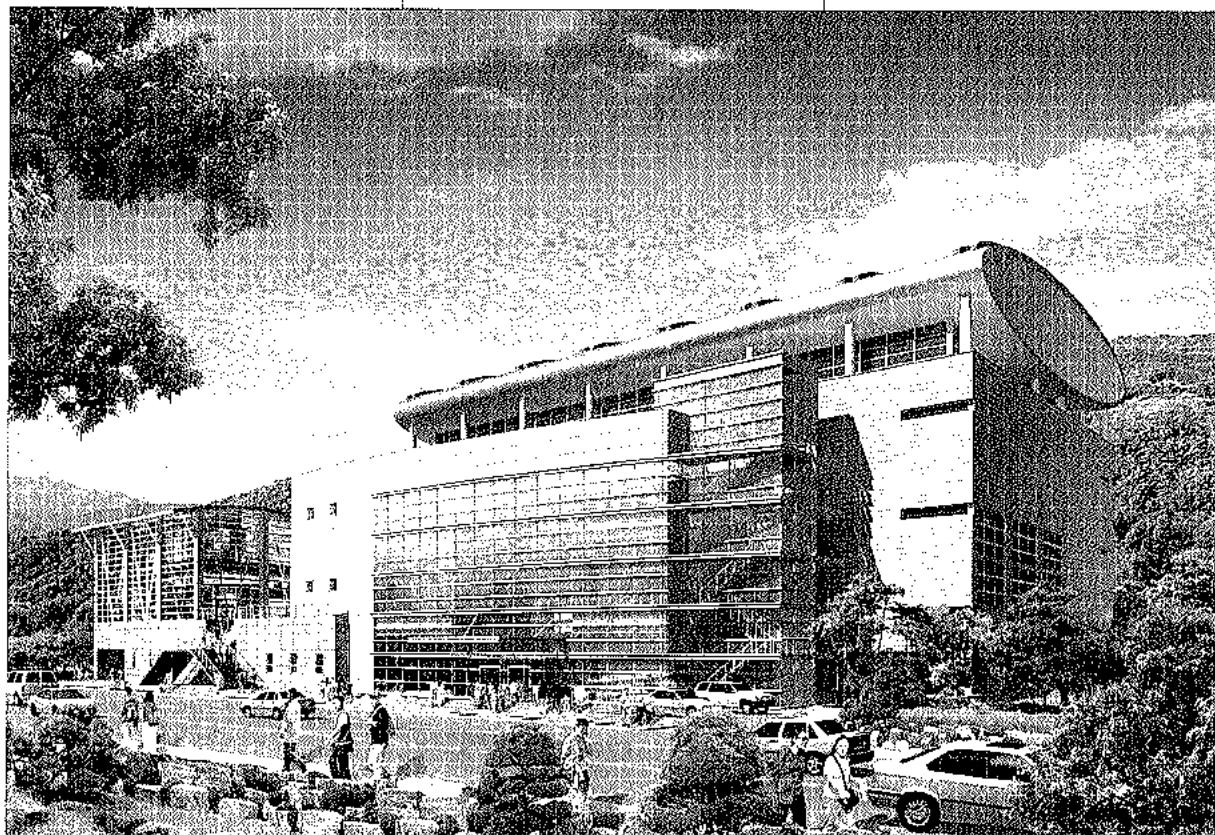
▶ 절토량의 최소화를 통한 공사비 절감:
지하층 계획을 지양하고 1층 후면부를
필로티를 계획하여 옥외주차장을 확보

▶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고려한 이미지
창출: 2개의 MASS로 분리하여 SKY
LINE을 고려하고 건물의 부피감이 완
화되도록 계획하므로써 자연스럽고 현
대적인 이미지를 구현

▶ 합리적인 기능 배치 및 동선 계획:
수영장과 체육관으로 MASS 및 기능을
분리하여 기능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체육시설 이용자 및 방문자 동선을 이분
화하여 동선이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

배치 계획

두개의 기능단위로 MASS를 구분 배치



하고 두개의 기능을 연결시켜주는 부대 시설을 둘으로서 이용상의 편의를 도모 하였으며, 주요 건물들의 연결부에 DECK 및 육상정원, 휴게공간 등을 계획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 문화 휴식공간의 장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체육센터 후면부를 필로티를 계획하여 충분한 옥외주차장을 확보하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하므로써 이용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접한 구민주 차장과 동선이 연결되도록 계획하였다.

평면·동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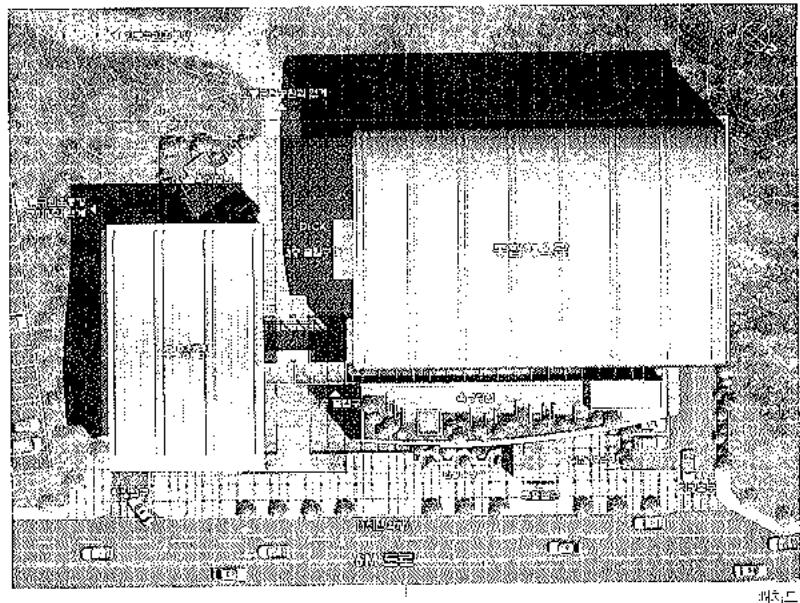
주차 동선과 주출입구를 분리하여 보행과 차량이 상충되는 것을 방지하고 2, 3층 DECK 부분에 부출입구를 계획하여 체육관, 수영장 등 각각의 공간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관람석을 출입구와 근접 배치하여 동선의 길이를 줄임으로써 관람객의 피난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로비와 연계된 휴게라운지를 계획하여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3층 수영장과 체육관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계획하여 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다.

입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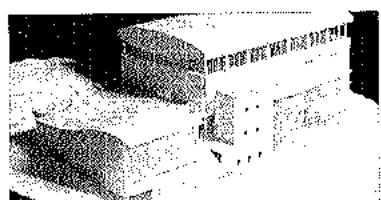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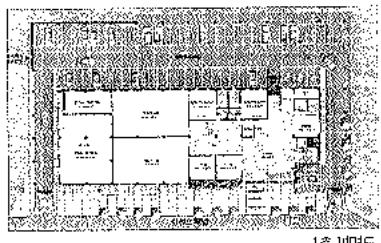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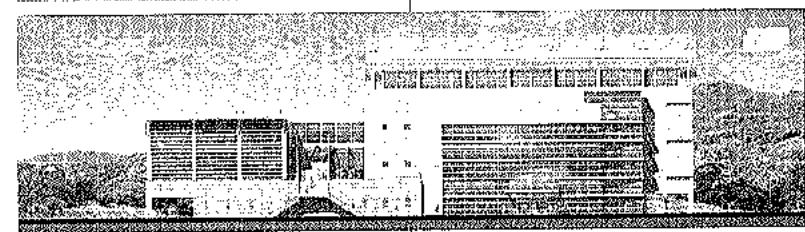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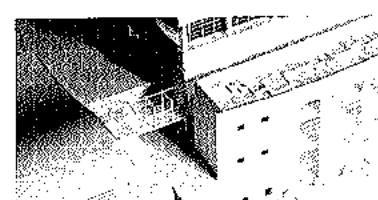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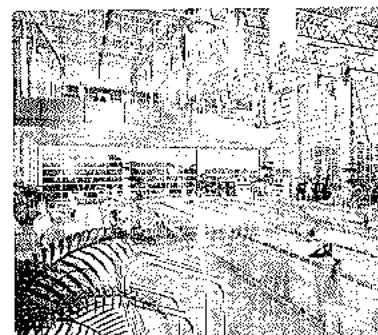
체육관과 수영장으로 분리된 MASS가 서로 조화되고 SKY LINE에 변화를 주도록 고려하였으며 AL.SHEET와 CURTAIN WALL을 이용하여 현대적이며 활동적인 이미지를 주도록 고려 하였다. 또한, 오동근린공원의 자연자세를 고려한 곡선형 지붕형태로 계획하여 친근감을 주는 이미지를 부여하고 도시 가로변에서 인자성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에 상징성을 부여하는 입면이 되도록 계획 하였다.

단면 계획

2개의 MASS로 분리된 종합체육관과 수영장의 중앙에 공용시설을 배치하여 이용에 편리한 층별 조닝이 되도록 계



획하였으며, 수영장 하부에 수처리시설을 배치하여 기능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또한, 수영장 상부에 휴게 라운지를 계획하여 유아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단면을 계획하였다.



정면도

▶ 우수작 / (주)태동종합건축사
사무소 (횡근육·이필훈·최종인·
심재덕)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편동 318번지 와 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용도	운동시설
대지면적	3,688m ² (1,116평)
건축면적	2,766.82m ² (836.96평)
연면적	6,447.27m ² (1,950.30평)
주차대수	법정 - 5,927.07/100 = 59.27(59대) 계획 - 65대(장애인주차 3대 포함)
구조	SRC조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외부마감	금속외장페널 + 목재페널 + T24 복층유리 + SPG시스템
설계팀	이승준, 심재우, 원성익, 오충련 박홍근, 김택빈, 노정렬, 이혜진 우준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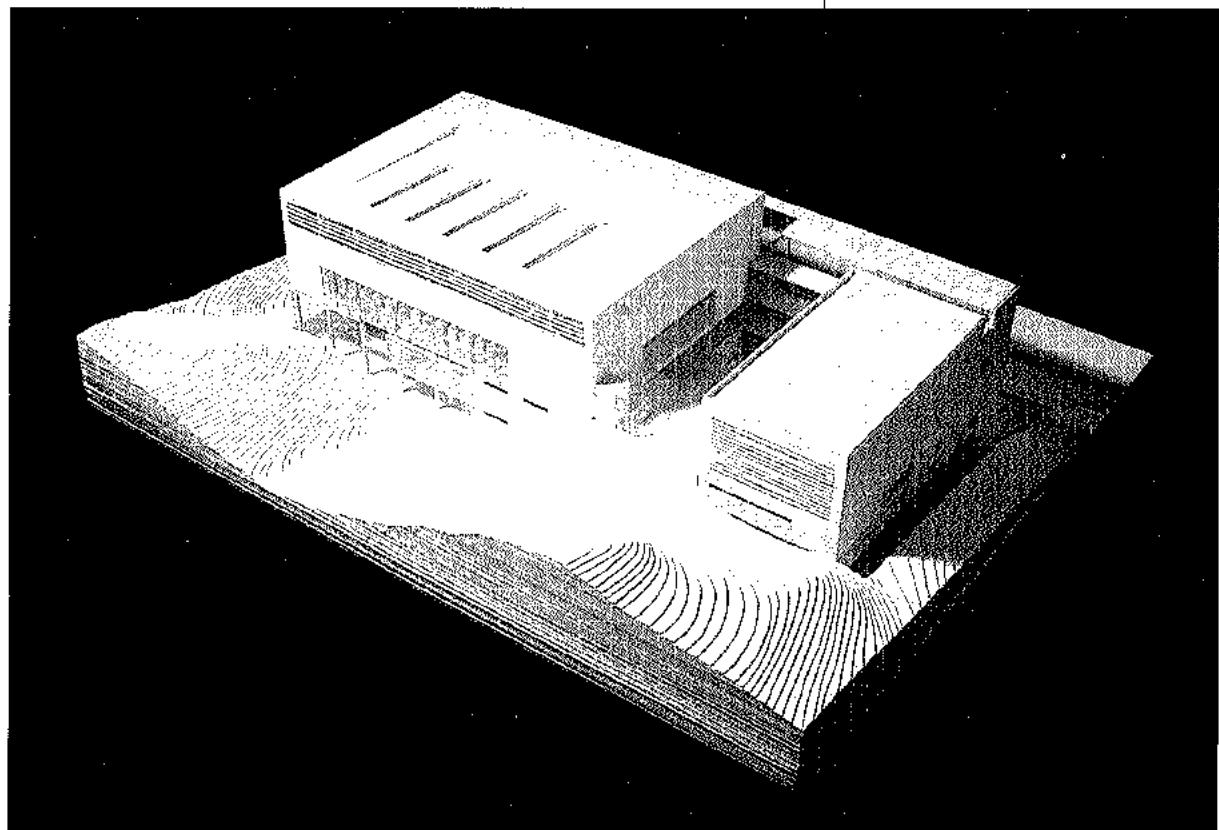
모호한 경계, 느슨함, 그리고 열린 공간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프로그램
과 그것들을 축조하기 위한 테크놀러지
그리고, 미적 차원에서 의도된 기획과
규칙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건축물들은
자체적인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획득하
면서 자기 폐쇄적인 규칙을 갖게 된다.
이러한 건축물의 구성논리에 의해 내부
의 모든 흐름은 기능성 위주로 배열되
고, 형태와 공간의 구성은 자체적인 합
목적성과 미적 기준으로 무장되며 결국
주변의 환경을 무시하고 독자적 완결성
을 가진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며,
건물에 대한 평가 역시 독자적 완결성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한다.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은 목표지향적 ‘빠름’의 삶에
‘느림’과 ‘여유’를 제공하여 구민들의
삶에 풍요함을 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이런 행위를 담는 체육센터는 이제
까지 건물을 축조하는 합리적이며 기능
적인 면면을 중시하는 자기 폐쇄적 건축
접근과는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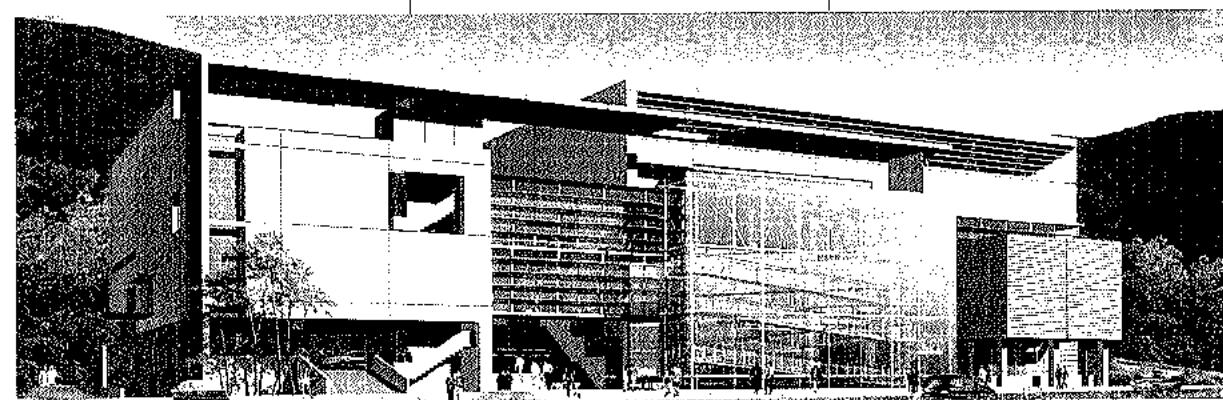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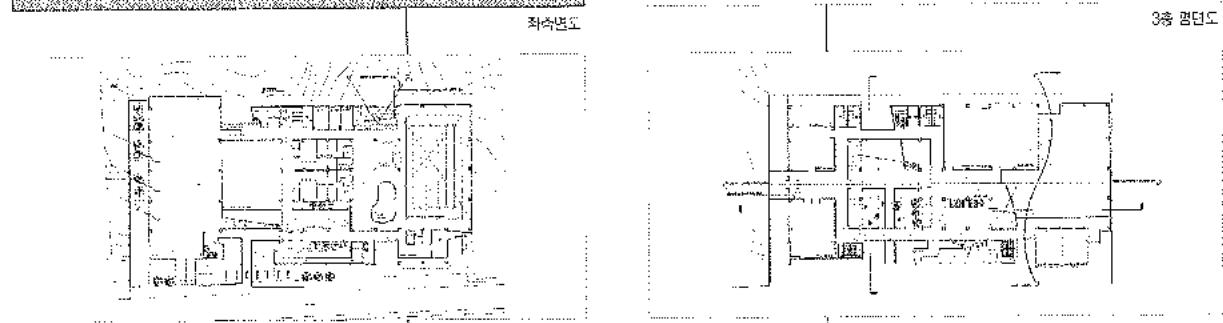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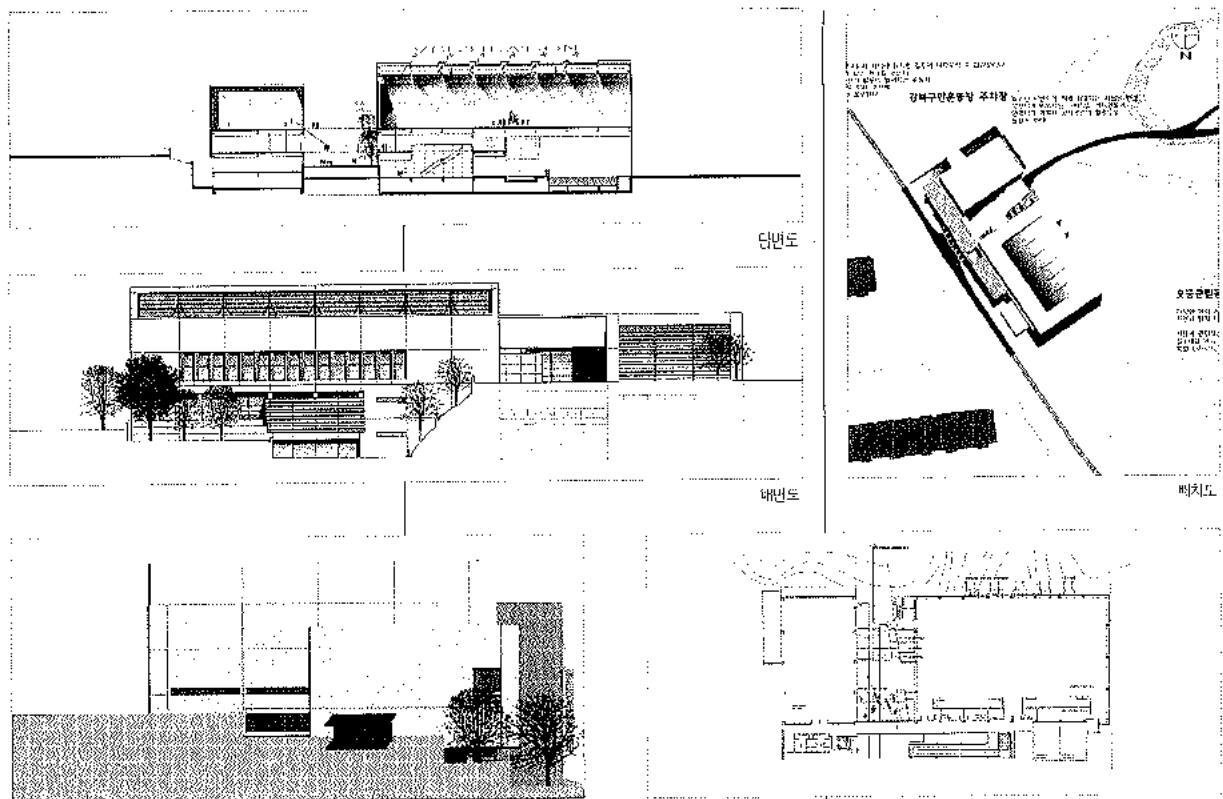
▶ 엄격한 접근 및 주변과의 완벽한 차
단을 통한 경제성과 효율성의 중시보
다는 다양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
변 그리고 자연과의 소통을 존중하
는 모호한 경계의 제시.

▶ 기능적 공간구성 및 동선구성보다는
‘느슨한 쌓기’, ‘긴 동선체계의 도
입’, ‘틈의 마련’으로 ‘느림’과 ‘여
유’를 담을 수 있는 건물로 설계.

▶ 자체 완결적인 ‘드레님’을 목표로 하
는 미적 추구의 집적물이 아닌, 주변
과 자연에 대한 관계성을 고려한 ‘넓
아름다운 그러나 더 윤리적인 (Less
aesthetic but more ethic)’ 건물의
제안

제시된 프로그램을 적확하게 담는 건
물이기보다는 빠르게 변화하는
'recreation culture'를 신축적으로
수용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의
Culturescape을 제시하는 것을 설계
의 주제로 삼았다.





대전 신선초등학교

Sinsun Primary School

▶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도우간건축(서용주·최덕호·문토현)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판저동 1,374 번지
대지면적	16,132.3m ²
건축면적	3,927.04m ²
연면적	13,151.56m ²
건폐율	24.34%
용적률	78.96%
녹지율	21.3%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5층 42학급 기준 교실 수 48개
주차대수	44대

외부마감	점토벽돌, 외단열 시스템, 암출 상형시멘트페널
내부마감	비닥 - 무석면 비닐타일 벽 - 수성페인트, 낙방페인트 / 천장 - 천장텍스
설계팀	이근영, 윤정기, 양승중, 유재유

초등학교 신교육과정에 의한 계획원칙을 준수하며, 이에 따른 재량활동을 위한 다양한 특별교실 및 지원시설을 계획하고, 도서실, 정보실, 컴퓨터실, 어학실, 시청각실을 복합화하여 정보화 학습 센터로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열린 교육을 위한 단위 유니트별 교실군이 되도록 계획하고, 학년별 학급과 연구실을 그루핑하여 계획한다.

계획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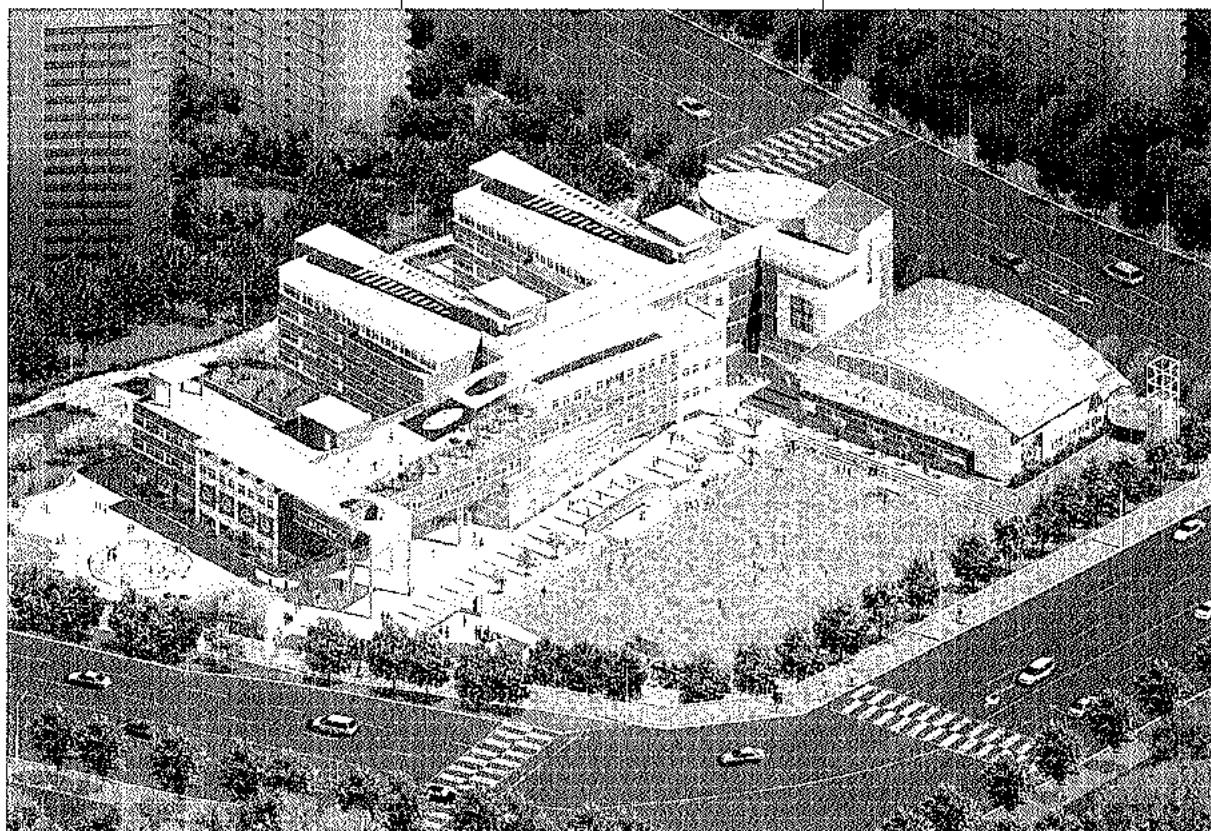
초등학교 교사에 적합한 기본원칙을 형성하고, 그에 따른 객관적 데이터를 토대로 기본 배치계획 및 평면계획이 되도록

록 하고, 초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소음 및 일조권을 분석하여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배치안을 만들어냈다. 또한 대지 레벨을 이용하고, 주변 접근 동선을 고려하여 보자 분리와 공원과의 연계, 인근 아파트와의 연계 등이 유기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동선이 되도록 계획하고, 미래 교육에 적합한 공간 구성 등을 하였다.

배치계획

교사 배치는 남향과 남동향을 원칙으로 하며, 운동장의 방향도 남북으로 배치하였다. 도시 계획상 정해져 있는 차량 진입허용구간과 보행자 출입구역을 고려하여 대지 레벨과 합리적인 단면계획으로 동별 필로티를 형성시키고, 대크를 만들어 차량 진출입동선이 편리하고 경제적이 되도록 하였으며, 원하는 교사동으로 접근이 쉽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지역민에게 개방하는 정보화센터를 교시동과는 독립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장애인의 접근도 편리하도록 수직동선을 구성하였다. 외부공간으로는 자연학습 체험장도 데크를 이용한 놀이공간, 생태공원, 저학년용 어린이놀이터, 개방화된 운동장과 만남의장을 구성하고, 식당과 다목적공간, 운동장으로도 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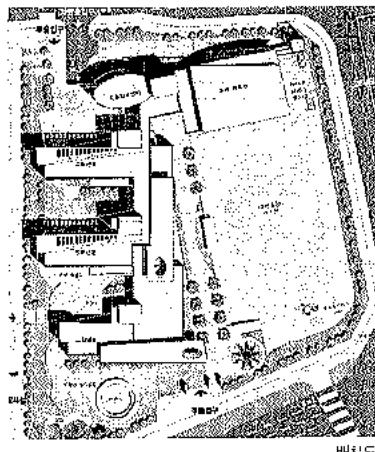
평면계획

7차 교육과정에 적합한 모듈을 형성시키고, 그 단위 유닛을 2/3학급으로 그루핑하여 다양한 소그룹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에 적합한 모듈을 계획하고, 열린 교실을 기변형으로 하여 수업의 확장 기능성과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복도

및 공용홀을 넓게 계획하였다. 저학년(1, 2학년) 동선은 주출입구와 가깝고 층수가 높지 않도록 3층으로 계획하였다. 지원시설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되 외부동선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도록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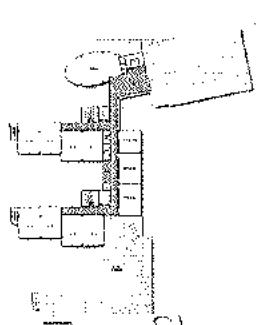
입면계획

초등학교의 분위기와 어울리도록 학년별 색채와 재료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전체가 조화롭도록 계획하였다. 42학급의 대규모 초등학교라는 특성을 적용하여 규모상 5층으로 구성되는 교시동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안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수평성을 강조하는 입면을 계획하였다. 정보화센터는 개방감과 특화된 매스로 일반인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배면(북측) 도로에서의 접근에 따라 거슬리지 않는 매스가 되기 위해 라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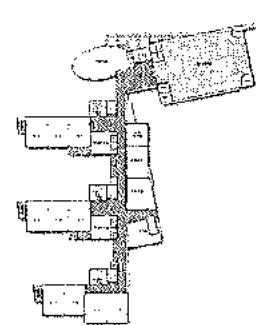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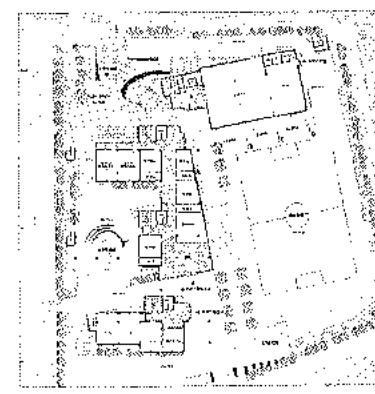
로 계획하여 매스의 조화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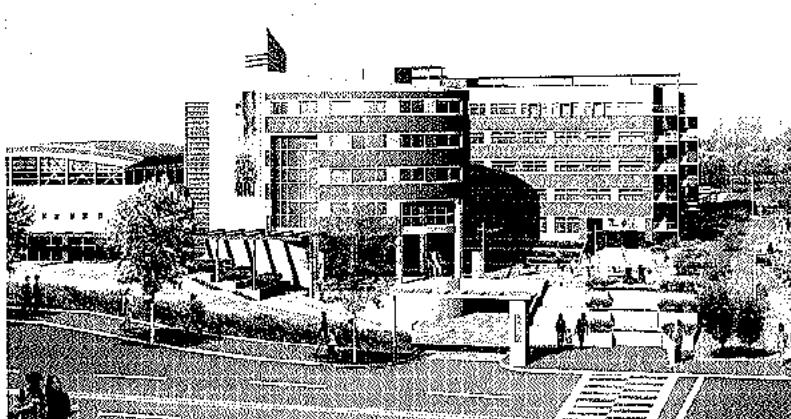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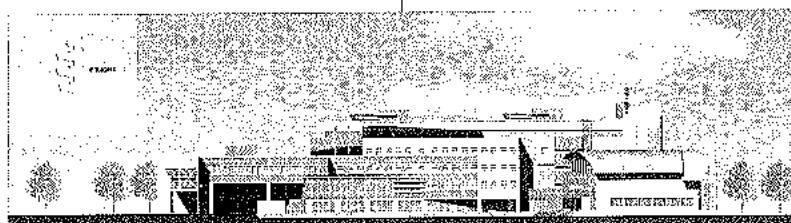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전면도



우측면도



비단도

▶ 우수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큐브엔지어링(이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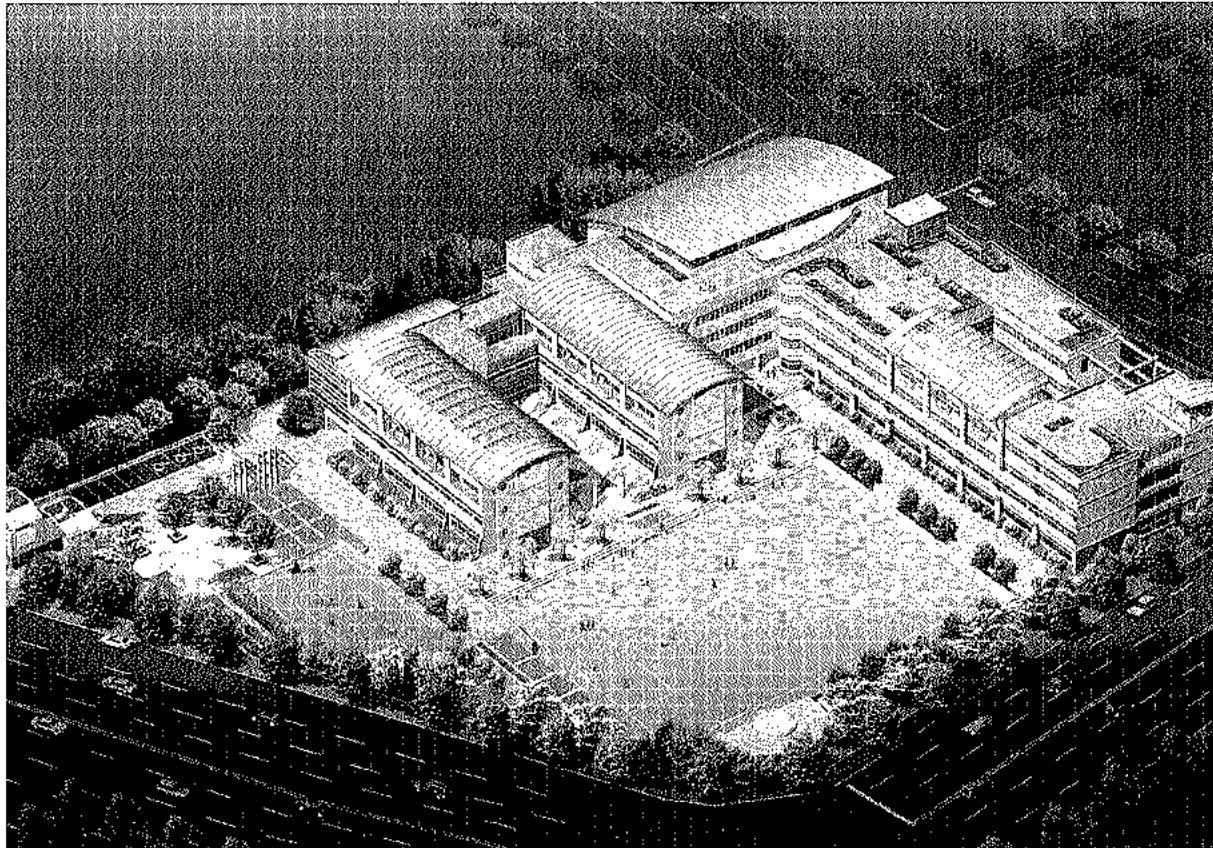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374번지
지역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학교용지
대지면적	16,132.3㎡ (4,830평)
건축면적	4,339.2㎡ (1,331평)
연면적	13,790.0㎡ (4,171평)
조경면적	3,712.3㎡ (23.0%)
건폐율	27.3%
용적률	85.5%
규모	지상 4층, 42학급
주차대수	46대 (장애인 전용주차 3대 포함)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 철골 트러스구조
외부마감	THK50 외단열마감 + 치장벽돌 쌓기
설계팀	박동균(팀장), 이승용, 박한석, 진수아, 김봉열, 이기수

계획의 주안점

- 학교기능의 확대수용을 가능하게 하여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함
-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가고싶은 공간, 가서 모두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함
- 열린교육의 장으로써 제 7차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다양한 커리큘럼 변화에 적응 가능한 공간 구성
- 인근 아파트 단지로 인한 획일적인 생활공간 속의 식상한 어린이들에게 변화로운 실내공간을 제공
- 초등학교는 지구단위의 기본요소로서 교육의 장일 뿐만 아니라 자구 주민의 커뮤니티 형성의 장으로 개방함을 전제로 하고, 특별교실 및 체육시설 등을 주민들의 평생학습 및 생활편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학습군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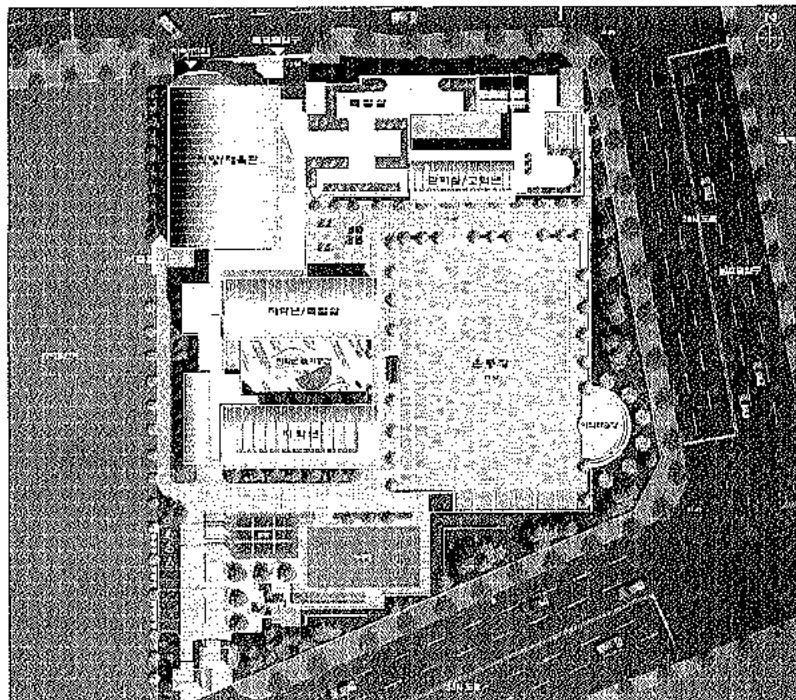
배치계획의 특징

- 아파트 단지내의 야외공간과는 차별되는 또다른 좋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남동측에 오픈 스페이스를 두어 도로로부터의 소음을 차단시킴과 동시에 일조 및 천공에 유리하도록 고려
- 남측으로 자연, 생태, 야외 학습장 등을 두어 메마르기 쉬운 도시생활에서 학생들에게 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배려
- 건물을 대지의 북서면인 자연경사를 이용하여 대지 북측 식당 하부에 주차층을 별도로 두어 보차분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전 교실이 정남향을 향하며 저학년동과 고학년동이 분리구성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저학년을 위한 별도의 외부 놀이공간을 도입



건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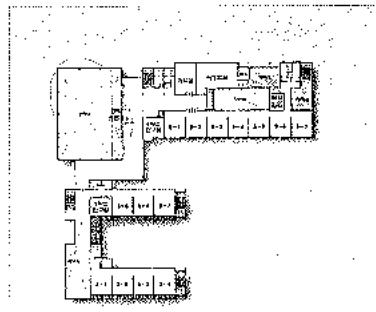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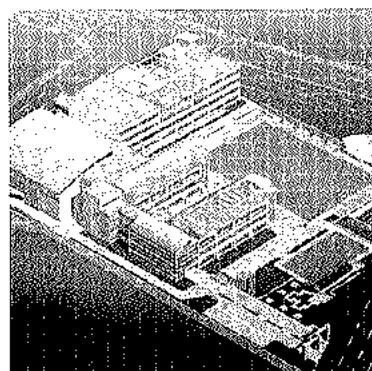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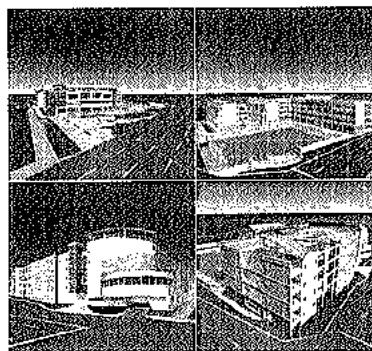
- 학교 본연의 기능과 지역사회 공여 기능군을 별도 관리할 수 있게하여 학교 기능의 확대 수용이 가능도록 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 함
- 교실은 학년별로 같은 층에 위치시키며 3-4학급의 단위학년군 구성으로 교육적 효과를 높임
- 가변형 열린교실의 형태로 다양한 커리큘럼에 적용가능하도록 확장, 가변성을 부여
- 각 조닝별로 공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절점공간에 홀 및 아트리움을 두어 매개공간을 계획
- 테라스와 옥상정원을 두어 건물에서도 외기와 접할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
- 수평루버를 체광조절 및 입면요소로 이용하면서 원형장식의 사용으로 단조로움을 탈피한 초등학교로서의 인지도와 상징성을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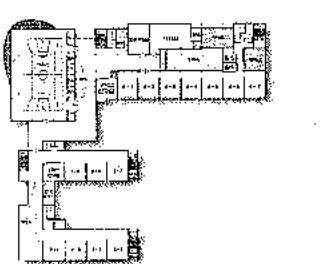
면도

기술적인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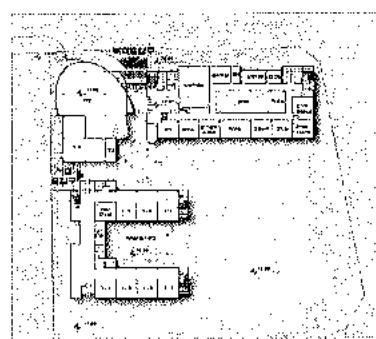
- 교육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 2등급을 구축하고 각 교실마다 전동식 스크린을 설치
- 중앙공급식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팬코일 유니트를 각실에 설치 할 수 있도록 계획
- 주어진 예정공사비에 맞출 수 있도록 공사기간을 12개월로 줄인 새로운 공정을 제시함으로써 시공까지 고려한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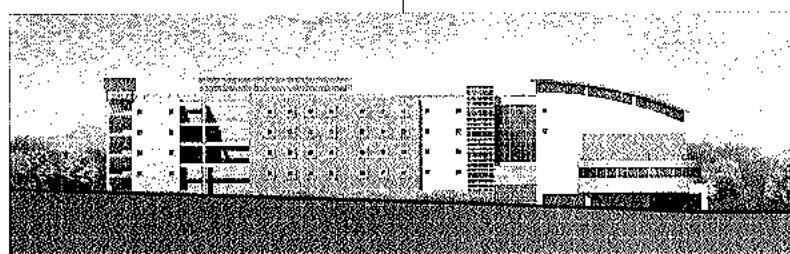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복면도

대전 신선중학교

Sinsun Middle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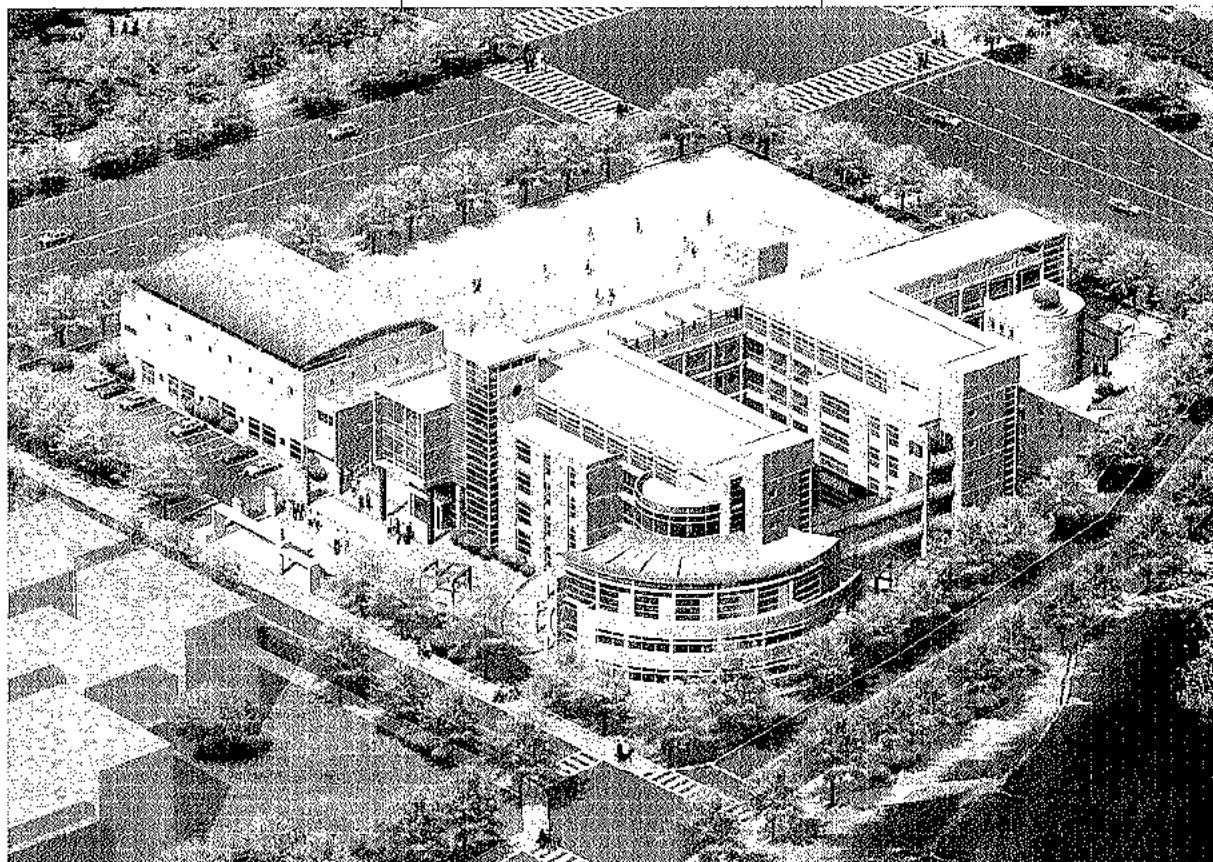
▶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목성(이기수 · 정병옥 · 우재식 · 이경환)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판저동 1,353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중학교)
대지면적	13,301.90㎡ (4,023평)
건축면적	2,994.12㎡ (905.72평)
연면적	10,909.52㎡ (3,300.13평)
조경면적	3,154.88㎡ (대지면적의 23.72%)
건폐율	22.51%
용적률	82.0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주차대수	지상 38대 (법정 36대)
외부마감	붉은 벽돌치장생기, 외단열시스템, 목재판, 컬러복층유리
설계팀	하지연, 김기정, 김종경, 장명규

기적인 배치 및 연결

- 열린 학교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시설 개방
- ※ 지역사회 문화적 중심체로서의 역할 분담
- 지역 전통에 부응하는 장소성의 부여
- 미래 지향적 안목의 초현대식 시범적 교육시설로서의 역할
- ※ 기능적이면서 공간 체험적 내외부동선
- 내외부공간의 요소요소에 특성화된 다양한 공간구성
- 기능적 조닝 계획과 동선 계획으로 이용 편의성 극대화
- 주변시설과 조화된 학습 휴식 사색 만남의 장 조성
- ※ 경제성을 고려한 계획
-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형 설비계획으로 유지관리비 절감
- 모듈화로 공간의 경제성 부여
- 장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가변성 부여
- 장래 증축을 고려한 녹지 및 OPEN SPACE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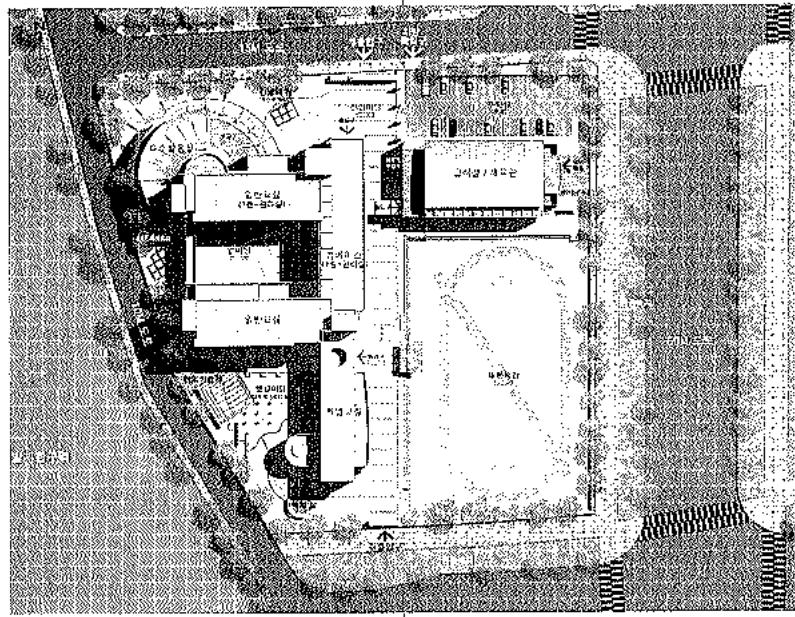


평면계획

- 다양한 외부공간과의 연계성 확보 : 팔로티를 통한 공간의 연속성
- 인마당, 잔디마당, 사색의 장 등 외부 공간과의 원활한 연결
- 주출입구와 근접하여 관리시설군 배치
- 시설의 중심에 거점공간(홈베이스)과 멀티미디어코너를 배치, 동선의 효율성 제고
- 일반교실의 남향배치로 충분한 일조 확보

- 교과군별 집중배치로 효율적 운영 제고정보자료실과 도서실 근접배치로 이용 효율성 증대
- 특수활동실, 특별형 교실의 독립배치로 공간의 영역성 확보
- 휴게 및 정보화공간을 적절히 분산 배치하여 이동식 수업에 대응하는 평면구성
- 분산배치한 주계단과 연결브릿지를 통해 원활한 수직, 수평 동선 유도
- 3, 4층에 동아리실과 특활실군을 집중

- 배치하여 동선의 혼선 방지
- 특별형 교사동의 옥상에 열린시야를 가진 옥상 휴게공간을 배치하여 쾌적성 증대
- 동아리실, 특활실과의 활동 연계
- 층수의 변화로 얹어지는 옥상부분에 데크나 정원을 만들어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수용
- 재량실을 배치 자유로운 시설이용 기대
- 옥상 휴게공간 배치, 재량실의 활동과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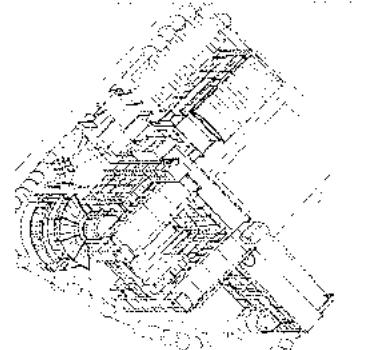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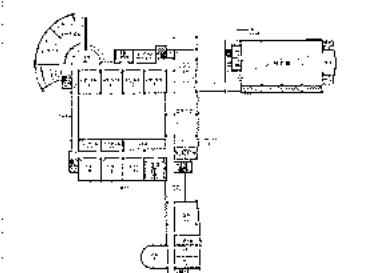
서쪽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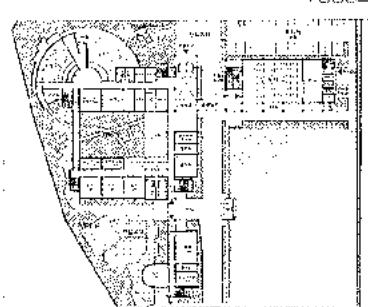
북쪽면도



4층평면도



3층평면도



2층평면도

▶ 우수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도우건축(서울주, 윤토현, 최덕호)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353번지
대지면적	13,301.9m ²
건축면적	3,076.36m ²
연면적	10,612.45m ²
건폐율	23.13%
연폐율	70.29%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외장재료	절토벽돌 / 압축시멘트성형패널 / 투명복층유리
설계팀	윤토현, 유선석, 고흥권, 정혜원, 임상규

대지읽기 : 자연을 볼 것인가? 고층 아파트를 바라볼 것인가?

대지의 남측으로 나즈막한 산이 펼쳐져 있다.

이 산은 등교하면서도, 교실에서도, 운동장에서도 보이며 시각적 자유를 선사하는 자연적 배경이 된다. 시각적 열림을 고려함과 동시에 공간에 있어서도 열림과 닫힘의 조화를 통해 한정되지 않은 공간을 만들었으며, 쓰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활동의 매개체가 되도록 한다.

학교의 역할 : 지역주민과 공유

이제 학교는 단순히 '교과서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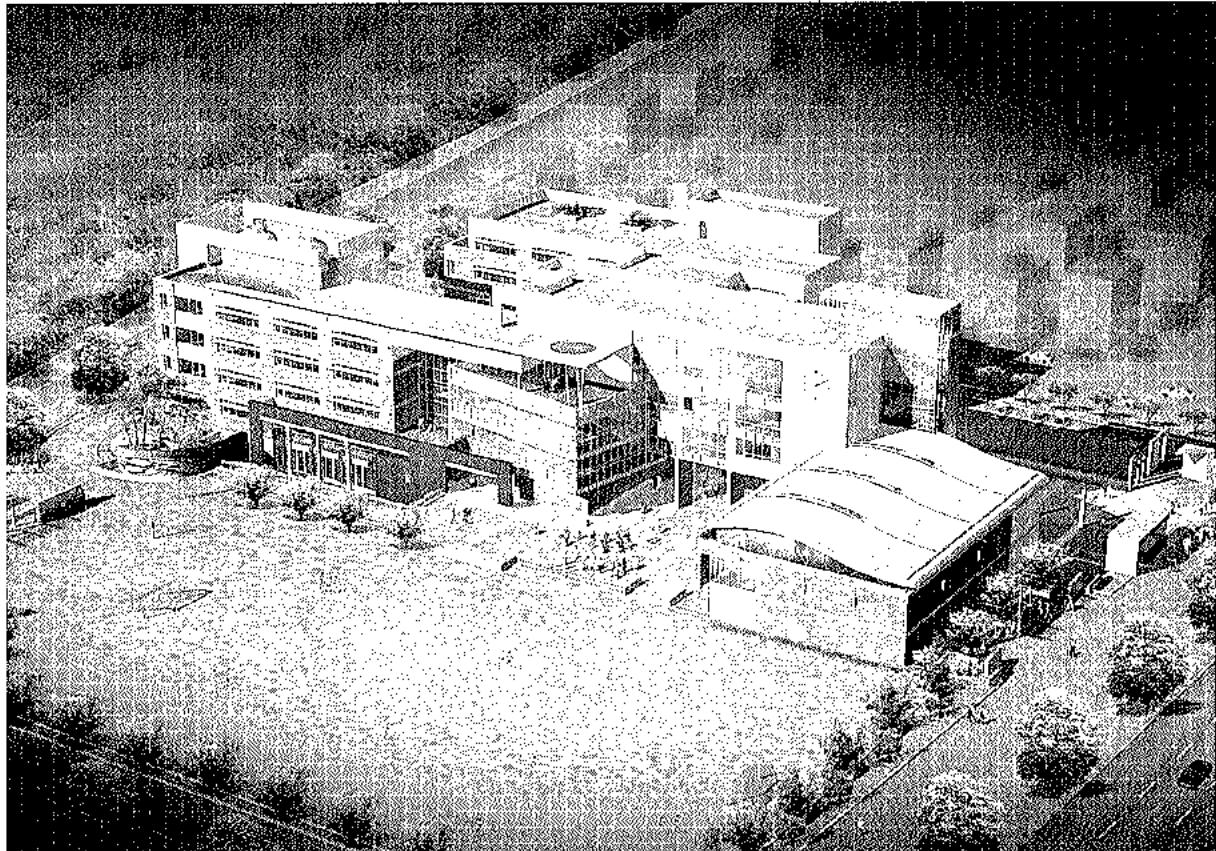
학생의 자율성,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여러가지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다채로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

라서 학교는 수업 외에도 여러가지 경험을 통해 사회를 배워나갈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문화공간이 됨으로써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살아있는 사회'로 발돋움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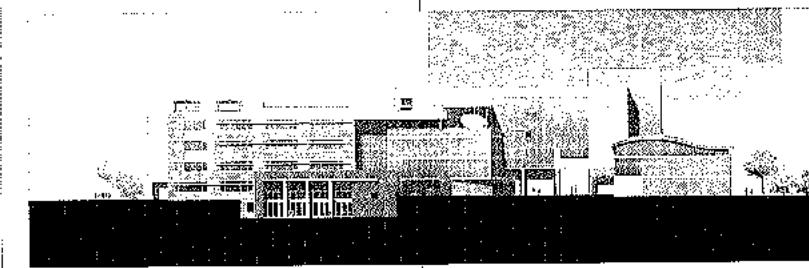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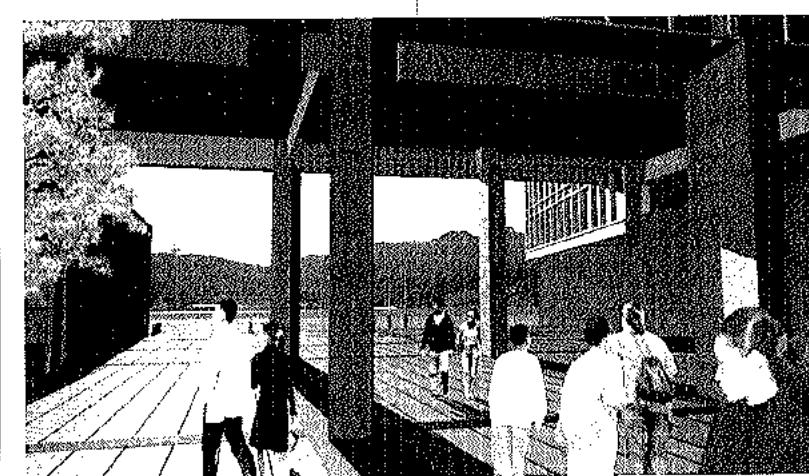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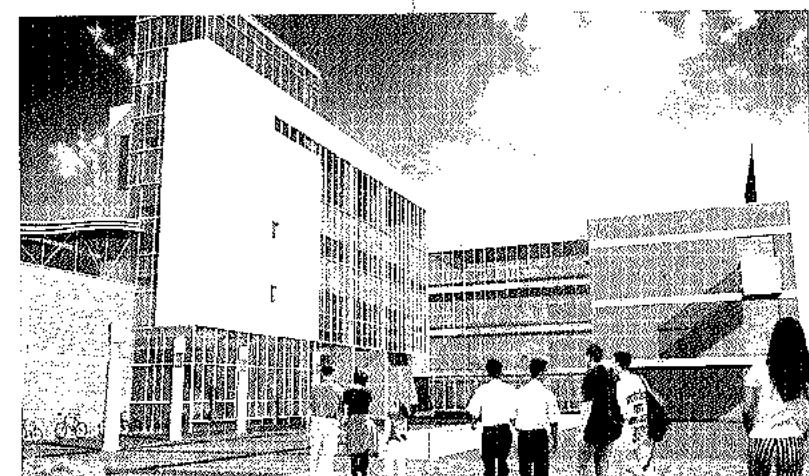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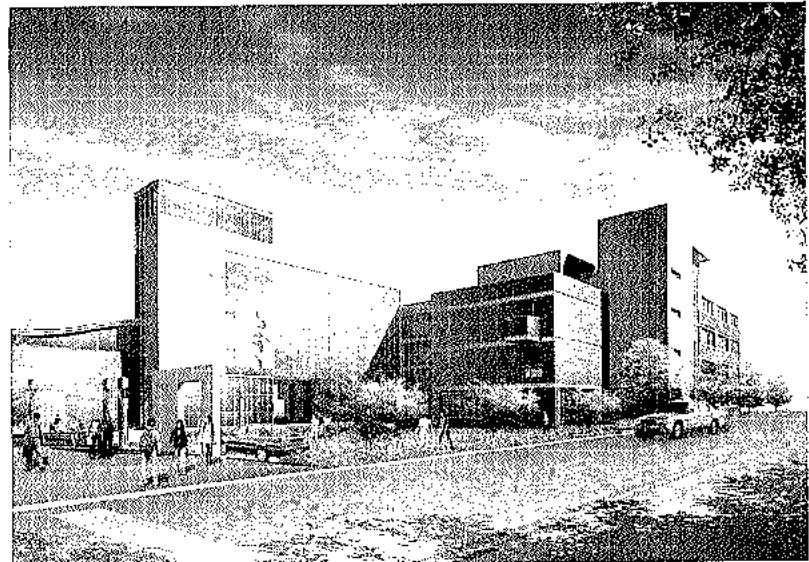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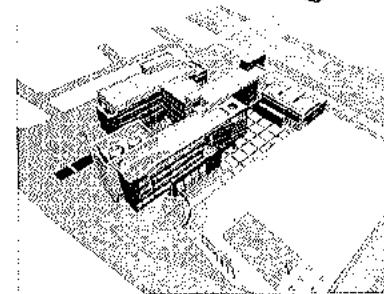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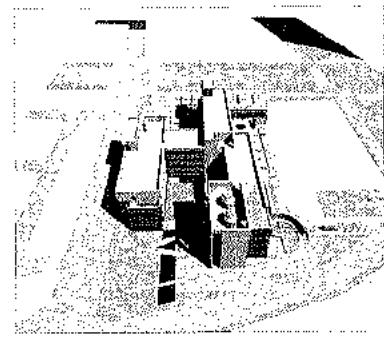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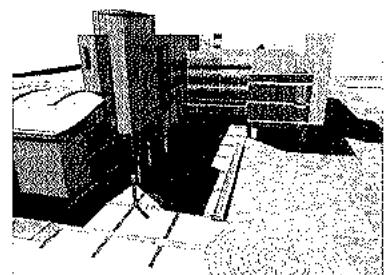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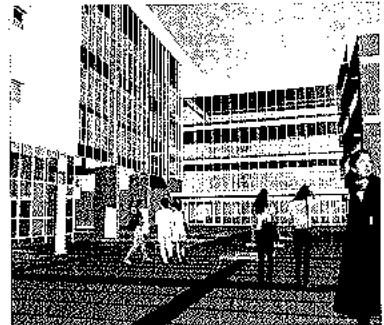
시설물뿐만 아니라 운동장, 체육관, 주차장, 작은 공원들, 녹지 등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학교는 지역 사회의 문화시설로 진일보하게 될 것이다.

눈높이 : 어른의 고정관념. 학생 = 아이들?

지금의 학생들은 TV나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항상 감각적인 영상을 접하며 간접적인 사회체험을 하고 나름대로의 이성적 판단을 통해 차츰 성장해 가고 있다. 어른보다 해박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기도 하고, 그들의 매너아웃을 형성하기도 하는 등 이제는



더이상 '아이들'이 아닌 영향력있는 사회계층 중의 하나이다. 이들에게 과거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정리되지 않은 원색과 의미없는 조형보다는 합리적이고 세련된 건물 구성이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남한면도

씨네월드컵 자동차극장

Cine Worldcup Automobile The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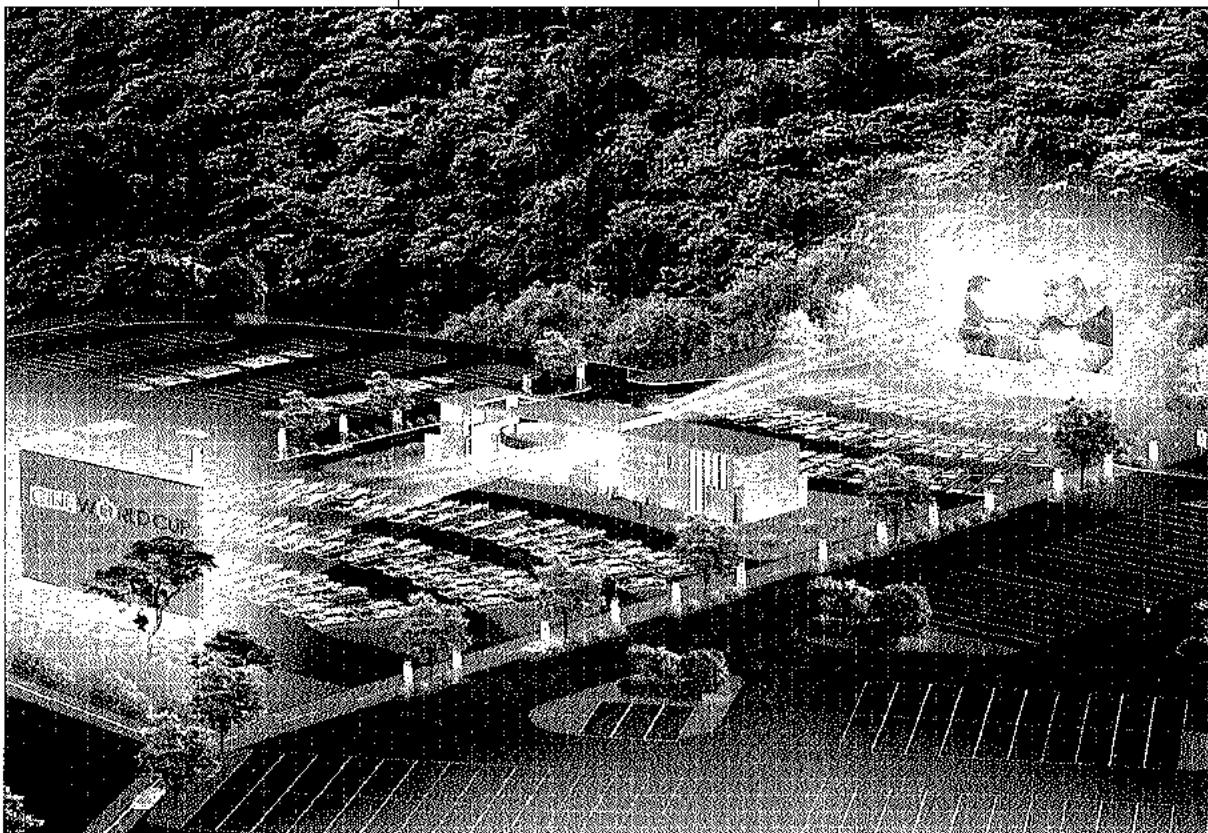
▶ 당선작 / (주)대상건축사사무소
+ 박종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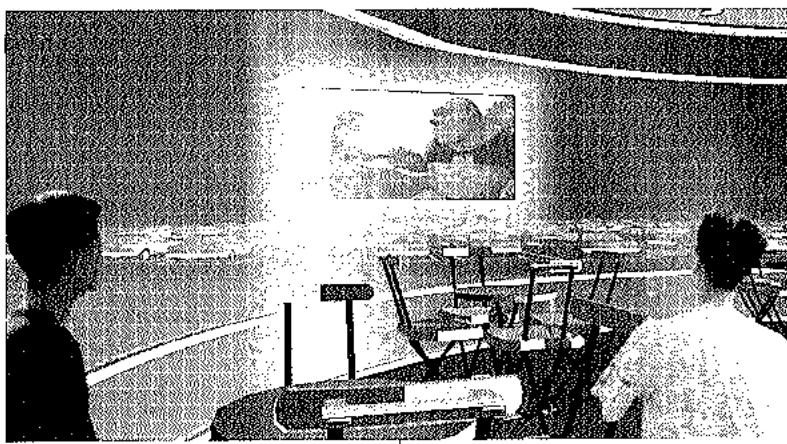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환동 산 35번지 일대(임시주차장 부지)
대지면적	13,223m ² (약 4,000평)
건축면적	331.35m ² (100.23평)
연면적	493.86m ² (149.39평)
건폐율	2.50%
용적률	3.73%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규모	지상 2층
외부마감	노출 콘크리트, 아연 핫글 판재 (ZINC)
설계팀	김계현

2001년 10월~11월 공모, 2001년 12월 당선, 2002년 2월~5월 설계와 2002년 11월 준공 예정인 개봉 영화 자동차 전용극장(씨네 월드컵)은 대구 월드컵경기장과 연계한 사후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임시 주차장 부지에 건립하여 새로운 영상문화 단지를 조성하고 문화, 관광, 위락공간으로서 대구와 경북을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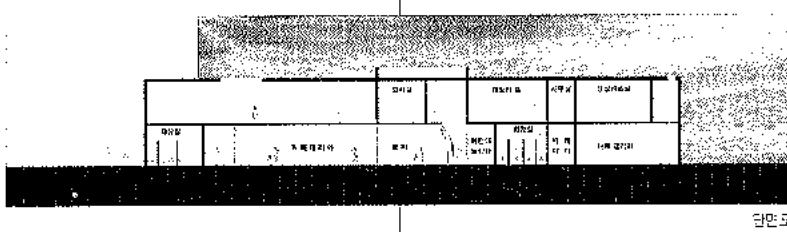
차별화된 계획은 자동차 극장의 모범이 되고 21세기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저녁시간대에만 이용되는 기존 자동차 극장의 한정된 기능에서 벗어나 공연 무대, 시민갤러리, 영상자료실 등의 적극적인 활용과 주간에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의 개방은 대구, 경북에서 새로운 문화미개체가 될 것이며, 자동차, 관람객, 영상스크린의 관계를 조화롭게 인식한 차량배치 및 동선, 여유있는 옥외휴게스페이스와 녹지, 주변조건이 고려된 친환경적 건축 및 의장계획, 장애인과 어린이의 불편함을 배려한 주차와 편의시설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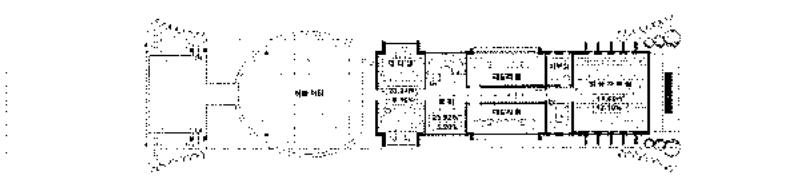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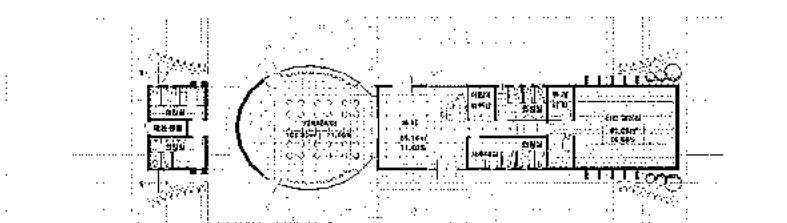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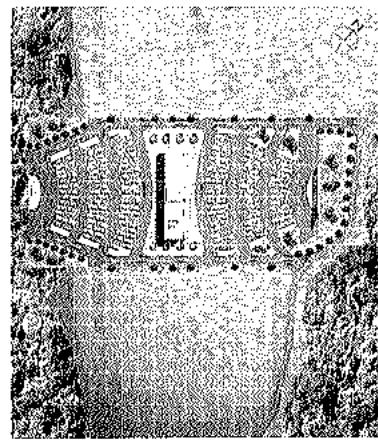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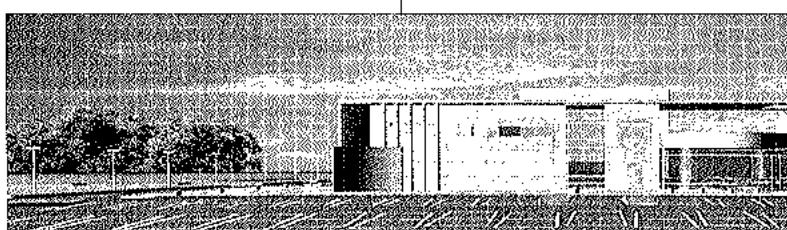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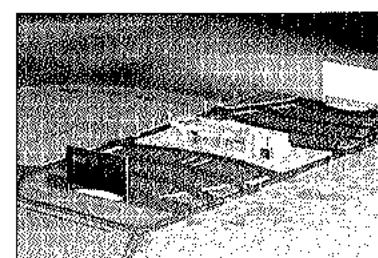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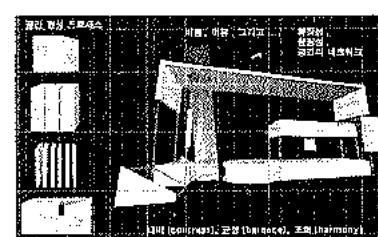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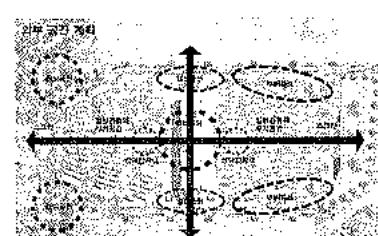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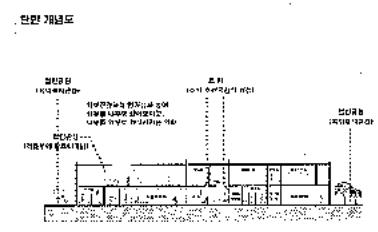
2층 팔면도



1층 팔면도



마치도



대한불교조계종 삼막사 납골시설

Charnel House of Sammak
Buddhist Temple

이종훈 / 건축사사무소 토스템
Designed by Lee Jong-Hun

대지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41-54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대지면적	2,800㎡
건축면적	1,488.97㎡
건폐율	53.18%
용적률	89.02%
규모	지상 4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 리멘조, 철골조
주차대수	9대(법정 : 9대)
외장재료	THK80 화강석 축두기, THK30 화강석비너구이, THK16 컬러복층유리
설계팀	정종현, 김종우, 유상종

대한불교조계종 삼막사 납골시설은 전통사찰 경내에 위치함으로써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문화재 심의와 도시계획 심의를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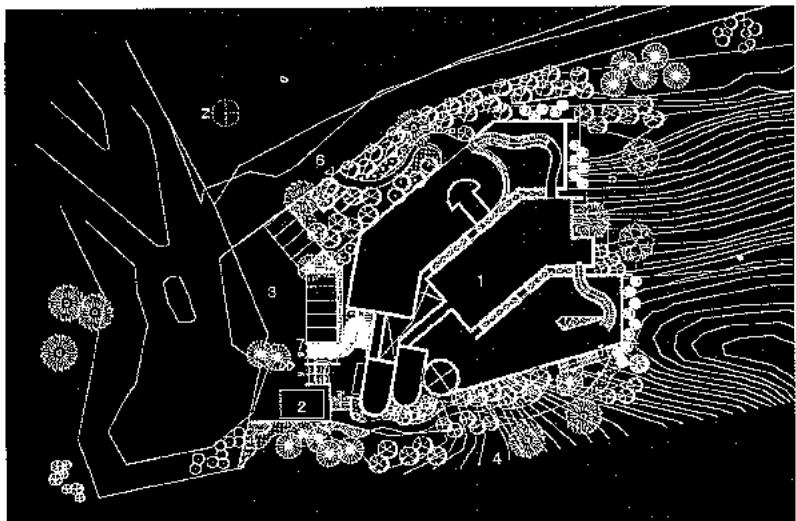
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건축허가가 떨어졌다.

그 중간에 계획안들이 많이 수정되었는데 경사가 급한 삼성산 자락에 위치함으로써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야 했으며 오가는 등산객들과 신도들에게 납골시설이라는 위화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만 했다.

결국 평면계획을 콘티를 면밀히 분석하여 계단형으로 디자인하여 건축면적을 최소화하므로써 전체적인 부피감을 최대한 줄이려 노력했다.

또한 옥상 조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용객을 뿐만이 아니라 등산객들과 신도들에게도 산책과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으며 전체적 이미지 제고를 꾀하였다. 내부공간의 계획은 다양한 공간의 홍과 복도, 적극적 선큰, 실내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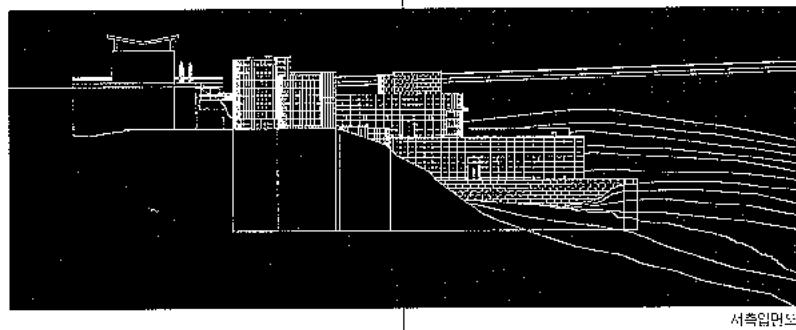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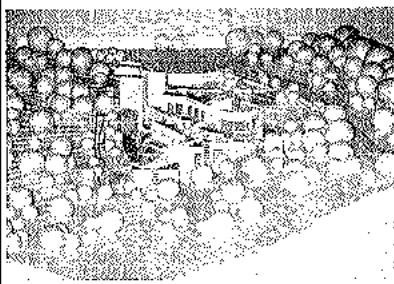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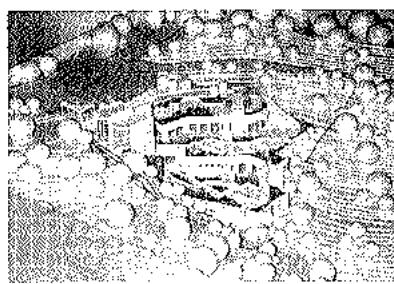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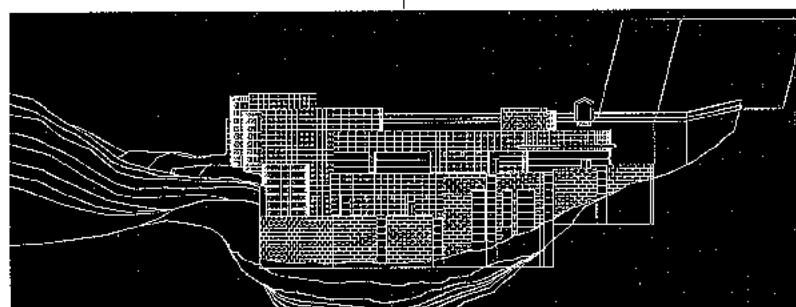
1. A동 건물 3. 주차장 5. 인접대지경계선 7. 주출입구
2. B동 건물 4. 오수처리 시설 6. 옥상정원 출입구 배치도

POND, 다채로운 수직동선 등으로 빛과 물과 녹화의 조화로 친환경적 공간의 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몇번에 걸친 각종 심의로 처음계획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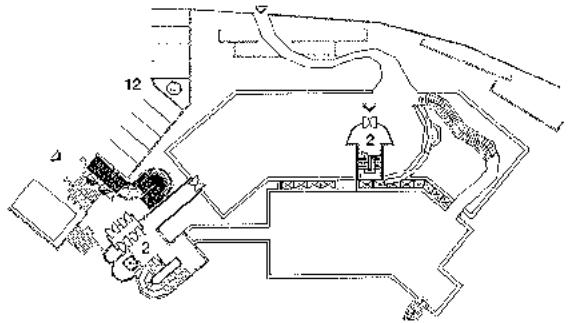
많은 부분이 변경된 점은 못내 아쉽지만 믿고 맡겨주신 성월스님과 종현형, 관계하신 많은 분들께 고마움을 느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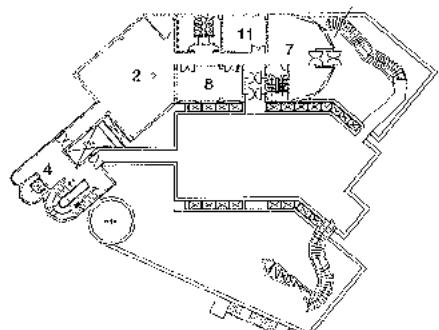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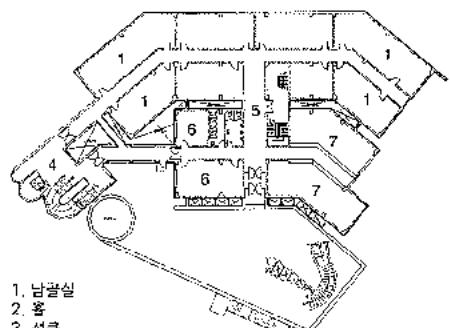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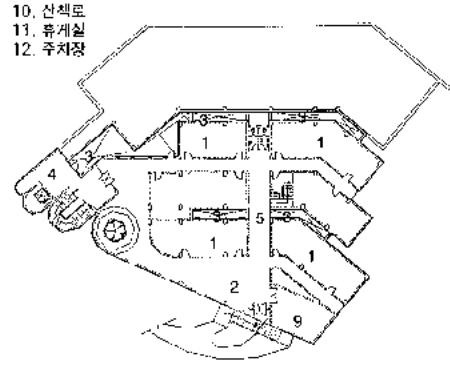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u

2002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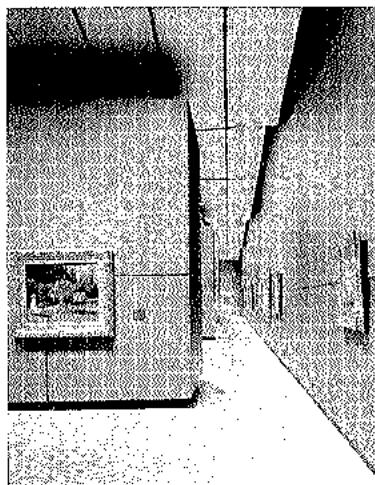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미술관(정 확히는 Museum으로 소개된 작품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모두 포함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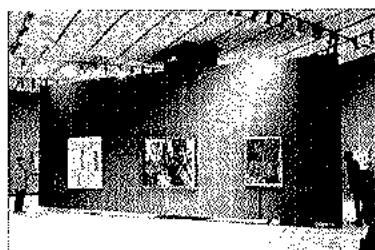
있다)으로, 최근에 완공되거나 계획된 미술관들을 소개하면서 달라지는 미술관의 최신 경향들을 살펴 보고 있다. 또한 위의 특집과는 별도로 특집으로 꾸며진 건축가의 소개로 환 하메렌 마스텐부르크 드 아 카 텍 텐 그 를 (van gerner mastenbroek, de architectengroep)이 마련되었다.

■ 특집: 미술관

▶ 미술관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이들 모두는 우리들을 계동하고, 지식을 전달하고, 자극하고, 기쁘게 하며 또한 즐겁게 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타문화권을 넘나드는 경제활동은 90년대 초에 그 전기를 맞았으며 이것은 다시 미술관의 존재방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한 문화가 산업화되어가는 중에 미술관 그 자체가 비지니스가 되어 미술관은 기업적인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한편 예를 들어 항공산업에서는 문화적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이 제휴, 합병, 자금제공, 공동사업 그리고 공동 경영이라는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하고 생명력이 풍부한 관점을 가져왔다. 그러나 9월 11일에 일어난 테러사건은 문화권을 초월한 새로운 연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에의 모색과 문화교류의 방식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게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술관의 존재방식도 변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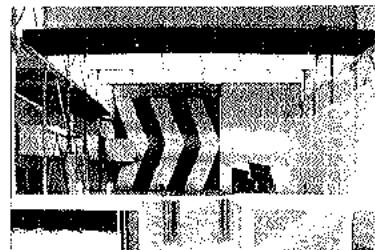
구겐하임 에르미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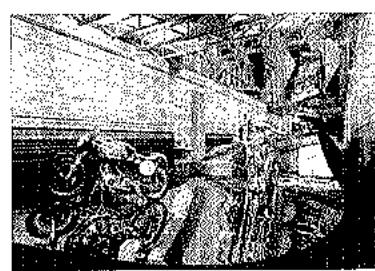
구겐하임 에르미타주

갈 것으로 보인다.

▶ 소개된 작품들은 렘 쿠하스(Rem Koolhaas)가 라스베가스에 설계한 두 개의 구겐하임 미술관(구겐하임 에르미타주 / 구겐하임 라스베가스)을 비롯하여 오트너&오트너(Ortner & Ortner)와 만프레드 웨돈(Manfred Wehdorn)의 뮤지엄 쿼터 빈(MuseumsQuartier Wien) 야보르네그 & 팔피(Jabornegg & Palfy)의 유덴플라츠(Judenplatz)



구겐하임 라스베가스



구겐하임 라스베가스



SOM의 센프란시스코국제공항 신국제미술관

미술관, SOM의 센프란시스코국제공항 신국제터미널, 엔센 & 스코드빈(Jensen & Skodvin)의 산양(山羊)치즈 박물관,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의 대형박물관 그레이트 코트(great court) 등이다. 이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본 특집의 소개에도 밝힌 것처럼 전세계에 미술관의 네트워크를 구성해나가고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이다. 렘 콜하스에 의한 두 개의 구겐하임 미술관이 권두에 소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겐하임 미술관의 전략에 대해서 이 미술관의 재단이사장인 토마스 크렌즈(Thomas Krenz)와의 인터뷰가 소개되고 있다. 또한 신선함을 전달해 주는 프로젝트로 SOM의 센프란시스코국제공항 신국제터미널의 전시이다. 이 전시공간의 기획에서 나타내는 바는 민주주의, 모빌리티(활동성), 공공스페이스에서의 예술작품이다.

▶렘 콜하스에 의해 설계된 구겐하임 에르미따쥬(Guggenheim Hermitage)미술관과 구겐하임 라스베가스 미술관은 모두 베네치안 호텔 부지 내에 건립된 것으로 각각 약 700m²와 5,870m²의 연면적을 갖고 있다. 비교적 소규모인 구겐하임 에르미따쥬는 생 페테스부르크에 있는 에르미따쥬미술관과의 공동사업으로,

에르미따쥬미술관의 상설전시물중에서 선정된 고전적인 작품만을 전시하도록 기획되었다. 건물의 내외벽은 코르텐鋼(Cor-Ten steel)으로 처리해 벌벳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여 18세기에 건립된 에르미따쥬 미술관의 벌벳으로 꾸며진 벽면을 연상시키도록 하고 있다. 다소 무거운 느낌을 주는 이 철제 벽면은

모든 것이 어디선가에서 차용해온 라스베가스의 주변건물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기다란 박스형태의 건물은 중앙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세 개의 간막이벽에 의해 4개의 실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통합된 하나의 전시공간을 만들 수 도 있어 작은 공간이지만 전시들에 맞추어 다양한 전시공간의 연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겐하임 라스베가스는 구겐하임 에르미따쥬의 약 10배에 다다르는 면적을 가지며, 메인홀은 높이 21m, 길이 64m, 폭 49m에 이르는 대형 공간으로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과 맞먹는 규모를 갖는다. 이 대형 전시공간의 상부에는 거대한 빔 크레인이 설치되어 전시물을 용이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거대한 미디어월(Media Wall)이 설치되어 각양각색의 전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물과 함께 소개된 「오토바이의 예술전」의 인스톨레이션은 프랭크 게리(Frank O. Gehry)가 맡아 진행하였다. 다양한 전시에 맞추어 그 모습을 바꾸어갈 수 있는 미술관이라는 구겐하임 라스베가스 미술관의 개념은 모든 것이 허구라는 것만이 사실인 라스베가스에 초합리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구겐하임 미술관의 재단이사장인 토마스 크렌즈와 오오시마 켄 타다시와의 인터뷰에서는 구겐하임 미술관의 세계적인 네트워크 전략을 통해 변화해가는 미술관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크렌즈는 과거 대영박물관이나 루브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같이 대규모의 미술관이 모든 시대와 문화권의 유물들을 모아 전시하는 개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미술관들은 그들이 전세계적으로 약탈한 유물들을 기초로 전세계의 모든 문화유산들을 전시하는 것을 꿈꾸고, 그들이 보유한 목록에서 빠져있는 부분들을 채워 넣으며 미술관의 확장을 꾀하지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유물들을 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구겐하임의 전 세계적인 미술관의 네트워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구겐하임의 네트워크는 시실 우연한 기회에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미술관의 건립자인 솔로몬 구겐하임의 조카인 페기 구겐하임의 소장품들을 기증 받으려 했으나, 당시 소장품들이 있던 이탈리아의 정부가 이를 예술품들의 국외유출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 이에 할 수 없이 베니스에도 구겐하임 미술관을 세우게 되면서 베를린, 소호, 빌바오 등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구겐하임의 미술관 네트워크는 맥도날드와 같은 후랜차이즈의 개념과는 다르다. 지역의 특색을 철저히 무시하고 일률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후랜차이즈와는 달리 각 지역의 미술관들은 각각 자신의 목적과 개성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소개된 라스베가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구겐하임의 미술관의 확장은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적, 공간적 확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오토바이의 예술전」과 전시 예정인 「조지 아르마니 회고전」은 미술관에서 전시되던 영역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미술관의 역할을 탐구하고 있는 것이다.

신건축

2002년 1월

최근 신건축에
서 특집이 자
주 꾸며지고
있다. 이번 호
의 특집은 「재
생의 디자인」
으로 5개의 설
계안과 대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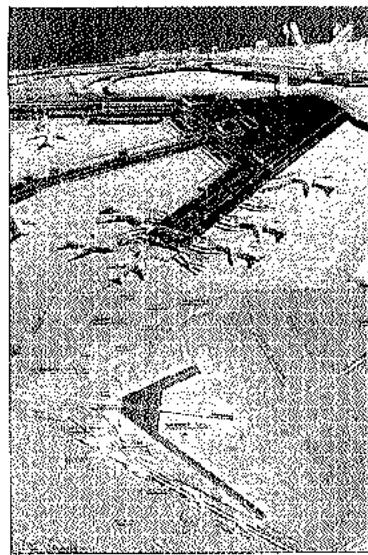


사. 계획의 제안서가 각각 한편씩 소개되고 있다. 잡지의 대부분을 할애하는 특집이 아닌 만큼 소개되는 작품들의 위계의 균형이 다소 맞지 않는 점도 있지 만 오늘날 꾸준히 자기되고 있는 문제를 더듬면서 건축에 국한시키지 않고 도시와 인테리어의 영역에까지 확장하여 다루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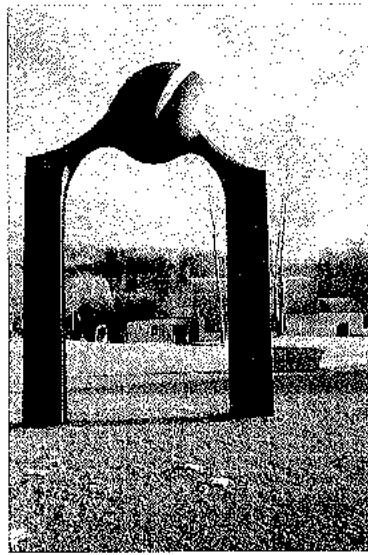
■ 특집: 재생의 디자인

▶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의해 이제까지 와는 다르게 사물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상황이 여기저기에서 목격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을 지금 한번 제대로 제 몫을 담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재생의 시도가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다.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요구되는 목적에 알맞도록 리뉴얼 하는 것으로 새로운 관계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것은 건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시 인프라의 간선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도시의 미래상은 확장의 방향에서만이 아니라 축소의 방향에서도 구해져야 하는지도 모른다. 도시, 건축, 랜드스케이프, 인테리어에 나타난 재생의 시험과, 재생을 향한 제안·제언중의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 특집은 「도시의 재생」, 「건축의 재생」,



동경국제공항 국제선여객터미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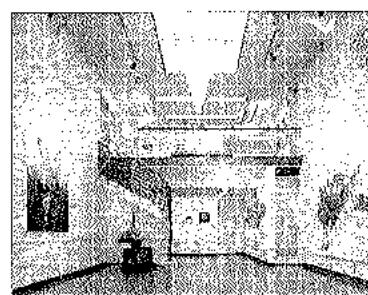


이토네피아찌美唄

장소와 기억의 재생, 「인테리어의 재생」, 「가로의 재생」 등 5가지의 테마로 구성되었다. 도시의 재생을 두고는 두 편의 기사가 실려있는데, 「도시로에의 시선」과 20세기를 거치면서 크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구조와 사회구조에서 도시를 규정하고 있는 짐작적인 요소란 무었인가에 대해 건축가이자 동경대 토목공학과 교수인 나이토 하로시와 도시기반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는 동경공업대학의 우에다교수와의 대담이다. 「동경국제공항 국제선여객터미널 계획」은 하네다(羽田)공항국제화에 의한 도시재생을 위한 미래도를 제시한 것으로, 하네다공항은 2015년경에 연간 3만회의 국제편항공을 수용할 수 있는 확장계획이 국가에 의해 발표되어 있다. 여기에 실린 계획안은 이케하라(池原)씨의 독자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아시아 경제에서 살아 남기 위한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이것은 건축이라는 형태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하네다공항을 재생시키는 것은 하네다공항 자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동경, 나아가 일본의 재생에 관계되는 중요한 프로젝트인 것이다.

▶ 「건축의 재생부분」에서는 비교적 평이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그리핀 디자이너들을 충족시킬 다양한 재질의 종이를 만들어내던 실험공장을 이번에는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장으로 기조하는 것. 「장소와 기억의 재생」에서는 폐교된 초등학교 교사를 조각공원과 갤러리로 재생해낸 사례인 「이토네피아찌美唄」가 소개되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해 지방의 산업이 침체됨에 따라 폐교된 학교를 적은 예산 속에서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 10년에 걸쳐 완성된 이 문화시설은 건축적인 성과에 덧붙여 지역사회와 재생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인테리어의 재생」에서는 50-60년대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가였던 무라노 토고(村野藤吾)의 후지카와 화랑의 인테리어를 현대적 예술의 장으로 바꾸어낸 사례 등이 소개되었고, 「가로의 재생」에서는 타미뉴타운의 폐교를 고령자시설로 개조해내는 계획인 「고령화되는 뉴타운에서 필요없게 된 것과 필요하게 된 것」이 소개되었다.(번역/강상훈)



무로노 토고(村野藤吾)의 후지카와 화랑

2002년 1월호

환경 친화 건축을 특집으로 하고 있는 본 호에서는 자연을 직접적으로 요소로 차용하고 있는 건축물에서부터 태양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테마 특집 - 환경 친화

지난 역사를 통해 건축은 자연에 대한 지배를 의미했지만, 이런 명목 하에 수많은 자연 파괴가 이루어져 오기도 했다. 이제는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는 건축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건축계 전체의 반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축가의 출현이 요구되고 있다.

► Sarah Wigglesworth Architects의 영국 런던 Islington 주택

런던 북부의 버려진 대지에 지어진 이 주택은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 자연에 대한 동경을 위트 넘치게 표현하고 있다.



영국 런던 Islington 주택

목재, 나무 기둥, 지푸라기 등 다양한 자연 재료로 클라주 기법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이 주택은 특히 기차 소음이 들리는 방향으로는 모래주머니를 이용하여 벽면을 구축했다. 조각조각 덧붙여져 있는 외부 모습과는 달리 주택 내부는 훨씬 간결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 Lucien Kroll의 프랑스 Caudry 생태학 학교



프랑스 Caudry 생태학 학교

프랑스 전통적인 학교 건축의 배치를 따라 중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학교 건물군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각 부분의 특성을 살려주는 동시에 전체적인 스케일감도 원활시켜주고 있다. 벽면에 일부 사용된 기공되지 않은 낙엽송 목재는 에너지 활용에 가장 효율적인 재료였으며, 여기에 카노피 재료로 사용된 유리는 전체적으로 현대적인 느낌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그밖에 ►실제 성장하는 나무를 엮어 주택을 만드는 Marcel Kalberer의 식물 건물, ►Jan Störmer의 독일 함부르크 복합 건물, ►Erskine Tovatt Arkitekt의 영국 런던 그리니치 주택,

► Konrad Frey의 오스트리아 Hartberg Ecopark 태양열 건물, ►Wright & Wright Architects의 영국 런던 도서관 및 자료 보관소, ►Heinz Wondra의 오스트리아 Graz Lustbhl 태양열 주택, ►Sauerbruch Hutton의 독일 Magdeburg 연구소 등이 소개되어 있다.

■ 인테리어

► Allies & Morrison의 영국 런던 그리니치 Queen's House 복원, ►Seth Stein Architects, Drury Browne

Architects의 영국 런던 레스토랑을 다루고 있다.

■ 주택

► Enric Miralles, Benedetta Tagliabue의 스페인 바르셀로나 La Clota 주택



스페인 바르셀로나 La Clota 주택

작년 세상을 뜯 Miralles의 마지막 작품 중 하나인 이 주택은 전통과 새로움, 인간미와 텍토닉을 조화시킨 작은 건물이다. 문학의 자동 기술법과 같은 방식을 통해 건축 설계에 접근하면서도 맥락적 특성을 잘 반영했던 그의 경향은 이미 지어진 두 건물을 연계시킨 이 작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 벽들이 삽입된 기존 입면이 보존된 이 건물의 중심에는 2층 높이에 달하는 서고가 위치하고 있으며, 재료의 선택을 통해 옛것과 새것을 구분해주고 있다.

■ 조경

► 도심내 공원이 지역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Enric Miralles, Benedetta Tagliabue의 공원이 새로 완공되었다.

■ 기타

► Aga Kahn 상 시상 결과에 대한 평가, ►녹색 건축을 선도한 Thomas Herzog 전시회 평가, ►인터넷 산업의 퇴조로 어려움에 처했지만 SOM의 공항, Richard Rogers의 터미널 등 다양한 하부구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황, ►The Ethical Architect, Compact Cities 등의 저서를 소개하고 있다.

2001년 11월호

포트폴리오에
서는 생전에 설
계했던 건물이
완공된 고
Aldo Rossi를
돌아보고 있으
며, 근작 소개
에서는 Machado and Silvetti, Eric
Owen Moss의 건물들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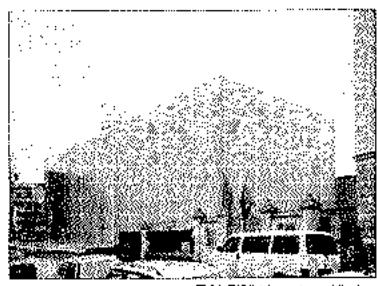


■ 포트폴리오 - Aldo Rossi

최근 미국에서 Rossi의 유작 3개(뉴욕의 Scholastic, 플로리다의 디즈니 Celebration Building 3, 캘리포니아 Burbank의 ABC Building)가 완공되었다. 시인이자 비평가, 건축가로 건축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시학을 동시에 강조했던 그는 미국의 도시에서 매력과 가능성을 느낀 몇 안 되는 유럽 건축가였다. Building 3과 ABC Building은 그에게 다수의 작품을 맡긴 바 있는 디즈니 사의 건물로, 건물 외피와 복도, 로비의 설계에만 관여했지만 고전주의 형태 요소들을 차용한 Rossi의 건축적 특징들이 잘 나타난다. 하지만 건축과 도시에 대한 그의 사고가 보다 잘 드러나는 것은 도시적인 맥락 속에 놓인 Scholastic으로, 주위 빌딩의 고전적인 어휘와 색채를 포스트모던한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다. Rossi는 '나는 모던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스트모던하지도 않다'고 말했지만, 그의 작품에서 보이는 형태적 특성을 지난 시대의 건축 양식과 연결시키는 게 그리 무리인 것 같지는 않다.

■ 근작소개

►Allmann Sattler Wappner의 독일
뮌헨 Herz Jesu Kirche
화재에 의해 전소된 성당을 재건하는 프



독일 뮌헨 Herz Jesu Kirche

로젝트로서,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건축기가 결정되었다. 당선작은 단순한 형태의 유리 박스와 독립된 구조물의 철재 종탑으로 이루어졌다. 종탑은 이 건물이 미술관, 공장, 오피스가 아닌 교회임을 알리는 기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전체적인 형태는 매우 단순하지만, 유리의

투명도를 달리하여 미묘한 차이로 다양함을 담고 있다. 과거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성경을 회화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면, 푸른 빛의 유리판과 그 위에 스텐실로 인쇄된 텍스트가 스테인드 글라스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Machado and Silvetti Associates의 미국 Salt Lake City Utah Museum of Fine Arts



미국 Salt Lake City Utah Museum of Fine Arts

Utah 대학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는 이 박물관은 이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도로의 종결점에 위치하고 있다. 좌우로는 브루털리즘적인 건축학과 건물과 조지안 양식의 비즈니스 스쿨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건축가는 인근 건물과는 대조적으로 미니멀리스트적 수사학으로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미술관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것은 프러시아로부터 건너온 18세기 화가 Marie Louise Elizabeth의 작품에 조용한 것이기도 하다. 세 개의 각기 다른 크기의 블럭이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얹혀져 있으며, 각각의 블록은 미묘한 변화의 패턴으로 복합적인 인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Utah 대학 캠퍼스의 메인축이 끝나는 지점에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단일한 매스의 콘크리트 기단부에 두 개층 높이의 다른 크기의 블록이 얹힌 형상을 하고 있다.

그 외에 ►Eric Owen Moss의 미국 캘리포니아 Culver City Stealth가 소개되어 있다.

■ 기타

►WTC 붕괴 지역의 재건축에 대한 논의, ►911사태가 미국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H.H. Richardson의 Ames Free Library 증축 계획에 대한 비판, ►건축관련 법규를 정리, 분석하여 도시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출판사 MCC(Municipal Code Corporation) 소개, ►현재 설계인이 검토되고 있는 Prescott Muir Architects의 미국 Utah Swarner Nature Preserve Education Center, ►네덜란드 Groningen에 뒤늦게 지어진 John Hejduk의 Wall House 2, ►기념관 건축의 과밀화로 문제에 빠진 미국 수도 Washington, D.C. 관련 소식이 게재되어 있다.(번역/최원준)